

추사 글씨 귀향전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전

추사 글씨 귀향전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전

추사 서거 150주년 기념

추사 글씨 귀향전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전

전시총괄 | 김영복

전시진행 | 김규선 · 이영구 · 이정찬 · 황정수

발초번역 | 이충구 · 김규선

작품해설 | 김규선 · 김영복 · 김세식 · 김현권 · 이동국 · 정후수 · 최종수 · 황정수 · 하혜정

사진 | 최동혁

도록제작 | 도서출판 학고재

작품보수 | 낙원표구사

인쇄일 | 2006년 9월 20일

발행일 | 2006년 9월 29일

발행인 | 최종수

발행처 | 과천문화원(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45 t.504-6513)

전시기간 | 2006년 9월 29일 ~ 11월 8일

전시장소 | 과천시민회관 전시실(t.500-1343)

추사 글씨 귀향전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전





일러두기

1. 이 도록에 실린 자료는 후지츠카 치카시의 추사 관련 소장 유물을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야기나오가 와친사에 기증한 것 가운데 일부이다.
2. 이번 기증 유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방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자료를 분류·정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 추사와 의·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유물과 사적인 첩범하여 실었고, 도서 목록은 선장본 책만 정리하였다. 나머지 자료는 추후 정리, 공개할 예정이다.
3. 이 도록에서 후지츠카 치카시는 '후지츠카'라고 약칭하기도 했다.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야기나오는 원래 이름 그대로 표기했다.
4. 한문 원문에서 검은 네모(■)는 탈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글자이며, 흰 네모(□)는 채색되지 않은 글자이다.

발간사_ 최종수

축사_ 문화도시에서 추사 연구의 요람으로_ 과천시장
추사 김정희의 혼, 경기도에 심다_ 경기도지사
다시 돌아보는 추사의 예술세계_ 유홍준

후지츠카 부자(父子)에 대하여 13

후지츠카 치카시 소장 자료가 돌아오기까지_ 최종수 14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추사 자료의 의의_ 김영복 16

수록 도판 192

I
추사의 친필 작품
..... 19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추사 간찰의 조형적 특징_ 이종국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추사 편지의 내용
_ 김규선

II
추사 학연과
청대의 학자 91

우선에게 보낸 편지들_ 정후수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자료 속의
청(淸) 회화_ 김원권

III
후지츠카 관련 자료 및
추사 연구 자료 139

후지츠카 치카시의 삶과 학문_ 김세식

IV
후지츠카 기증 도서
..... 161

오해와 이해 - 후지츠카 기증 도서 해제
_ 하혜정
기증 도서 선장본(線裝本) 목록

발간사

과천문화원장
최종수

지난해부터 준비를 시작한 추사 김정희 선생 서거 150주년 기념사업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과천에서 김정희 선생과 관련한 학술 연구사업이 금년에 하나의 큰 획을 그으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기도에서 금년에 실학 인물로서 김정희 선생을 주제로 하여 실학축전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선생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하여 가장 많이 연구하고 또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던 후지츠카 치카시(藤塚 知) 박사의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藤塚 明彦) 선생이 소장 자료를 기증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후지츠카 부자야말로 추사 관련 분야 연구의 선구자였으며,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행한 분들입니다.

국제학술대회 준비 관계로 알게 된 후지츠카 아키나오 선생은 과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추사 김정희 선생 연구 및 관련 사업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많은 자료를 과천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기증 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전시하고 도록을 만드는 것은 그 시지일 뿐입니다.

이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고 도록을 보아야 할 선생께서 지난 7월 4일 돌아가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문화 교류가 일본에서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셨던 선생의 뜻을 이루지 못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 도록을 후지츠카 아키나오 선생의 영전에 삼가 드립니다.

선생의 높은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를 계속하는 큰 책임이 우리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동안 기증 자료 인수와 전시회 개최 및 도록 출간을 뒷받침하여 주신 여인국 과천시장님, 이경수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천문화원 이사님들은 물론, 유흥준 문화재청장님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에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차례 일본 출장과 기증 자료 인수 후속 업무를 함께 하고 계신 김영복, 이충구, 김규선, 이영구, 김채식 운영위원 여러분과 김기곤, 김기세 과장 그리고 황정수 운영위원, 이정찬 회장을 비롯한 추사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후지츠카 아키나오 선생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장례를 치른 뒤 모든 자료를 과천시에 기증하여 주신 코마다 가즈코(駒田和子) 여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에서 추사 연구의 요람으로

삼라만상이 오색의 빛을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추사 서거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추사 글씨 귀향전을 과천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의미는 추사 연구 최고의 권위자인 후지츠카 치카시 선생께서 평생 모은 추사 관련 자료를 기증하신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 선생의 큰 뜻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후지츠카 부자(父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엔 개최되는 전시회를 통해 19세기 실학의 거두(巨頭)였던 추사의 삶과 예술 세계가 재조명되고, 추사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학자들의 교류 관계 연구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과천시가 명실 공히 추사 연구의 요람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과천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사선생께서 거주하셨던 과지초당과 독우물(현 과천시 주암동 224번지 돌무개 마을 일대) 등을 복원하고,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추사 친필을 국가 유형문화재로 지정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추사기념관을 건립하고, 추사를 연구하는 세 계의 석학들이 이곳에 모여 19세기 동아시아 문화사의 중요한 흐름과 계기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말기 최고의 문인, 학자이자 서예의 거장인 김정희 선생이 생애를 마감한 이곳 과천에서 모포록 추사 예술의 정수를 만끽하고, 선생의 고결한 정신과 학문세계를 이어받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사 글씨와 관련 연구 자료 1만여 점에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신 최종수 과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추사연구회 운영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과천시장

추사 김정희의 혼, 경기도에 심다

올해는 추사 김정희 선생 서거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은 금석문 학자, 서예·문인화가이며 시문과 논설로 일대를 풍미했던, 그야말로 문사철(文史哲)과 시서화의 대가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명성은 멀리 중국 대륙에까지 드높아 추사의 시서화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후대에 이를 '완당 바람'이라 불렀으니, 추사 김정희 선생은 요즘 말로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추사의 인물을 일찍이 알아보고 유물을 수집해 온 후지츠카 가문에서 추사의 친필을 비롯한 1만여 점의 귀중한 자료를 이번엔 과천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서화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 전시를 열게 된 것은 그야말로 겸경사라 할 수 있습니다.

'추사 서거 150주년 기념 후지츠카 기증 자료전'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혼을 우리 역사 속에 온전히 담는 일입니다.

올해 추사 서거 15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 곳곳에서 추사 특집 문화행사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는 '실학축전 2006'을 비롯하여 실학순례, 실학학술제 등 다양한 실학 현양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추사의 정신을 기리고 학문의 업적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후지츠카의 추사 유물 기증은 그 의미가 큼니다. 이는 한·일 두 나라의 문화교류사에도 길이 남을 일이며, 양국의 우정과 문화 교류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전시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과천시와 과천문화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번 기증 자료전을 통해 이 자료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실학의 산실인 경기도의 실학 현양사업이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큰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

다시 돌아보는 추사의 예술세계

어느덧 바람이 서늘해지면서 수확과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 달라질 것 없는 일상이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워지는 때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계절에 아름다운 문화도시 과천에서 '추사 글씨 귀향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천은 조선 말 최고의 문인이자 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위대한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전이 갖는 의미는 가을 하늘만큼이나 깊고 넓습니다. 이 가을의 화광함을 달아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강점기 추사 연구를 개척한 일본 학자로서 추사 시대 청나라와 조선의 학문적 교류를 상세히 고증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 후지츠카 치카시 박사의 기증 의사를 따라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가 과천시에 기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추사의 친필 26점을 비롯한 2,700여 점의 방대한 추사 관련 자료는 한·일 문화 교류의 초석이 되며 더욱 심도 있는 추사 연구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추사 글씨 귀향전'이 개최되기까지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과천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제반 과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추사의 유적 복원사업과 기념사업, 연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천이 추사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 흥 준

주변 곳곳을 풍요롭게 하는 추사의 자취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도 행복합니다. 그의 크고 작은 흔적들이 우리 곁으로 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한껏 호기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전이 성황리에 열리길 바라며, 이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추사의 혼과 예술을 느끼고 아끼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지츠카 부자(父子)에 대하여



후지츠카 치카시

藤塚鄰
1879~1948

한학자, 문학박사. 호는 素軒, 당호는 望漢廬. 도쿄대학 중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제8고등학교 교수, 경성제국대학 교수, 대동문화학원(大東文化學院) 대학장을 역임했다. 호시노 호오조오(星野豊城)에게 배워 청조(清朝) 경학(經學)을 접했으며, 고거학(考據學)을 바탕으로 경의(經義)의 재평가에 전념했다. 청나라 학자의 경해(經解) 원간본을 수집한 것이 만여 권에 이르고, 한묵수찰(翰墨手札)의 종류도 많았다. 경성제국대학 재직 중 조선의 김정희와 완원(阮元)·송방강(翁方綱) 등과의 학연을 추적하는 등 청조 경학이 동진(東進)한 양상, 경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조선·일본의 문화 교류의 전모를 밝히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에 『日・鮮・清의 문화 교류』, 『논어충현』, 『청조 문화 동진(東進)의 연구』 등이 있다.

후지츠카 아키나오

藤塚明直
1912~2006

부친이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할 때 한국에 와서 5년간 생활하며 경성공립중학교를 마쳤다. 도쿄대학고 중국철학과를 졸업했다. 부친의 영향으로 『황정경해』의 편찬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졸업논문을 썼다. 도쿄부립 제9중학교 교유(敎諭)로, 군마(群馬)대학 교양학부에서 한문 강사로 각각 재직했다. 퇴직 후 넉넉지 않은 생활이면서도 부친의 자료가 조선의 고도의 정신이 담긴 문화제라는 글자와 나루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오랫동안 보관해온 추사 관련 자료들을 2006년 초에 과천시에 기증했다.

후지즈카 치카시 소장 자료가 돌아오기까지

최 종 수

과천문화원장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순신 장군을 특별히 존경한다는 후지즈카 아키나오(藤塚明直) 선생은 3세기에 왕인 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가져와 처음으로 학문의 길이 열렸으며, 이제 21세기에 이르러 과거에 부친이 모은 김완당(金完堂)과 주변 학자들의 자료를 모두 과천에 기증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라며 부친의 추사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자료가 영구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진해왔다.

그는 이들 자료를 일본의 대학교에 기증하면 도서관에서 먼지에 싸인 채 제대로 활용되지 않게 되고 조카(코마다 가즈코, 胸田和子)에게 물려줘도 그녀가 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동안 추사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향후 계획이 뚜렷한 과천시에 기증하여 추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진다면 돌아가신 부친에서도 기뻐하실 것이므로 모든 자료를 기증한다고 했다.

선생에게 대한민국 국민총공헌공로상을 수여하는 날, 도쿄의 한국 대사관은 너무도 쓸쓸했다. 문화재청에서는 훈장 서훈을 위하여 선생을 초청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주일대사를 통해 훈장을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선생이 주일대사관에 가서 진해 받기로 했는데,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5월초부터는 움직이지조차 힘들어졌고, 5월 12일부터는 계속 산소호흡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며칠 뒤에는 앉아 있기도 어려워 누워서 지내야 했다.

부득이 조카딸 코마다 가즈코 여사를 한국 대사관에 안내하여 상송반 일등석기관 등 대사관 직원과 필자를 비롯한 한국의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나중일 주(俣)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가 훈장을 전하였고, 직낙때 네리마(練馬)에 있는 자택으로 가서 누워 계신 선생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 드렸다.

한편 선생은 금년 가을에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참석도 불가능해져 선생이 미리 써둔 논문을 읽는 모습으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곤란하게 되어 논문 원고를 들고 있는 모습 한 장면만 촬영하기로 했는데, 몸이 힘들어 하면서도 원고를 끝까지 읽어 나가셨다. 원고를 낭독한 후 호흡 곤란 증세와 심한 기침으로 위험한 순간을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그 순간에도 선생은 '영혼이 방 안에서 주위를 맴돌며 점점 멀어지자 가아아 내일쯤 죽게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책과 자료를 과천으로 보내라고 조카딸에게 다시 다짐해 두셨다.

이튿날 선생은 목소리는 다소 나아졌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아يا기를 계속했다. 이때 선생이 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작년 가을 최 회장과 그의 전화 통화 이후 자료 일체를 기증하면서 그동안 즐겁게 지냈다. /머리는 아직 건강한데 폐가 많이 나빠져 회복하기 힘들다. /한국의 대통령이 (내게)훈장을 수여하여 영광이다. /그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추사에 대해 한국에서 더욱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청조(淸朝)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조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밝혔다. /일본에는 유교가 없어졌는데 한국에는 유교가 살아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다. /한국인들이 자주 찾아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은 유교사상이 한국에 살아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청나라 학자들과 글을 주고받으며 책과 학문을 수입했는데 일본은 책을 땀흘려 이용해 사했다.

한편 그는 "그동안 자료를 처리하지 못하여 죽지 못했으며, 추사 관련 자료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다."고 했다. 참으로 숙연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며, 빨리 죽어서 편해지고 싶다고까지 했다. 완당 연구를 계속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잊지 않았다.

같은 날 코마다 여사는 주일대사로부터 자료를 기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가 있었다고 전해주었다. 그녀는 선생이 돌아가시면 혼자서 뒷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 연락을 하겠으며, 선생의 유언대로 남은 자료는 과천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좋은 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덧붙였다. 어쨌면 선생의 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 속에 귀국길에 올랐다.

기증 자료 인수 과정

2005년

- 3월 2006년 예정된 국제학술대회에 후지츠카 아카나오를 초청키로 하고, 추사 연구 논문 「청조문화동전(淸朝文化東傳)의 연구」 번역을 위한 관련 소유에 대해 동의를 받기로 함.
- 4~9월 후지츠카 아카나오 연락처 조사.
9. 22 요시다 교수로부터 연락처 이메일 접수하고 이틀날 답신 보냄.
9. 25 후지츠카 아카나오와 통화하기 시작하고 편지 보냄.
10. 8 첫 번째 서신 발송.
(부친의 경성제국대학교 교수 시절 내용과 퇴임 후 자료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간 후 1945년 5월 폭격으로 자료가 소실된 일 등을 언급.)
건담이 좋지 않다고 함. 「배움준이 아닌 박제가」라는 기고문 보내움.
- 10월 논문 발표에 관한 협의, 추사 관련 자료 보관 유무, 과천의 추사 관련 사업 내용 등 확인.
- 11월 후지츠카 아카나오 자택 방문 계획 등 협의.
12. 10 도쿄 네리마(練馬)에 있는 자택 방문. 주요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는 논문 발표하겠다. / 일본에서의 추사 연구는 안 되고 있으며, 한국의 추사 연구를 돕고 싶다. / 건강이 허약하면 내년엔 방문 하겠다. / 연구 논문 번역과 그 밖의 글의 활용에 동의한다. / 부친의 추사 연구가 과천에서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12. 12 추사 관련 자료를 기증할 의사를 보임.
12. 13~25 전화로 자료 기증 관련 협의.
12. 26 기증 자료 인수 절차를 협의하고 서신 보냄.
12. 30 기증 자료 기증 방법에 대한 의견을 서신으로 발송.
기증 자료 목록 작성 및 인수 진행은 과천문화원에서 하기로 함.
연구 논문 번역에 대한 감사문, 후지츠카 치카사 박사의 사진 2매와 약력 등을 발송.

2006년

1. 13 기증 자료 인수팀 출국하여 자택 방문하고 일정 협의.
1. 14 기증 자료 목록 작성. KBS 제작본부 교육문화 팀이 현황 촬영.
1. 15 기증 자료 목록 정리하고 학술 협의.
1. 16 기증 자료 포장. 과천시장과 후지츠카 아카나오, 기증 협약 체결.
(과천시장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자료실을 설치하여 보존하고 연구하며 전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추사 관련자료 2750점을 인수한다는 내용임.)
1. 17 연구 논문 박사학위 심사 보고서 발송. 기증 자료 일본 세관 통관.
1. 18 기증 자료 인천공항에 도착. 인수팀 귀국.
기증 소감과 향후 사업 희망에 관한 글 발송.
2. 2 기증 자료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회견. 주요 일간지와 TV 인터뷰.
2. 25 후지츠카 아카나오, 감사의 글을 보내움.
(이번 자료 기증은 높은 차원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한국인 여러분의 정중한 예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임.)
2. 26 후지츠카 아카나오 자택 방문. 과천문화원 기증으로 추대.
보도자료 등 증정. 일본 언론 보도 희망.
기증 자료 협의서 체결.
(향후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 추가로 기증하여, 양장본과 기타 자료 일체는 본인이나 사망 후 기증토록 하겠다는 내용임.)
2. 28 「황청경애(黃淸經猷)」는 일본본도 조선에 먼저 전해졌다는 글을 발송.
서울에서 이정자씨 외 2명이 선생에게 감사 편지 보냄.
3. 6 국제학술대회에 강당상 참석치 못한다는 서신 발송.
조선은 일본학문의 은인이라는 글 발송.
- 5월 서울에서 박은주 선생, 임재현, 백승희, 양무철 어린이가 선생에게 감사의 서신 보냄.
5. 18 주일 한국대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훈장장편장을 수여함.
조카딸 코마타 아사키가 대신 받아 전함.
6. 23 후지츠카 아카나오 입원(中野江古病院 1218호실).
7. 2 문병.
- 허장민 선생이 보낸 박제가의 초서 사본 증정.
7. 4 병원에서 별세. "선생은 고통 없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자는 것처럼 운명하셨다"라고 고마다 아사키가 전화로 알림.
7. 5 화장.
7. 23 가족묘지에 안장(東村山市 小平墓園).
8. 5 과천시, 과천문화원, 추사연구회 대표 6명이 후지츠카 아카나오의 가족묘지에 참배하고 애도의 뜻을 전함.
8. 6 2차 자료 인수.
8. 7 2차 자료 5상자분 황공민 탁송, 113상자분 산박민 탁송.
8. 14 황공민으로 보낸 자료 도착.
8. 23 산박민으로 보낸 자료 인천항에 도착.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추사 자료의 의의

김 영 복 문우서림 대표

후지츠카 치카시(이하 '후지츠카'라 하고, 그의 아들은 '후지츠카 아키나오'라 함) 소장 추사 유물 기증 자료는 추사 연구의 선구자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인 학자 후지츠카가 평생 수집한 추사 관련 자료와 그 집안에 소장돼온 일본 한학 관련 자료 일체이다.

기증된 자료는 26점의 추사 친필을 비롯하여, 추사와 청대 학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후선 이상적, 추사의 아우로서 청대 학계와 교류가 깊었던 산천 김명희 그리고 초정 박제가와 영재 유득공 등에게 보낸 청대 학자들의 많은 글과 그림 등 서화류가 70여 점에 이른다. 또한 청대 학술, 특히 경학에 관한 주요 자료인 『황청경해』 680책이 포함된 선장본이 약 2500책, 근대 양장본이 약 1500책에 이르며, 후지츠카가 정리한 원고 자료와 실물 사진 등이 1000여 종에 이른다. 또한 후지츠카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고문서와 서적 등이 200여 점에 이르고,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가 수집·소장한 프랑스 중심의 영화필름, 태일 등이 백여 상자에 이른다. 모두 1만여 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 자료는 추사는 물론 조선 후기 청과 조선의 학술과 문화의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이들 자료는 후지츠카 아키나오가 2006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기증한 것이다. 후지츠카 아키나오는 2006년 2월 1차로 추사 관련 자료를 과천시에 기증한 후 지난 7월 2회차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언에 따라 조카 코마다 가즈코가 나머지 자료를 과천시에 기증했다. 이 지면을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후지츠카는 1908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중국철학과를 졸업하였고, 1921년 10월부터 1923년 5월까지 1년 반 가량 북경에 머물면서 한학을 연구하였으며, 1926년에는 조선에 새로 설립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임명되어 중국철학을 담당하였다. 그는 도쿄제국대학시절 은사 호시노 호오조오(星野豊城) 교수와 핫토리 후노기치(服部宇之吉) 교수의 영향을 받아 청나라 고증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했다. 그 후 중국에서 유학하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청초학을 강의하면서 18~19세기 한·중 지식인의 학술 교류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후지츠카는 북경의 고미술품가리 유리창과 서술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고서집과 및 골동가게에서 중국 학자와 조선 학자 간에 주고받은 많은 서간문, 탁본, 책 등을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황청경해』의 편찬자 원원과 서화 감식에 뛰어난 웅방강 그리고 조선의 학자 추사 김명희가 특별한 관계로 이어진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자면 건륭·가경·도광 연대에 중국의 학풍이 자연스레 조선에 흘러들어오며 경학의 연구, 서화 감정, 금석의 고증 등의 방법이 학문을 전수하듯 조선에 전해진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 추사는 금석학이나 예술뿐만 아니라 청대의 학술 특히 경학에 정통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연구 확인하게 되었다. 후지츠카의 이런 연구는 1936년 4월 도쿄대학에서 받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이조에 있어서 청조 문화의 이입과 집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후지츠카가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수집, 연구된 원본 자료(도서는 제외)는 근 1000여 점에 이른다. 이 자료들은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수집한 것들이다. 1940년 그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갔다. 그 후 그는 일본 대동문화원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해방 직전에 손재형이 일본으로 후지츠카를 찾아가서 추사 자료 중 백미인 <세한도>를 가져온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하지만 그의 많은 추사 연구 자료는 일대 위기를 맞는다. 당시 그는 자료를 이케부쿠로에 있던 대동문화원 연구실과 테리마에 있던 자택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자료는 연구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료는 불행하게도 제2차대전 중에 미군의 폭격으로 거의 망실되었다. 그 밖에 집안에 남아 있던 자료가 이변에 기동된 것들이다. 다행히도 연구실에 있던 원본 자료 중 가장 귀중한 자료에 대한 사진이 집에 남아 있어 이변 기증 자료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귀중한 추사 자료의 대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지츠카는 수집한 많은 자료 중 그가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한·중 관련 자료만 인용했을 뿐, 나머지 추사 개인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활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변 기증 자료에 대한 세세한 사항이 모두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일차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거나 문헌으로만 발표했을 뿐 실물로 공개되지 않은 적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이 기증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추사라는 인물과 학문 및 예술세계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동양화의 기법 가운데 '홍염(烘染)'이라는 것이 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 가령 달을 그린다고 치자. 그리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달을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하여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 주위를 칠해서 본파랑이 달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후자의 방법을 홍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꼭 집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추사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홍염법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변 기증 자료 가운데는 추사의 친필 유품이나 추사의 손때가 묻은 책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추사를 중심으로 하여 추사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제2, 제3의 자료가 핵심을 이룬다. 추사를 연구하려면 추사 본인의 글과 예술작품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추사와 같이 기본적인 1차 자료가 부족한 인물은 주변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변 기증 자료는 추사라는 인물을 홍염법으로 탐구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후지츠카의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를 만나고 후지츠카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월급을 쪼개어 자료를 사 모은 것이다. 그래서 예술성으로 평가되는 작품보다는 사료가 되는 책과 자료가 대부분이다. 또한 직접 살 수 없었거나 후손이나 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대부분 사진을 찍어서 인편에 자료로 쓸 때를 위해 보관해 두었다. 이들 사진 자료는 추사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의가 한국전쟁 이전에 찍어둔 것이라 국내에 있었던 것은 심중판 구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변에 기증한 자료 속에 사진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 번 과음을 표현다.

후지츠카는 자료를 구입하면 몇몇 동료인과 함께 분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기에 진위 여부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 아마도 후지츠카가 당대 최고의 안목과 어울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변 자료 중에 '망한도인상'이라는 인모집이 있다. 이 인모집에 있는 '無雲海嶽 松隱無髭素茶同時審定之圖'이라는 인기(印記)가 이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싶다. 당시 최고의 감식가로 인정받던 영운(而雲) 김용진(金容鎭), 해려(海嶽) 임상종(林尙鍾), 송운(宋濤) 이병직(李秉直), 무호(無髭) 이한복(李漢福), 소전(素峯) 손재형(孫在馨)이 그 주인공들이다. 후지츠카는 이들과 같이 구입했거나 사진 찍은 자료를 심정(審定)했으며, 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야말로 추사 연구의 큰 힘이 된 것이다.

I

추사의 친필 작품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추사 간찰의 조형적 특징

이동국_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학예사

1

편지는 일상의 사연을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편지글씨는 조형보다 내용을 중시하고, 예술 이전에 생활이 추가된다. 그래서 그 글씨의 조형에서 쓰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나 그매의 기분이 숨김없이 잘 드러난다. 편지글씨가 주로 필속(筆速)이 빠르고 자유로운 행초서로 구사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엄정한 해서로 극도로 정신을 집중시킨 사경이나 비문 글씨는 물론, 운몽의 힘과 정신을 붓끝에 실어 쓴 편액 글씨인 대자서(大字書)와도 다르다. 그래서 예부터 행초서 공부의 전형으로 작가의 성장이나 기질이 잘 드러난 편지글씨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서에서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일상의 문자생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이상의 예술로서 어떤 글씨도 있을 수 없다는 역설도 여기서 비롯한다.

이 글에서는 시문, 간찰, 편액, 비문 등 추사가 남긴 많은 종류의 글씨 가운데 과원시가 소장하고 있는 간찰을 토대로 추사예술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추사 간찰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을 윤필과 윤목, 김희, 권구, 장필, 서체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추사글씨의 미학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원시가 소장하고 있는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 중 추사 김정희의 간찰은 총 26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사가 40대 초반 동생 명희·상희에게 보낸 편지 15통, 제주 유배시절 수취인을 알 수 없는 '항진'의 옥사(獄事) 관제 편지 등 3통, 과원시절 외조카인 민태호(閔台鎬)에게 보낸 간찰 5통, 과원시절 권돈인에게(추정) 보낸 편지 1통, 과원시절 이상직에게 보낸 간찰 4통 등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에서 보듯이 20대와 30대에 쓴 간찰은 없다. 그리고 50대에 쓴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40대와 60대의 것은 비교적 많다. 물론 이들 자료만으로 추사 예술의 전부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추사 채의 시기별 주요 특징이 편지글씨에도 잘 나타나 있는 만큼, 여기서는 해당 자료에 충실하여 40대와 60대 작품들 통해 추사 글씨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수신자	쓴 시기	수량(명)
김명희·김상희	1828년(43세)·1830(45세)	13
수취인 불명	1845년 권후(50대중반)·제주시절)	3
권돈인	1852년 권후(60대 후반)·과원시절)	1
이상직	1852년(67세)·과원시절)	4
민태호	1855년(70세)·과원시절)	5

과원시 소장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 중 추사 김정희 간찰

3

먼저 추사가 43세와 45세 때 두 동생에게 보낸 13통의 편지를 보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윤필과 용목이다. 여기서 보이는 추사의 붓의 운용은 집필이 대체로 모가 나지 않은 원필(圓筆)이며, 용목(用筆)에 있어서도 윤이 나는 먹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필은 태세(太細) 장단(長短) 기울기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결국 또한 집필의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여 안정된 짜임새를 보여준다. 마치 해서의 진행을 토대로 필의 가속도만 더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장법(章法)에서 글자의 대소(大小) 차이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필의(筆意)의 연결 또한 자연스러우네 이러한 점은 편지 글씨, 그것도 행서인 점을 감안하면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비교해도 추사만의 특별한 장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60대말 과천시절 추사의 편지글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특히 조카 민태호(閔台鎬)에게 보낸 간찰 5통과 60대 중반 이후 과천시절 권돈인에게(추정) 보낸 편지 1통, 67세 과천시절 이상직에게 보낸 간찰 4통을 보면 지금까지 본 세대 초반의 추사 글씨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단적인 예로 과천의 추사가 증주부사 우선에게 보낸 편지(鄒縣贈吳果函)를 보자. 윤필에서 모가 나는 방필(方筆)에다 뾰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골필(骨筆)이 두드러진다. 용목에서도 바깥 바른 갈필(渴筆)을 위주로 구사했다.

이것은 43세와 45세 때 추사가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갈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집필 또한 태세나 장단, 기울기의 변화가 40대의 것보다 현격하게 다른데, 획이 생략되어 짙으로 처리되기까지 한다. 결국은 한 글자 안에서 편방(偏旁)의 대칭이나 상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극심한 동세(動勢)와 대비가 전개된다. 그러나 이렇게 깨진 균형은 글자의 크기를 역으로 운용하는 장법의 묘미를 통해 화면 전체로 보면 새로운 조화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공간울 경영하고 있다. 더욱이 과천시절 편지 글씨에서는 당연히 행서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서의 필획이 혼용되어 구사되거나 결국 해체되는 파체식(破體式)로 추사체가 완성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4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비롯하는가. '인선구노(人善其老)'라고 했다. 청장년기의 힘이나 엄정한 글씨 구조가 노년기에 약해지면서 힘이 뻣 속에 숨어들고 결체 또한 이질러진다. 이것은 어떤 작가에게서나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추사의 경우는 여기에다 정치적 파란과 제주, 복청 등 잇따른 귀양으로 인한 복잡다단한 심리상태, 즉 울분이나 고독감, 세월이나 달관 등이 가감 없이 반영되면서 말년 글씨의 변화 정도가 더욱 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추사체의 성격이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추사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의 삶의 자취와는 별도로 글씨 자체의 변화를 주도해온 인자(因子)가 시기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추사체가 비(偏)와 침(偏)의 혼용의 결정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와 침이 시기별로 작품에 반영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즉 추사체의 형성 과정은 생애시기와 함께 비침의 영향관계를 문제 삼는 작품 시기를 동시에 걸부시켜 나뉘어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초년부터 24세 연행을 전후한 시기의 추사의 글씨는 실물 자료가 없어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좀더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그런데 연행 이후부터는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해서를 기준으로 보면 율방강의 영향을 받은 시기, 또 그의 영향을 벗어나 직접 구양순을 재해석해낸 시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에가 주도적으로 수용, 소화되면서 변화의 양태가 입체적으로 전개된 40대와 50대를 전후한 시기와 제주 유배 그리고 해배 이후로 추사체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나눌 수도 있다.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후지츠카 김택선'의 추사 편지는 40대 초반과 60대 해배 이후 정확한 기년이 밝혀진 작품으로, 추사체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밝히는 기초가 된다. 특히 과천시절의 편지 글씨에서는 시고나 대린, 현판 등 동시대 추사의 다른 작품에서 나타나지는 파체나 비침의 혼용은 물론 집필과 걸구가 해체되는 징후까지 간파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사체의 조형을 눈으로 보며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괴(怪)'라고 했고 '고졸(古拙)'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후지츠카 기간 간찰에서 보듯이 60대 말 추사체가 완성된 과천시절의 글씨는 추사만이 이룩한 바로 비정형의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몰두하다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비정형의 아름다움마저도 40대 간찰의 정형(正形)을 스스로 깨고 완성한 경지라는 데 추사체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추사 편지의 내용

김규선 · 한국외대 강사

자료는 소장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자료에 대해 낱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가 최초의 추사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추사 연구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 가운데 추사 편지는 모두 26건이다. 민태호에게 보낸 1건(82쪽의 도판28, 『완당전집』 제2권 중 '興問姪')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두 동생(김명희와 김상희)에게 보낸 것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민태호 등에게 보낸 것이 5건, 이상작에게 보낸 것이 4건, 권돈인에게 보낸 것이 1건, 그리고 수신자 미상으로 김항진(金恒進) 등 신변잡사와 관련된 것이 3건이다. 또한 두 동생에게 보낸 것은 40대 초반의 것이고, 민규호, 이상작, 권돈인에게 보낸 것은 파친시절인 말년의 것이다. 김항진과 관련된 편지는 정확히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제주 유배시절 무렵의 것으로 유추된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새로 공개된 것이라는 데서 그 가치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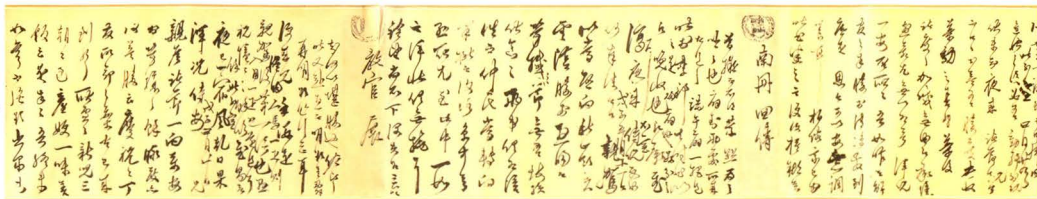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13건이 한 두루마리로 표구되어 있는데, 아마 후지츠카 치카시가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자 이를 영구 자료로 보존하기 위해 엮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황으로 보아 추사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후지츠카 치카시에게 기증한 자료이지 않을까 싶다. 추사의 일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던 40대 전반기(42~45세)에 쓴 이들 편지는 주로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부모님의 건강 등 가족 전반의 근황 등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난다. 그 밖에 관직 생활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내용이 보이기도 하며, 다산 정약용과 그의 아들 유산 정학연에 관한 언급들도 보인다. 이들 편지는 40대 전반 추사의 가족사와 개인사의 일면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간단한 쪽지 형식으로 된 수신자 미상의 세 권은 아마 제주 유배시절 즈음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김항진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그의 구속사건에 대해 해당 관아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글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보살핌과 책임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후지츠카가 표갑에 '권돈인에게 보낸 것'이라 되어 있어 권돈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편지는 비교적 긴 호흡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권돈인이 소장하고 있는 왕문해본(王文惠本) 「왕희지 난정서」 탁본을 보여달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 표현이 매우 간결하고 절실하다. 이 탁본이 지닌 의의를 말하고 자신이 반드시 꼭 봐야 한다는 뜻을 다량한 이유를 들며 전하고 있는데, 이는 금석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민태호 동에게 보낸 편지는 북청에서 돌아와 생의 마지막을 보낸 과정에서 쓴 것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김백련의 아들을 소개하며 그가 30줄을 읽어 내려가는 문리(文理)가 있으니 함께 어울려 달라는 내용이 보이는가 하면, 『법사도(法師圖)』를 빌려 달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들 편지에는 과천시절 추사가 교류한 사람들과 교류의 내용, 그에 따른 자신의 정서 등이 적분하고 한속한 문장 속에 자연스레 녹아 있다. 추사의 말년 곧 과천에서의 삶이 이 편지들을 통해 한층 깊이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에 소개되는 편지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이상직에게 보낸 4건이다. 형식에 있어서 사뭇 격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이상직과의 만남에서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두루 엿보인다. 청대의 학연과 관련하여 당시의 학술 경향과 주요 저서들, 그리고 그들 저서의 구입 등에 대해 이야기된다. 또한 글 곳곳에는 이상직에 대한 남다른 친밀감이 스며있기도 하다. 추사가 노년에도 변함없이 학문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하겠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글씨라는 형식의 정중함뿐 아니라 문장에 있어서도 시종 유려한 언어와 적절 한 비유가 잘 조화된 구조를 갖춰 한 편의 명문으로서 손색이 없는 점일 것이다.



1~13 김정희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 모음

1827~30년경

이 두루마리는 추사가 1827년부터 1830년까지 4년 동안 두 동생인 김정희와 김상희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다. 추사 나이 42세부터 45세까지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추사의 일생에서 가장 광만한 때였다. 이 시기에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중궁의 학자들과 교유없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연마했다. 추사의 생부 김노경도 병조판서 등을 지냈고,

두 동생 또한 벼슬을 했으며, 생가와 향가 모두 화목한 시절이었다. 부친의 안부를 걱정하는 추사의 마음이 역력히 나타나며, 당시 긴장된 추사의 삶의 자취를 읽을 수 있다. 추사의 50대 이전의 글씨가 의외로 남아 있지 않아, 그의 글씨의 변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卯君回照

昨於尹戚之來 見書 仍審日間渾況安善 欣注
 曷已 第地水雪月 令人神往不已 此中親候一
 向萬安 諸狀俱無他擾 阿仲今日似得稅直矣
 再昨書回隸 但持本物而去 使之追付矣 間或
 收照耶 家君還親 以向來狀請其廟堂尙矣 不
 爲區劃 故少觀其出來 致此遲遲 而亦不出於
 數日矣 餘姑留不式
 丁亥 十一月 十四日 兄

둘째 아우에게 답함

어제 윤씨(尹氏) 친척 편에 보낸 편지를 보고 그간 온
 가족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기쁨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그곳의 땅과 물과 눈과 달빛이 사람으
 로 하여금 그리워마지 않게 할 뿐이네. 이곳은 부모님
 이 한결같이 편안하시고 식구들도 모두 별 달이 없네.
 둘째는 오늘 일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네.
 그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던 종에게 목물(木物)만 가
 지고 뒤쫓아 가서 전하게 하였는데 혹시 받아보았는
 가?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는 일은, 이전의 장청(狀淸:청
 원)을 교당(廟堂:조청)에 고한 지 오래되었으나 구획
 (區劃:획정)을 받지 못하셔서 잠시 그 결과를 살피느
 라 이렇게 늦어진 것이네만 며칠을 넘지는 않을 것이
 네. 그달 이만 줄이네.

정해년(1827) 11월 14일 월



行書

其止也
 已第地水雪月
 人神性而
 親產一向
 此情天地
 仲之
 身吐牙
 求物
 付之
 家王
 此情

教官續展

順安來祭需三兩蘭到送之耳

便到未見書 恨甚 嘆風大作 雨意已屬千萬里
外 此豈細憂耶 卽間夜來 親候一向無損度 渾
況侍安 耿祝 佐郎今日果作行 而風日如是 何
以撼頓 憧憧不已 丹陽兄主 暨使言來過云 想
欣滿也 此中一如耳 昨政 雄也爲□山 於渠志
願已成矣 第家中 幹濟無人 此將何以爲好也
亦非細事也 安興亦忙甚忙甚 草草不式
五月 七日 兄

다시 교관(教官)에게

순안(順安)에서 제수(祭需)인 포(脯) 두세 개가
왔가에 보냄

인편이 왔는데도 편지를 보지 못해 매우 서운하였네.
메마른 바람만 거세게 일고 비가 올 기세는 천 리 만
리 밖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걱정거리이겠나. 밤
새 부모님은 별 탈이 없으시고 가족들도 모두 편안한
가? 마음 깊이 축원하는 바이네.
좌랑(佐郎)이 오늘 정말 길을 떠났는가? 바람과 햇볕
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내하는지 물라 몹시 걱정이네.
단양(丹陽) 형님이 다녀가셨다고 하니 몹시 기뻐
타이네. 나는 한결같네. 어제 인사이동에서 웅(熊)이
□산(□山:관직명으로 추측됨)이 되었으니 그의 뜻
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네. 다만 집안을 꾸러갈
사람이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겠는가. 이 또한 작은 문
제가 아니네. 안흥(安興)도 매우 바쁘다네. 이만 줄이
겠네.

5월 7일 형



教官

徐世昌

順安集卷之三

多思第... 徐世昌... 五月... 已... 伊... 就... 洋... 沛... 風... 情... 既... 似... 耳... 琴...

卯君回照

昨書似卽覽入也 昨夕便來 見手溫 恩治 夜來
雨餘風峭 侍親更如何 渾□俱無他擾耶 種種
狀念 吾一如 而足症添劇 酸疼難狀 悶然悶然
阿仲已出直 從氏亦已呈書承答耳 馬鞍依倒
而果破之不堪用 而仍以修改 亦堪爲之 何處
從更得新件來耶 餘不宜
戊子 二月初十日 兄
昨便所來藥缸 是何處生者耶 以是□□而不
的耳 昨日所稱壯紙與此藥事 須卽詳破如何

둘째 아우에게 답함

어제 편지는 바로 받아보았으리라 생각되네. 어제 저
녁 인편으로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고 매우 반가웠네.
밤 새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셌는데 부모님 모시고 어
떻게 지냈으며 식구들도 별 탈이 없는가? 이래저래
걱정이네. 나는 한결같지만 다리에 아픈 증상이 더욱
심해져 그 고통을 형용하기 어려우니 걱정이네. 둘째
는 이미 일찍 하리 나갔고, 종씨(從氏)도 이미 정서
(모후:상소)하여 비답(批答)을 받았네. 말안장은 그
대로 도착했으나 부서져서 쓸 수가 없네. 그대로 수리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어디서 새 것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럼 이만 줄이네.

무자년(1828) 2월 10일 형

어제 인편에 온 약단지는 어디서 만든 것인가? 이걸
로 임시로는 썼지만 적합하지는 않네. 어제 말한 강지
(江紙)와 이 약에 관한 일을 만드시 자세히 살펴주거
바라네.

世多不修之者

戊子二月廿六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此

後

取

華

紀

年

可

久

寅君回照

此是昨日書置 而別無他聞 略有及於上書可耳

硯兒手滋 謹審湯候姑一羹 昨今則聞日也 似無可以議到 而白虎湯還服之後 必有動靜外現 伏未知夜來諸節若何 而今日則益有勝度 夫收藥効之喜耶 藥後諸節之加減 無由即承 憧憧煎煑 尤無以爲言 渾況一安否 耿耿 吾如昨 而解官之幸 勝於清涼散 到底是恩 今可以安意調養耳 柏隣家已於昨書悉之 而便後模糊矣 來便只負內出如干物 而直爲下去 極可痛歎 使之追去付書 而恐未及矣 餘姑不宜

四月 廿九日 兄

첫째 아우에게 답함

이것은 어제 써서 둔 것인데 특별히 따로 들은 것이 없으니 간략히 상서(上書)에 언급하기 바람.

황(璜)이 와서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약을 드시고 계시는 아버님 건강이 전과 같은 상황임을 알았네. 어제와 오늘은 하루 사이여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을 듯 하지만 백호탕(白虎湯)을 다시 복용하신 뒤로 반드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듯한데, 밤사이 어떠하신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더욱 좋아져서 약 효과를 잘 보고 계시지는 않은가? 약을 쓰신 이후의 상황들을 들을 길이 없어 애타는 마음 글할 수 없네. 가족들은 모두 편안한가? 궁금하네. 나는 변함이 없으며 관직에서 벗어나 행복이 청량산(淸涼山)보다도 나으니 모두가 일금의 은총일세. 이제야 편안하게 심신을 기를 수 있겠네.

유백린(劉柏隣)의 집에 대해서는 어제 편지에서 자세히 말했으나 인편이 있는 뒤 소식이 아득하네. 찾아온 인편이 궁중에서 내준 약간의 물건만 전해준 뒤 곧바로 떠나버려서 매우 안타가웠네. 뒤쫓아 가 편지를 전하게 했으나 미치지 못했을까 싶네. 그런 이만 줄이네.

南間回傳

昨於李郎去時書 似卽覺收也 卽承恩瀉 夜來
侍況 更如何 奉滿 今日親駕 似當啓向秋嶺矣
雲陰勝於烈喝 而勞撻之節 無由致損 伏念伏
念 兩弟俱爲陪牲 而仲氏當轉向果嶺 而復路
京中矣 懸耿尤至 此中一如 而渾默俱無撓耳
餘望尚不下 □先爲三次首擬 而不得蒙點 爲
之咄咄也 扇封兩處所來者送之 端午之扇一
把送之 是賜扇也 茲分之耳 不宣
戊子 五月 十一日 兄

남색(南冊)에게 진함

어제 이랑(李郎)이 갈 때 보낸 편지는 바로 받아보았
으리라 생각하네. 지금 보내온 편지를 받으니 몹시 반
갑네. 밤사이 별고 없는지 궁금하네. 오늘 아버지 행
차가 추령(秋嶺)으로 향할 것 같은데, 구름 끼어 그늘
진 것이 파가운 햇볕보다는 낫지만 괴로하신 몸이 상
하지는 않으실지 적이 걱정이네. 두 아우가 모두 모시
고 가고, 중씨(仲氏)도 라천 선영으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 근황들이 몹시 궁금하네.
이곳은 이진과 다름없고 가족들도 별 탈이 없네. 전조
(銓曹:吏曹과 兵曹)의 망(望:추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미상)가 세 차례나 수망(首望:첫 번째
로 추원)을 했는데도 낙점을 받지 못하여 안타깝네.
두 곳에서 온 부채를 봉하여 보내고 단오(端午) 부채
한 자루를 보내니 임금께서 하사하신 것이어서 나누
어 주는 것이네. 이만 줄이네.
무자년(1828) 5월 11일 형



南丹回傳

[illegible]

教官展

便來 見手滋 是親駕後第一信也 懸視憧憧之
餘 欣慰易言 夜已一宿 風乾日晡 渾況侍安
親候諸節 一向萬安 於勞攘之餘 脉度亦復益
勝云 慶祝慶祝 丁友所命之藥 間已來到耶 耿
慮耿慮 新兒三朝已過 產嫂一味善飯云 是幸
是幸 吾終未如裏 而強欲出泉 未知何以堪勝
也 佐郎昨又赴直 而明欲呈辭 再明欲作行云
耳 僅備人馬 一疋則入用 一疋則還送耳 餘姑
不宣

戊子 四月 廿日 兄

교관(敎官)에게

인편이 와서 전한 편지를 받아보았으니, 이것은 부모
께서 행차하신 후 첫 번째 편지였네. 가슴 졸이며 기
도하던 중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미 하룻밤
이 지나 바람이 건조하고 햇볕이 뽀뽀한데 모두들 별
달이 없고 부모님도 줄곧 안녕하신가? 괴로하신 중에
백박도 더욱 좋아지셨다고 하니 크게 기뻐할 일이네.
장씨(丁氏) 친구에게 말한 약은 도착하였는가? 궁금
하네.

새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가 되고 산모도 줄곧 잘
지내고 있다 하니 다행이네. 나는 끝내 아원 대로 되
지 못하여 억지로 나가야 할 것 같으니 어떻게 이를
감내해야 할지 모르겠네. 좌랑(佐郎)이 어제 또 일찍
에 나갔는데, 내일 사직서를 올리고 모래 떠나려 한다
고 하네. 사람과 말을 겨우 마련에서 한 필은 들여다
쓰고 한 필은 돌려보냈네. 그럼 이만 줄이네.
무자년(1828) 4월 20일 형

教官 原

却以不堪懷也於中
吟又題五之明也
再刊此心以之耳

原年兄公海海

親駕馬一上則

祝懷一還已矣也

夜已宿風乳口果

潭沈情安

親年法亦一向為

心美情云慶祝之

友所部之為古之

州之已慶娘一味

朝之已慶娘一味

飯之與古之為

也

也

두 동생에게

1828년 22×44cm

南間回傳

朝書覽收 晚來欲雨不雨 轉益薰蒸 親候諸節
更若何 今日則更無致損 而憧憧如灼之私不
可言 渾況俱安耶 耿耿 丁友尙不來耶 種種懸
宛 吾一如 而內子之行 俄者無擾還歸 幸甚幸
甚 室中一空之時 尤幸尤幸 付來人馬告還 略
付數字耳 草草不宣

四月 廿五日 兄

劉柏陶家在何處耶 詳細示之如何

남책(南冊)에게 진함

아침 편지는 받아 보았네. 적낙이 되어 비가 후 듯 말
듯하며 날씨가 더욱 찌는 듯한데 부모님께서는 어떠
하신가? 오늘은 더 나빠지진 않으셨는지 애타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네. 가족들은 모두 잘 있는가? 궁금하
네. 정씨(丁氏) 친구는 아직 오지 않았는가? 이래저
래 궁금하네.

나는 한결간으며, 출타한 내자(內子)가 얼마 전에 별
탈 없이 돌아와서 매우 다행이네. 더구나 집안이 텅
비어있던 참이어서 더욱 다행이네. 보낸 사람이 돌아
간다고 해 간략히 몇 자 적네. 이만 줄이겠네.

4월 25일 형

유백린(劉柏隣) 집은 어디에 있는가? 상세히 알려주
기 바라네.



南丹

陵

朝生晚收晚食以
西而西極至蒼梧
親產沙市要何以
以則更無餘餘之
也約之於多者洋
何如乎一以清丁
為之也一以清丁
為一也之內多一
之矣拉是味一衣
甚之重中一也
先生之傳集今為
是時付教書了學
之意 丁巳年冬
劉振儒 言多所要者詳細

南冊回傳

宋詩鈔今欲付去 無負卜之人 無以寄去 留俟
後耳

甘注周洽 尚有餘祝 即承審日間 渾默晏好 欣
寓曷喻 山館濃陰想多恰適 玉泉之間調翰可
聽 殊庸馳神 此中親候 昨日勞憾之餘 一向無
損 吾亦強疾出脚 幸無更添耳 阿仲見赴日次
儒製 而昨日出令稍晚 未及轉報於君處耳 昨
日進表裏致詞 復有禮房啓對舉 兩承旨禮院
官加資之令敕 徐文俊輔俞應煥徐萬淳俱爲之
而已出於邸抄耳 具康以俞知有上書 其言多
駭妄 其鑒遠之 豈可知耳 書答亦已出於邸抄
耳 錄案向來人言是鐵限 何以出二命耶 昨有
政命 又陳懇耳 不宜 茶山詩得來者 示及可耳
五月十二日 兄
坡州倅 昨日暫因放釋渾放云耳

남책(南冊)에게 전함

『송시초(宋詩鈔)』는 지금 부처 보내려 하는데 짐을 지
고 갈 사람이 없어서 맡겨 보내지 못하니, 잠시 두었다
가 후편을 기다리겠네.

단비가 흠뻑하게 내리 기쁜 일이 많은데 그사이 모두
관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만가운 마음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산골 객관에 진한 그늘이 매우 쾌적하고 옥
천(玉泉)에 흐르는 물 소리가 벽 들을 만하리라는 생
각에 단박이라도 뛰어가고 싶네. 이곳을 부모님께서
어제 피로하신 가운데에도 별 탈이 없으시고 나 또한
방을 무릅쓰고 나섰으나 다행히도 더 심하지는 않네.
둘째는 일차(日次, 매월 정해전 날)에 치르는 유제(儒
製)에 응시하러 갔으나 어제 나온 명령이 조금 늦어
서 미처 그대의 처소에 알리지 못하였네. 어제 올린
표(表)에 언급했고 예방(禮房)에서 대기(待奉) 시련
을 아뢰었네. 두 승지와 예원관(禮院官)을 가져(加資)
하라는 영교(令敕)는 서준보(徐俊輔) 어른과 유응환

(俞應煥)·서만부(徐萬淳)가 맡게 되었으니 이미 저
초(邸抄)에 나온 것아네. 구강(具康)이 첨지(參知) 신
본으로 상서(上書)를 하였는데 많이 대부분 해피하
네. 그 대장을 보내니 보면 알 수 있을 것일세. 이에
대한 답사는 이미 저초(邸抄)에 나와 있네. 전안(銓
案:추천안)은 이전에 인원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었는
데 어찌 두 번 제수하라는 말을 내리겠는가. 어제 인
사이중 명령이 있었는데, 또다시 간청할 생각아네. 이
만 줄이겠네. 다산(茶山)의 시를 얻은 것이 있으면 보
여주기 바라네.

5월 12일 형

파주(坡州) 수령은 어제 석방되어 풀려났다고 하네.



南丹回傳

字號...
人...

始...
...

...

...

...

...

...

...

...

...

...

...

...

...

...

...

...

...

...

...

...

...

...

教官展

俄才有書 即便見來字 欣審親候諸節 一向無損
 渾狀俱安 慰喜曷量 丁友許所議藥方 問果來到
 而前此所進 榮芻稍過 翻此則常以清補爲主
 上書中亦有仰達 而難以緩肝煎餘意爲之 如鬱金之屬
 又不必更進矣 殊庸憧憧 此中一如俄狀耳 不宣
 同日 兄

교관(教官)에게

얼마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인편에 온 편지를 보고
 부모님께선 줄곧 별탈이 없으시고 석구들도 모두
 편안한 줄 아니 그 기쁨 어찌 이루 헤아릴 수 있겠는
 가. 정씨(丁氏) 친구 쪽에 이야기한 약 처방은 도착하
 였는가? 앞서 올린 것은 시금(紫葳, 약초의 일종)이
 조금 많으니 앞으로는 언제나 청(靑)자가 들어간 약
 제로 보완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네. 아버님께
 올리는 글에도 이를 언급하겠지만, 간이 타는 것을 누
 그리뜨리는 뜻을 담는다고 해도 올금(鬱金) 따위는
 꼭 다시 올릴 필요는 없을 것아네. 참 걱정스럽네. 이
 곳은 이진과 다름이 없네. 이만 줄이네.
 같은 날 형

兩弟並展

昨於何時入去 而似不至晚矣 經宵耿耿 夜來
侍視渾安 團圞尤万倍也 第於昨便 伏見下書
則親候再昨諸節 大爲致損 未知緣何失攝 而
伏不勝驚慮如煎之私 昨日諸節更如何 而不
至更損耶 所進之藥 已滿三貼矣 明日又當繼
進 而更議於某友耶 此藥比之前藥 頗有模稜
而終未收効 是不中故然耶 某友某條邀致 以
爲而議之地如何 憧憧不已 今日爲新兒七日
也 欣慰曷喻 無由卽視 尤爲耿耿 嫂氏乳患如
何耶 貢慮 吾一如昨狀 而終■■不休 可怪可
悶 渾狀姑無慮耳 左閣昨有郊迎之令教 聞自
楊州蒼黃入來云 郊迎還宿 而見於■■命於金
吾云耳 殿元俞戚星煥爲之 可喜可喜 昨以禁
喧事 騎郎高万九 決提十度帳前舉行云耳 餘
姑不宜
戊子 四月 廿三日 兄

두 아우에게

어제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도 늦지는 않았을 듯하네.
밤새 걱정했는데 부모님께서는 편안하신가? 단란하
게 모인 기쁨이 만 배나 되기도 남았을 것인데. 다만
어제 인편에 내려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그제 몹시 나
빠지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신 건지 몰라 놀랐고
애타는 마음 아무 감내할 수 없네. 어제는 어떠하셨는
가? 더 나빠지진 않으셨나? 올린 약은 이미 세 침에
이르고 내일도 계속 올라야겠지만 아무개(미상) 친구
와 다시 의논해 보았는가? 이 약은 이전 것보다 상당
히 강한테 끝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몸에 맞지 않
아서인가? 아무쪼록 아무개(미상) 친구를 불러와서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는 게 어떨겠는가? 몹시 걱정스
럽네.

오늘은 새로 태어난 아이가 7일째 되는 날이니 그 기
쁨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바로 볼 길이 없으니 더욱
안타깝네. 제수씨의 유환(乳患)은 어떠한가? 걱정이
네, 나는 여전하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 이상하기

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네. 가족들은 모두 별 탈이
없네. 좌의정은 어제 교외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일을
맡아서 하라는 하교가 있어서, 양주(楊州)에서 서둘
러 들어왔다고 하네. 사신을 맞이하는 일은 다시 잠잠
해져서 현재 금오(金吾)에서 전지(傳旨)를 기다리고
있네. 전시(殿試) 장원(莊元)은 척족(戚族) 유정환(俞
正煥)이 됐다고 하니 기쁜 일일세. 어제는 소요를 막
지 못한 일로 기랑(鵲郎·병조 낭관) 고만구(高万九)가
대궐 휘장 앞에서 곤장 열 대를 맞았다고 하네. 그럼
이만 줄이네.

무자년(1828) 4월 23일 형



雁弟并表

[illegible]

南冊回傳

卽便見來字欣慰 仍審風峭 起居安勝 渾狀一如
 是慰是慰 此中親候諸節爲添損 終未決復
 常度 吾亦一味踴躍 良覺怪事 種閣種閣 右揆
 今日又再爲尋單 以不許下答爲教 未敢知究竟
 如何也 西詩覽過耳 宋詩鈔茲送之 而一卷
 姑未補完 故一冊 則留之耳 六朝詩集果入收
 耶 不式

戊子 元月 十一日 兄

本寺罷狀 想卽入聞矣 此無口傳之教 似待政
 差出矣

남책(南冊)에게 전함

인편에 보낸 편지를 보고 기뻐네. 바람이 매서운데 잘
 지내고 있고 식구들도 모두 변함없다 하니 반갑네. 이
 곳은 편찮으신 아버님께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계
 시고 나 또한 줄곧 비틀거리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
 며 걱정하고 있네.

우의정은 오늘 또 사직서를 올렸는데 허락하지 않는
 다는 답을 내리셨으니 결국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네.
 유산(西山, 丁學淵)의 시는 읽어보았네. 『송시초(宋詩
 鈔)』는 이번에 보내지만 1권은 아직 보완하지 못해서
 1책은 남겨두었네. 『육조시집(六朝詩集)』은 입수하였
 나? 이만 줄이네.

무자년(1828) 정월 11일 형

본 편정의 파면된 상황은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네. 이
 것은 구전(口傳)의 하교가 없어서 인사행정에서의 차
 출을 기다려야 할 듯싶네.



李母回書

始

老姑事福完以
一月留之耳
報談榮采入
以便見妹字狀
似審風峭起居安
勝江情正果以
以此中
祝舊
為添換
常慶
姻良
聞之
為身
也
字訪鈔
長也之而一

김정희

두 동생에게

兩印同照

時青照至 嗔風連夜大吹 直欲乾人 夜來親候
諸翁若何 昨日又有氣升之候 如期○作云 不勝
焦慮萬萬 比之前度 加減如何 而丁友已為
黑點○以為何如也 今則症狀頗有
年前○瞎之意 藥路未知如何 而先從氣升者
治之 然後以爲之 而苦其間每於紫苔石膏等
屬下手之外 似無他 連以此等之方權進 又恐
十分審慮處遠近外約 難以形容 未知如何
如 渾狀一如 而產瘦斑子 亦一味平順耶 種
種取念 甚虧因候之如此 終不顯跡 極爲悶然
渾室託假他捷耳 左閣不知第 夫了眼前
一事矣 餘他人煩忙 略此不言

四月 廿四日 兄

所■■耳 祭物之三盤 何以盡施常政否 ■■
祭物一盤施之似好耳 昨者追去驅從即送 而
無使之淹如何

두아우에게

여러 편지는 받아보았는가? 매마는 바람이 밤새 불어
대 사람을 말리려하니 하는데 밤사이 부도날까라는
어머신하기? 이제 또다시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건데
가 약한 것처럼 또다시 아프니 하아 태어난 이후는 정해
수 없네. 전에 비해 그 정도가 어떠신가? 정(丁)씨
친구야, (미상), 어떠하다고 하는가? 지금의 증상은
분명 작년만큼 가슴이 답답한 것인데 어떤 증세 싸여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만
더 치료하고 나니 두 세를 치료해야 할 것인데, 만
일 그렇다면 시금(紫荊)이나 석고(石膏) 등을 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하니 이러한 처방을 계속 올
리는 것 또한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인데, 멀리서
태마는 무슨 일을 윤희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산모의 두창(痘瘡)은 순조롭게 나아지고 있는가? 이래저래 궁금하네.

나는 날씨 때문에 뚜렷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니 배
우 안타깝네. 식구들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네. 좌의

정이 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반갑고 기뻐네. 인편이 꼭
이나 서둘러서 이만 줄이네.

4월 24일 형

...[미상]...마전택(麻田宅)은 ...[미상]...단지...[미상]...
 ...[미상]...였네. 제물(祭物) 세 소반은 어찌 일상 행정에
 다 준비할 수 있겠는가. ...[미상]...제물 한 소반만 준
 비하는 게 좋을 듯하네. 어찌 간 심부름꾼을 뒤쫓아
 가 바로 보냈으니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나.



聊作回思

[illegible]

教官展

拔人連到 連見初三四兩書 欣慰 第日日曠風
 令人氣燥不佳 未委日間侍況更如何 渾營俱
 安否 種種懸談■■■阿中廊窓戶之屬 已爲塗
 改 昌寧見方居處耳 餘姑不宜
 庚寅 閏月 初五日 兄

교관(敎官)에게

심부름꾼이 잇따라 와서 3일과 4일의 편지를 계속 받
 아보고 몹시 기뻐네. 날마다 메마른 바람이 불어서 기
 운을 막막 타게 하는데 요사이 부모님은 어머신가?
 영대 식구들도 모두 편안한가? 이제저래 궁급하네.
 ...[미상]...가운데 상왕의 창호(窓戶) 등은 벌써 다 발
 랐고 창녕(昌寧: 인명의 대칭)은 현재 거소에 머물고
 있네. 그림 이만 줄이네.
 경인년(1830) 윤월 5일 형



敦官展

少中廣運戶之廣之
中廣運戶之廣之
播人遠到也史初三
西書以至此中史之三
風令人氣暢不惟生
矣日同情此為多
其以安士種之

교상의 우선에게

과천시청 28×54cm

橋上展 藏照

今已送客 可得投閒 一切無交涉 此心之態態
 日在其左右 緣陰已滿眼 動緒休晏 奉酬 賤狀
 一味沈頓 李嫌 裏處奄畢 悲廓難勝 老懶情事
 去而悶然 奈何 所喫茶粥乏 無他乞憐處 且不
 可以向人人言者 想亦舊囊必不存 微生之
 醜雖聖人所訶 有無相資 亦屬或人不得已也
 茲以冒煩 諒之諒之 姑不宣 病阮 澍

교상(橋上:장동교)에, 우선 보시오

지금쯤 객을 떠나보내고 일체의 교류도 없이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리운 마을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녹음이 눈앞에 가득한데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줄곧 침체돼 있습니다.

계수(季峻)의 상례가 어느덧 끝나 서글픔을 가눌 길 없습니다. 늙은 흙아비의 처지가 볼수록 치량하니 어찌해야겠습니까.

먹고 있던 차가 다 떨어져 달리 빌릴 곳이 없고 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묵은 상자에 남아 있지 않을 테고, 미생고(微生高)의 식초도 상인이 꾸짖은 것이긴 합니다만(『논어』 「공야장公冶長」의 고사에서 인용, 미생고가 자기 집에 식초가 없어 이웃집에서 빌려다 남에게 준 것을 공자가 오히려 나무란 일을 말함), 잊든 잊든 서로 도움을 주는 일은 또한 혹자의 부득이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쓰고 부락뜨리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병완(病阮) 보냄

橋上辰

明

河有無相噴亦屬古
人之不濟已也茲以月
令之遠客可得投問一
切無交涉此心之懸日在
其左右綠陰已滿水
動清休是春潮
一陳沈郎李媛袁虎
在軍悲廊
老艱情事去而問然
多何所契原謀之無
他乞憐愛且不可向
人言者想亦藉索必不
微生之監雖聖人所

중추부사 우선에게

1852년 24.5×77cm

藕樞續展 果函

雪藕山樞 既無問袁 誰爲訪戴 忽枉尺牘 宛
是與袁臘下書風味 蕉萃寂莫之濱 安得不欣
然彼暢也 況高詠佳篇 大嚼緩肉 又覺冷廚回
暖 藉想動靜隨喜隨安 不作永往雪車之惡札
也 何等歌誦 賤狀 苦不勝寒 甚於北時 夜則
一寒號蟲 朝起始爲得過鳥 遍歲百惑 回胸轉
輪 無以銷受耳 來惠諸品 一以收到 簪詩極好
非徒鯨鯨春醴 冷齋老人 恐復瞠乎後耳 快讀
三四 不虛拋此歲殘光矣 餘冀遐福 不宣
臘 廿七 老阮

중추부사 우선에게, 과천에서

눈으로 뒤덮인 산에 소리쳐 원안(袁安, 『후한서後漢書』 「원안전袁安傳」의 주인공)을 물으러 오는 일도 없는데 대안도(戴安道, 진위나라 때 왕위지의 친구)를 찾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뜻밖에 편지를 받으니 옛날 배공(裴公:미상)이 설달에 받은 그 편지입니다. 초월하고 격막한 이곳에서 어찌 놀랄 만큼 기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품격 높은 문장은 대단히 곱씹을 만할 뿐더러 차가운 무덤에 훈기가 돌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지내며 애써 몸살 글 짓느라 골몰하지 않으신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저는 추위에 대한 고통이 북창에 있을 때보다도 더합니다. 밤이면 한호충(寒號蟲:산막쥐)이 밤새 울어대

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날아갑니다.

저무는 해에 온갖 감회가 오강을 휘감고 돌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신 물품은 모두 잘 받았습니다.

석노시(石柵詩, 이상적이 지은 칠언 장편시 「속신석노齋撰石柵」를 말함)는 조화로운 화음이 봄빛처럼 고울 뿐만이 아닙니다. 영재(冷齋, 유득공柳得恭의 호) 노인도 다시 뒤를 돌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사내 면을 되위으며 남은 해를 그냥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해를 맞아 만복을 빕니다.

설달 27일 노환(老阮)

雪梅 續
果正

雪梅小景既無同
象諸君訪戴雪
狂天緘宛是與衆
曉不書風味意華
寔莫之濱安得不
叙歸也況高詠佳
篇大啖暖肉之樂
冷厨回暖藉相
動諸隨喜隨安不
作小檀亭中一惡
札也似等而誦吟
苦不勝寒自北時
未對一寒新報
朝起姑為得過馬
逼小歲百歲回腸
輪無以銷受斤
來處清品一洗到
塔詩極時非徒解
肥春農冷齋老人
以復贈手後中
快談三四不盡地
鐵光矣餘寒
近梅

不食
騰是老院

雨是從非悲天來耶 不雪 而三日霽注如梅
黃節 又不寒而暖 殆機杓倒旋 樞安隨順沖勝
運轉輕利 殊可念也 賤恙 苦無動定 釘着膠黏
唯開口如神惟待食而已 第阻胃已三四十日
牛猪鷄鴨 都無發醒 白菰青愛 如水投石 欲得
木耳一以試 滋苦難得 或有鼠壤之餘 可擅施
耶 適得僧茶少許 分之 近日東來者 尤不堪嘆
試之 餘不宣
老果

비란 생각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까? 눈은 내리지 않은 채 마치 매화가 익은 계절인 양 사흘 동안 퍼붓는데다가 출처 않고 따듯하니, 지옥이 거꾸로 돈 것이라 하겠습니까.

중추(仲秋)께서는 그저 편안하시고 운세도 순조로우십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몸軀도 앓고 야교처럼 달라붙어서 귀신 밥 먹는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위장이 꼭 막힌 지 3, 40일이나 되는데 소, 돼지, 닭, 오리로도 도무지 달래지 못하고 배추나

무는 물에 푼듯 알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얻어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데, 담백한 것이든 쓴 것이든 얻기 어려우니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 스님에게 얻은 차가 있어 조금 나눠 보냈습니다. 근래 동쪽으로 온 것들은 더욱이 먹을 수가 없으니, 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노과

既堂先生書札二通遺詞冷峭用筆清潤其天懷高曠不可一世
之概盡然於指毫間可寶也又學通雅與時真盛當吾國乾嘉之
際文軌大同東藩儒眼亦斐然可觀近來逐漸寂有無人之歎紀
適文感喟焉此 甲戌上巳過奉

素軒先生印可

雪楊居士楊鍾義



雨足從非無天來所不
雲而三日霏淫不梅黃首
又若寒而暖張纖杪倒旋
樞安隨順冲快運轉
輕利殊可念也必應若
兵車定釘着膠黏唯
聞必神 難待食而已
常涸胃已三晝日未諸雞
鴨都若食醒白松青蔓
如水投石乃木可一試
瘡苦謂得或有觚壞之
餘可擅施所適以僧
茶計之近日東來出兒
不堪嘗試之味不食果

17

양종희(楊鍾義)

추사 작품에 대한 발문

193457 29 x 9cm

청말 민국시기 학자인 양종희(1865~1940)가 후지츠카 치카시가 소장한 추사 작품에 대해 글씨와 문장으로 나누어 논평한 글이다.

藕船追中

董基誠子說 現在京現任何官 卽近世之戚原
瑞麟 有補天浴日之才 鷹代濟世之學 至於沈
博絕麗之文章 尙屬第二 想於其間 著作等身
諸公似皆知之 試覓其文字 李兆洛中書文字
似行於世 並叩之 是皆魏點深叢發源而胎息
者 母歎后看 馮晏海金石索 有追刻 而已有東
來 亦圖之

우선(藕船)에게 주신

동기성(董基誠: 청조 가정嘉慶 연대의 진사. 자자는
자선子選. 개봉지부 등을 역임. 『이화관집 移華館集』
이 전함)은 지금 연경에서 무슨 관직을 맡고 있습니
까? 근래의 위업 있는 분황이요 상서로운 기린으로
하늘을 기우고 태양을 씻을 재능과 시대를 놀라게 하
고 세상을 구제할 학문을 갖추었으니, 깊고 넓고 빼어
난 문장은 그 다음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 사이 저서
가 기만큼 떨어져서 여러 공들이 모두 알고 있을 듯하니
그의 글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략(李兆洛, 자자는 신기申耜. 『양일재문집養一齋

文集』이 전함)의 글은 세상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
니 이것도 함께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위목심(魏默深, 1794~1857, 이름은 원澈, 금문학과
수文學派의 대표, 『해국도지海國圖地』를 썼다) 등을
배출하게 한 이들이니 그냥 쉽게 보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안해(馮晏海, 이름은 운창雲鵬, 1829년 『금석색술
金石索』 편찬)의 『금석색』이 추각(道刻)되어 해동에 이
미 전해졌으니 이것도 함께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二酒中

追中

董基誠

子說現在京現任

何官即近世之威鳳瑞

麟

有補天浴日之才

驚代濟世之學玉於沈

博絕塵之文章

弟二想於其間著作

等身諸公必皆知之試

覓其文也

李兆洛中書文方以行

世並叩之是皆魏默深

筆程深而昭息者毋歎

後者

撫安海金石堂有追刻而

己有東來品圖之

추사와 김경연(金敬源), 조인영(趙寅永)이 함께 북한산순수비를 감정하고 새긴 발문의 탁본이다.

此新羅眞興大王巡狩之碑 丙子七月 金正喜
金敬淵來讀
丁丑六月八日 金正喜趙寅永同來審定殘字六
十八字

이것은 신라 진흥대왕의 순수비(巡狩碑)이다. 김정희와 김경연(金敬源)이 찾아와 관독하다.

정축년(1816) 6월 8일 김정희와 조인영(趙寅永)이 함께 찾아와 남아 있는 68자를 조사 관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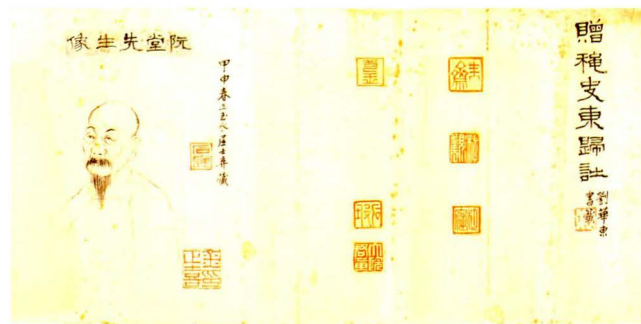
20 이한복 〈추사동귀도시〉임도

1940년 22×304cm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연경에 간 추사는 두 분의 스승을 만나고, 많은 지우를 사귀었다. 1810년 2월, 그들은 이별이 아쉬워 연경 법원사에서 송별 잔치를 열었다. 스승 원원을 비롯하여 이삼암, 홍개정, 담퇴재, 유삼산, 응삼원, 김근원, 이목장, 주아문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들은 추아문이 그린 〈전별도〉와 삼암 이임송의 「전별시」를 중심으로 하나

의 축을 만들어 주었다.

추사는 이 산물을 내내 보관하였는데, 이후 남병철, 김병기, 홍신대원군, 민영익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순재형이 소장했다. 화가 이한복이 이것을 그대로 임도하여 후지츠카에게 증정한 것이 이 작품이다. 현재 원본 소장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



秋史一奇士遠生東海濱春風猷
之來朝夕若比鄰吾人不特達芳
我中書君君書非今治暴有
樞帖存履紙大教哈謂我為
坊人縱譚無不有細瑣終具陳
人臣令合錄所及錄與素君起
至行以母乃風也回

一葉

坡公去千載猶見其弟子婆娑
第烈士襟抱古幾奇宋前也當
健否此或後世豈君豈秦然
耶舊瞻視以君闕閣信便
松烏雲滿前紙寶帶評蘇
齊哉世一坐矣我豈以譚言貞
箇六頁

二葉

宋儒涉聖涯析義窮初忽要
其訓詁故鄭實功不汲先天卻
子學注易則已乾果又存象數
輔嗣寬美別梅賾據古書即
補濟南則少序又何辜振轡
自立說經追進却傳義為野
宋談遂助映越目步使二傳於
禮固難器數規撫最闕達意
莊察一言未足當縣范東國
沿明規株守戒勿越君生後陸
孔欲辯爰與過研經此車
制約畧說著書等身而高
經師得君今抱經歸草有書
帶出

三葉

儒術師史治小見為詞章譚
五方一麾化年傳聲黃鯨波
奇里來化聚得墨庄今亭志
官一商趾華時欲陳吾門劉
石奇氣千丈驅孝穆對門長
行數鯨更將使使然云似登
忠史空淡畫對朱雲留書置
會曾為衣諸子弟親見郎
聞我有遺容題我前舍香
於此所書空坐苦為君
名家子能旌懷勿忘焉

為學必拜紀惟陳如金鑒眉
山平一氣妙度俄千頃為書藏
使布道交驕駢屏指彼十剎海
輪轉金粟最詩儒會席觀
不憚二介請訪古唐碑欲整義
仲師領歸鞭還夕陽二將望

遲憶

君才七僕僅志遠而沈靜莫
賈生年一觀方可益有經濟
有年原讀書求世頭分適司
馬華石流公年併管人新用
必自愛友理頂思弱僅勝長
而聲嗜打莊我言似藥石匪
徒信內景

十華

吾京即信信口口多東
人尤收父時相長名車南意
金甲輩

恨別太遠現相寄制那渡
事信注為行相里波君月史
樓解馬首雄向遠疆難說
再見則已餘為詢汝必入理
態猶旧料君來已西月有詩
不敢說不為詩更濕我悲近難
歌

歌

古詩七首贈劉

秋史進士即示海東諸舊時詩

庚寅年二月朔

雲間雲林松此





果老書寄石坡先生



玉磬洪卷五十三年之問轉、朱門
指不勝屈初學滋將之南圭齋琬琰
再為殷相飲漫思數三和初節舊
留常下傳于石庭孫又為策史杓庭
甚稱諸公三讀後唯親以輪轉不無
聚歎之風且書而示之之語真非
虛妄然讀後老而將
先生鶴白不替洋溢下也

小雲山人彭識



雲帽珍藏



朱畫三纖襪精緻李詩三書之飄
逸奔放俱三千古赤縣青邱上下百
年縱橫万里之文獻華于斯矣
堂大一點可係甚重金故特寫經
翰示同必云

庚辰十月三日

望雲堂主人老彭識

金成后入李榮禧



此邑金恒進因移見提云 此人即主人妹婿 而其子即學童之一也 晨夕服事于前 聞其父所遭 大驚怯呼訴不已 未知中間有甚委折 即不過獄囚釐級一事也 聞自七月月供六斗穀云 幸深加憫悉曲施諒宥 母或有下吏輩中間侵奪之地 如何如何

祠生事又有另及於營書中 左右亦以此中有所報 而不可不量宜奉施之意 第次更發如何如何 以此中所囑託 而左右亦欲一施之意爲言 爲好爲好耳
此紙即丙爲可

州城南門外居金相龜事 聞已有魏胥所轉及云 果關總耶 幸煩一爲存問 另示款意 至仰

이 고을에 사는 김항진(金恒進)이 이문(移文:관아 사이의 조회)을 통해 체포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주인의 매제이고 그의 아들은 저에게 글을 배우는 학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아이는 조석으로 나를 모시는데, 아버가 당한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놀라며 호소해마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 알아봤더니 옥살이하는 죄수에게 먹을 것을 준 것뿐이고, 7월부터 매달 곡식 여섯 말을 주었다 합니다. 바라건대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그를 석방해서 혹시라도 하리매(下吏輩)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독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사당 서생의 일에 대해선 감영에 보낸 글에 별도로 언급하였고, 그곳에서도 이 일로 보고를 올릴 터인데, 잘 헤아려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차례로 다시 보내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이곳에서 부탁한 것을 당신께서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받은 즉시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을 성 남쪽 문 밖에 사는 김상귀(金相龜) 사건은 이미 위씨 서리에게 다시 넘어갔다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부디 찾아보시고 특별히 보살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此意金恒進因移見授云此人以
主人妹婿而其子以學童之一也
晨夕服事於前聞其父以遺失
驚法呼誰不知知中間有是
要折以不過報因饋給一事也
開自七月之修年教云云
深如燭空曲施諒有母或方心
使輩中如侵耕之地云云

初生年又各名及日發書中
左右亦以此年男所結之而不可
量宜幸施之意第次更
後如少一以此年所屬托
之左右亦有一施之意云云
為好云云

此年亦不可不

州城南門外居金相龜事
開已有魏晉所結及云
開能今在法一為右同方
不款云云

22

김정희

일입자(一笠子)

제주시립 23×30cm

(右)

另示領悉 而是無足爲憾也 若自左右一以專
管 而無所及 則外面體段全不成說 何不念到
於此個事狀耶 似當有回照者矣 一笠子 於我
亦復濫甚耳
本片若更留念 何感何感

별도로 보내준 글은 잘 받았으며 유감스러운 것은 없
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을 모두 주관하면서도 돌봐
주는 바가 없으시다면 제 체면이 말이 안 되니, 어찌
이쪽 사정을 생각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마땅히 다시
돌봐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삿갓은 저의 분수에 넘친 것입니다.
만일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유념해주신다면 얼마나 감
사하겠습니다.

23

김정희

항진

제주시립 22×14.5cm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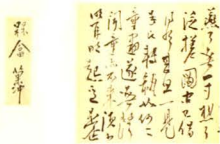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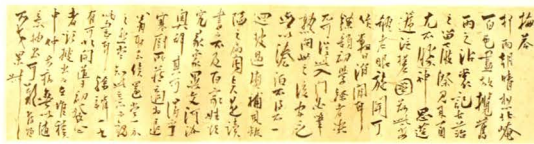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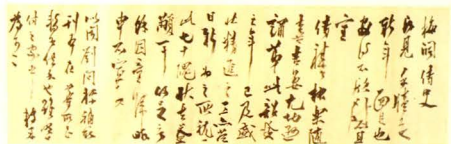
恒進 則見有身病 無以蠢動 又不可以病顛於
推挽之下 使其弟姑先代往云 一以曲諒 千萬
千萬

항진(恒進)은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만, 그렇
다고 불감아 들이라는 명령 앞에 발을 핑계로 말이 나
게 할 수 없어 아우에게 대신 가게 했다 하니, 이해주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另示領定之呈呈之為
憾也 另有 左右一以專
之其所及財分而能全
不果說何不 意到即
個中情形 以卷之
四照知人一心子也 誠心
法澄世年

本片若更 留怎何處

恒進則見身病意泰動又
不亦病頗相推挽之下使主
收先代法云一以曲語之



24~29

김정희 권돈인과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 모음

과천시립

이 두루마리는 6통의 편지로 되어 있다. 앞의 1통은 추사 알생을 통해 가장 절친하게 자낸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이며, 나머지 5통은 고모의 손자인 민태호에게 보낸 것이다. 이 중에 『예편(義編)』에 대해 언급한 1통의 편지는 『완당문집』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는 후지츠카

가 표갑에 '권돈인에게 보낸 것'으로 표사에 놓여 그렇게 추정한 것이다. 추사가 과천시립 일가에 어린 조카를 자상하게 가르치는 내정과 70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청진하는 추사의 학구열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며, 글씨 또한 추사체의 대표적인 글씨다.

王本茲敢先璧褚本 是夙所篤嗜者 舊有尚古堂
 堂本林翠雲所贈 攝本甚佳 今於十數年間 煙
 雲幻散 更無尋問處 何幸寶尉之又有此本 不
 覺神怡心閒如再來人 重憶夙世事 自以為窮
 塗恨人 亦有此一段喜歡 緣非尋常墨因 無非
 崇庇之澤厚惠深 視知已有 頗以自壯 可以長
 眼福 可以銷閒愁 可以轉舊習 可以娛餘年 第
 想此生 餘幾不過一年二年 多不過四三年 當
 囑兒子直於蓋披之夕 斂手擎還 以閣下婆心
 仁厚 必垂憫憐之 悲悲之一笑而許之 未知何
 如 敢待平日春注 白賴如是 亦一風流罪過 恕
 存其唐突者耳

왕본(王本: 왕문혜본王文惠本, 왕문혜는 송 인종仁宗 때의 사람인 왕수王隨의 시호, 왕문혜본이란 일찍이 왕수의 집에 소장되었던 「왕희지 난장점첩난장帖」에 대한 저수량褚遂良의 일모본臨摹本)은 가장 낡다고 할 저수량의 임모본으로, 특별히 귀하게 여기던 것입니다. 일찍이 임리운(林梨雲)이 제게 준 상고당본(尙古堂本)이 있었는데, 탁(拓)이 훌륭했습니다. 십수 년이 흐른 지금 풍과 속에 분실되어 찾을 길이 없었는데, 귀 서고에 이 탁본이 있다 하시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절로 신명나고 흥이 나는 것이 마치 잊었던 사람이 다시 찾아온 듯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곤궁한 길에 한이 서린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기쁨도 다 있던 말입니까. 인연으로 보아 일상의 복면

(墨緣)이 아니니, 이는 모두 돈독하게 돌봐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아주 부듯합니다. 이것은 안목을 높일 수 있고 부질없는 시름을 삭일 수 있으며 구습을 고칠 수 있고 남은 생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여생도 짧게는 1~2년, 많아야 3~4년을 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반아서 펼쳐보는 날 저녁 안에 바로 아이에게 잘 써서 보내게 할 터이니 인자하고 후하신 각하께서 가엾게 여기고 자비롭게 여겨 한번 허허 웃고 보내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평소의 돌봐주심을 믿고 이처럼 무턱대고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풍류의 죄과(罪過)이니 그 당돌함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去年莊敬先薛諸君
至風所寓者舊有
尚書堂序以校碑字
所贈拙序甚佳今特
以數年同煙雲以敬
更無尋同履以幸
實屬之有此事不覺神
怡心開也耳素人重懷
世事自以為家淹恨人
亦有此一段喜歡緣非尋
常墨緣無異
棠蔭之澤厚忠深視此
已有數八自壯可以長暇福
可以銷閑然可以持舊
習可以娛銷來 弟其
此生餘年不過二年二
年不多過也 官
眉見子直於善報之
夕飲名敬亭還以
閣下達心仁厚必垂憫
憐之心慈悲之一天以
之未和何也敬惜事
審注白賴女是品二風
流最過此者中唐突
者耳

梅洞侍史

轉頭之頃 又是綠陰一境 漸次工夫 亦當攬物
 警發 卽履侍福緣怡 詹狀多少 從 夫日奄臨
 完實而已 此居金鍊百 卽夙知 而十數年間終
 始如一 其人非未俗之與之上下著也 爲其子
 讀書計 要我託付於君輩 其意亦有可尚 幸於
 硯北一寸地 許其容旋 可以自利利他互相方
 便耳 其子年今十五 一讀三十行 亦中才之稍
 異者也 試之如何如何 餘不宣
 春晦 果從 頓

매동(梅洞) 조카에게

머리 한 번 돌리는 사이에 어느덧 녹음이 우거졌구나.
 하나하나 떨어가는 공부도 변하는 사물을 보며 한층
 가다듬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님 모시고 잘 지내느
 나? 이래저래 그림구나.

외숙은 기일(忌日)이 어느덧 가까워 머리를 밀구며
 지내고 있을 뿐이다.

여기 사는 김련백(金鍊百)은 일찍부터 아는 사이로
 십수 년간을 시종 한결같으니, 속세에 사는 그런 부류
 가 아니다. 아들의 글공부를 위해 너희들과 함께 어울
 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으니 그 뜻이 또한 가상하
 다. 책상머리 가까운 곳에 머물게 하며 서로 어울린다
 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그의 아들은 올래 열다섯인데 한 번에 30줄을 읽어
 내려가는 실력이니, 중간 정도 재능 가운데 조금 앞선
 자이다. 시험 삼아 함께 지내보는 것이 어떨겠느냐?
 이만 줄인다.

봄날 그림에 과천 아저씨

梅洞傳史

互相方便耳
 轉月之期又逢
 一境漸次
 境物故
 願侍福林怡
 多少
 實而己
 即風和
 終始如一
 之与
 不誤書
 不居
 尚幸
 其容

梅洞卽傳

杏庭一解 於汝非多 是喬木殘柯 又孤露餘生
 雖於異日大騰高轟 亦未必勝於今日小點 第
 目下供歡 尤可喜可幸 俯仰今昔 爲之感觸 非
 一二 卽親侍晏 湯藥近復何如 憶念不已 吾臨
 歲百感 錯起難收 老病轉劇自憐 委申 不式
 臘望 果叔

매동(梅洞)에 바로 전함

행정(杏庭)의 글씨는 너에게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니. 키 큰 나무의 쇠잔한 가지요 고단한 여생에
 있어선 비록 훗날 너른 나래를 활짝 펴는 것이라 해도
 쫓지 오늘보다 조금도 늦지 않을 것이다. 목하에 부모
 님께 드리는 기쁨은 더더욱 다행이요 기쁜 일로, 지난
 날을 회상하면 그 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너는 잘 지내느냐? 편찮으신 부모님
 의 병환은 어떠하냐? 염려의 마음 그지없구나.
 나는 지푸는 해를 맞아 밀려오는 온갖 감회를 추스르
 기 어렵고 노환도 갈수록 심하니 안타깝구나. 그럴 말
 거 적으며 이만 줄인다.
 설날그믐에 과천 아저씨

拙詞江傳

杏庭一解 於汝非多
是寫木然柯工和露
休生謂於異日大勝
高膚而未必勝於今
日點草目之供歡元
可幸可幸 俯仰今昔
為之或能生三斤
腰債通 湯其之
何如情念已至
求成石張增延到
收老花獨個月餘
更申 不
曉望其

梅洞卽傳 果書

春寒尙勁 傳況一安 聞携笈山寺 何時歸 亦誦
盡無餘誼 念切 此窠鶯如燕 了無一寸想耳 泛
槎圖 問已借得耶 甚思一見 幸卽轉輒 如何如
何 童盡遑無聲聞 童亦不來 須於明再明起送
是企

二九 果叔

매동(梅洞: 조카 민태호가 사는 곳)에 바로 전함.
과천에서

봄 추위가 아직 매서운데 부모님 모시며 지내는 몸은
내내 잘 있느냐? 책들을 싸들고 산사엘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 돌아왔느냐? 그리고 부족함 없이
다 독파했느냐? 몹시 궁금하구나.

나는 제비처럼 앞뒤 있으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

〈범사도(泛槎圖)〉는 빌려 왔느냐? 몹시 보고 싶으니
부디 보여주거 마련다. 동기창(董其昌:원문의 '董'은
董其昌의 '董'으로 해석하였음)의 그림은 끝내 소식
이 없고 아이도 오지 않으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만
드시 보내주거 마련다.

29일 과천 아저씨

天

板間江傳果少

秋

春寒尚勁 元壽
情况一安 閑勢
及山寺何時
亦誦盡安 餘
念切以栗 銀
燕了女一寸想
泛槎圖 古
以於目上 一見
寺以轉朝 以何
重動遂 夢
閑重 亦來 溪
以再明 起之 在

畢富 葉冲

梅答

郭雨朝晴 想北崦百花盡放 攬舊雨之沾裳 記
古菴之留屐 際見來函 尤不勝神思蘊藏之樣
圖 荷此委蘊 老眼旋開 可作數日清閒耳 隸韻
初學隸者 決不可從此入門 必筆熟問世之後
字乏無以湊泊 不得不一遍披過壘 補其缺陷
之偏旁矣 是讀書 而不及百家姓 欲究象象異
文河洛奧辭其可得乎 寒廚所藏 適爲退翁取
去 俟還 當一示之 然當知此意而觀此書耳 隸
辨一書 有可以開導初發心者 欲搜出 而在堆
積中 仲方病 無以隨意抽出 可歎 都留不式
果叔

매동(傅副)에 답함, 과천에서

매동에 답함

산촌의 비가 아침에 개었으니, 아마도 북엄(北崦:삼
청동 북악 부근)의 온갖 꽃망울이 다 터져 나뉘을 듯
실구나. 비가 옷을 적시던 일이 눈에 선하고 옛 이끼
에 나막신 자국 박하던 것도 떠오르는데 때마침 보내
온 편지를 받으니, 이 마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을 이루 감내할 수 없구나.

〈법사도(法師圖)〉를 이렇게 보내주니 노안(老眼)이
번쩍 드린다. 이걸로 한동안 무료함을 달랠 수 있겠
구나.

『예운(隸韻)』은 처음 예서를 배우는 자들이 결코 입문
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력이 익숙해져서 세
인(世人)의 평가를 받은 다음, 해당 글자가 없어 글자
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펼쳐보고
결함이 있는 편방(偏旁)을 떼우며 보충해야 하는 것

이다. 예컨대 글을 읽는 자가 『백가성(百家姓)』도 때
지 못하고서 『주역』의 「단사(象辭)」·『상사(象辭)』의
기묘한 글자 하도(河圖)·낙서(洛書)의 오묘한 말들
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가늠이나 하겠느냐. 내 책함에
소장돼 있는 것은 마침 퇴옹(退翁)이 빌려가고 없으
니 가져오면 보여주겠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미리 알
고 이 책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예변(隸辨)』은 초발심(初發心)을 계도할 수 있는 자
료인데, 지금 찾으려 해도 책 더미들 속에 들어있는
데다 둘째 아우가 많이 아파서 쉽게 손을 대 찾을 수
없으니 참 안타깝구나. 그럼 다음으로 머무고 이만
졸인다.

과천에서 아저씨

柳舍筆評

梅卷
 折雨朝晴想壯庵
 一色盡故攬舊
 雨之沾蒙記古語
 之留服際月且自
 尤不怪神思遂
 遂泛瑤圖為賦
 柳在眼旋開丁
 快書消開耳
 縱韻初學經者長
 奇從以門必筆
 熟向世之後中
 以淡泊不長一
 迴波過與補其缺
 臨之扁周大足讀
 中書不及百家姓
 究家宗黑文河冰
 與碑其可心海
 寒厨而於園為近
 清耶云侯遷堂一
 之此書知此三言
 此書有羅碑一七
 有可以同筆初發心
 者以搜出之唯後
 中仲多病妻以隨
 素拙出可新舊
 不長累時

梅洞傳史

即見手蹟 是新年面目也 安得不欣慰 且審待
 禧康樂 隨喜吉晏 尤切懸誦 第此韶發之年 已
 及盛壯 精進之工亦當日新 爲之耿祝耿祝 此
 七十醜狀 去益顯干 何足言 餘因童歸 略申
 不宣式

似聞笛間標補新刊本 在尊所云 暫爲借示也
 雖明日 付之家中轉來 爲可爲可

매동(梅洞) 조카에게

손수 써서 보낸 편지를 받아보았다. 새해의 첫 얼굴인
 데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부모님이며 형제들도 모두
 잘 있다 하니 더욱 반갑구나.

새해를 맞아 어느덧 청년이 되고 정진의 공부 또한 나
 날이 새로울 것이니 축하해마지 않는다.

이 일흔 먹은 추한 물품은 갈수록 사리를 분간하지 못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아이가 돌아가는 편에 전하기
 로 하고 이만 줄인다.

『차문표보(笛間標補)』(김매순金邁淳이 「주자대전朱子
 大全」가운데 4의笛瓶의 문목笛目을 정리하고 보완한
 책) 신간본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잠시 빌
 러주기 바란다. 내일 집으로 전해줘도 좋겠다.

梅頭侍史

以見公之

新年

西見也

公心不

債

善善善九地

誦

已及歲

壯精進

日新

此七十

顯

終因

申

以同

刊

付

方

30

〈세한도〉 인쇄본

1939년 27×111cm

제주도 귀양 중에 있던 1844년, 59세의 추사가 아끼는 제자 우선 이상직에게 그려준 서화합벽(書畵合璧)의 명품이 〈세한도〉다. 우선은 그 후 이를 가지고 연경에 가서 청나라 명사 16인에게 제찬을 받아 왔다. 이 〈세한도〉를 1930년경 후지츠카가 소장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손재형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져온 일화는 유명하다. 1939년 회감을 맞은 후지츠카는 추사의 친필인 그림과 글씨만을 복제하여 100부 한정본으로 만들었다. 이 사진은 그 한정본의 하나다.



寒山圖

徐船足賞

既全



去年以曉學長字告新美今春又以
瑞卿書偏寄美與諸世也今春瑞卿之
子方里也遠籍有年而計止一時之
事也且世之可唯權利之是視為之
者也盡力知誠而不歸之權利乃神
之神也其草枯枯之人如世之歸權利
者夫夫公云以權利為權利而失
此乃世之謂也中一人見者動意曰
扶危而權利之外不以權利視我耶
夫夫公之言見耶孔子曰與宋世也如
松柏之漢則知是世之時而不問者
或宋以前一物也或宋以後一物也
也聖人持權之於漢宋之世今居之者
我前而無知焉由漢而為權名曰由
前之世無權由漢之居之可見權於
聖人也所聖人之持權其後漢之
是權助抑而已自有權故於漢宋之
時者也吾子而宋時生也必以宋之
賢者為之漢宋如一軒門道也之
極至也夫此堂宋人所





31

김정희

사사표에 대하여

사진 1 면(대 미상) 54×15.5cm

추사의 진필 글씨 사진이다. 내용은 명말 청초의 서화가인 사사표(奎士標, 1615~1698)에 대해 논한 것이다.

查梅家 多鼎彝及宋元眞蹟 精鑒別書 初學倪高士 後參以梅花道人 董文敏 用筆不多 惜墨如金

사매학(奎梅學: 奎士標, 1615~1698)은 정이(鄭義: 고대의 제기, 한자의 원형을 많이 보존하고 있어 원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와 송, 원대의 진적(眞蹟)이 많고 서화의 감정에 뛰어나다. 처음에는 예고사(倪高士: 倪瓚, 1301~1374)를 배우다가 뒤에 매화도인(梅花道人: 吳璉, 1280~1354)과 동문민(董文敏: 董其昌, 1555~1636)을 참고했다. 용필(用筆)이 많지 않아 먹을 황금처럼 아꼈다.

동기창 작품과 추사의 발문

사진 | 1954년 5.4×18cm

추사의 친필 글씨 사진이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명의 서화가 동기창(董其昌)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적은 글씨이다. 원본의 소장처는 미상이다.

동기창 원문

青林鬱蒼蒼 長松出林表 所以蔣生還 無竹亦自好

푸른 숲 울창한데 키 큰 소나무 숲 밖으로 솟았구나. 그래서 장생(蔣生)의 길에는 대나무 없어도 좋지만 하다.

추사 발문

余初得此本 意以謂不可釋手 今爲至親一雅士所困 雖今不得已暫借 此若見失於他 是不知我之本心 亦不知愛此書者 惟是契從物無彼此 而況他人亦何可萌心惜侈耶 且此本 非與諸等閒墨跡所可比 則愛之藏 徹勿疎虞也
歲甲寅 仲春 跋 琅環人 書

내가 처음에 이 글씨를 가질 때 손에서 내놓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학도가 자꾸만 졸라 어쩔 수 없이 내놓는다. 그렇지만 만일 이것을 다른 데서 잃어버린다면 내 본심을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글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내 것 네 것의 구별이 없겠으나 다른 사람이라면 어찌 귀중하게 여길 마음을 갖겠는가. 그리고 이 작품은 다른 어느 작품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잘 간직해서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없길 바란다.

갑인년(1854) 봄에, 낭환인(琅環人) 쓰다.



II

추사 학연과 청대의 학자

日新 爲之
此七十 隗
類 干
終因 章
申 石 官
簡 劉 同

우선에게 보낸 편지들

정후수_한성대 교수

후지츠카 기증 추사 자료에서는 추사가 우선(蕭船) 이상적(李尙迪, 1803~1865)에게 보낸 편지 4통과 청나라 지인(知人)들이 우선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 및 부채가 새로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이들 편지와 부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추사가 우선에게 보낸 편지는 『완당선생전집』에 7통이 실려 있다. 그 중에 『(세한도) 발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편지로 볼 수 있는 것은 6통이다. 여기에 이 자료까지 포함하면 모두 10통의 편지가 전하는 셈이다.

반대로 우선이 추사에게 보낸 편지로는, 〈세한도〉를 받은 즉시 그 〈세한도〉를 가지고 북경에 가서 그곳 인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내용이 실린 한 통의 편지와만 일부 전한다. 또한 시문(詩文)으로는 우선의 문집인 『은송당집』에 「임춘 후 어느 날 용호로 김 추사 학사를 방문하다(立春後一日 龍湖訪金秋史學士, 1830)」를 필두로 추사를 사모하는 정이 듬뿍 담긴 칠언고시 「추사 김지랑을 보내며(贈秋史金侍郎, 1856)」 4수와 「김 추사가 보내준 묵란에 감사하며(謝金秋史墨蘭 贈墨蘭啓)」 등이 전한다.

그런데 『완당선생전집』 제9권과 10권인 시편(詩篇)에는 추사가 우선을 읊은 작품이 한 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필자는 추사가 우선을 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엔 새로 발견된 4통의 편지를 보고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4통의 편지를 하나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편지는 1852년 북청 유배지에서 풀려나 과원에 머물고 있을 때 쓴 것이다. 자신의 고단한 삶에 대한 토로와 뜻밖에 보내온 우선의 편지를 받고 반가운 마음을 몇 가지 전고(典故)까지 넣어서 피력하였다. 이 편지에서 추사는 우선의 문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실 우선은 중국에서 시인으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또 이 편지에서 추사는 우선의 「숙신노가(肅愼謠歌)」를 크게 칭송하면서 유득공(柳得恭)의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日懷古詩)」에 견주고 있다. 추사에게도 「숙신노가」와 유사한 내용의 「석노시(石謠詩)」가 있다. 추사의 「석노시」는 그가 북청 유배 시절에 지은 7언 고시(古詩)이다. 이 작품이 어떻게 우선에게 전해졌는지는 몰라도 우선이 그 작품을 읽고 화답(和答)한 시가 바로 이 「숙신노가」라고 생각된다. 우선의 「숙신노가」는 추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함께 보내졌고, 이 편지를 본 추사의 답장이 바로 이 자료의 첫 번째 편지일 것이다. 이 편지는 1852년 12월 27일에 썼다고 하겠다.

두 번째 편지는 버섯을 보내 달라는 요청과 차(茶)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편지의 내용은 병든 속을 달래기 위해 버섯을 좀 얻었으면 하는 요청과 함께 스님에게 얻은 차를 보내니 맛이나 보라는 이야기다. 길으로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보통 사이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없는 것이다. 대용 중 종주부사란 말이 나오는데, 우선이 종주부사에 오른 것은 1847년이므로 이 편지는 적어도 1847년 이후, 추사가 과원에서 머물 당시에 쓴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편지에는 막내아우 김상희(金相喜)가 아내를 잃고 쓸쓸히 지내는 모습에 대한 추사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고, 차를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우선과 김상희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또한 살대방이 차(茶)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편히 알면서도 감히 차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편지의 끝봉에는 살대방을 지칭하는 '교상(橋上)'이라는 말이 있다. 그 교상(橋上)은 바로 '칠계천 장통교(長通橋) 부근에 사는 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이 살던 곳이 바로 장통교 부근이고, 그가 1838년 장통방(長通坊) 2리(里)에서 원정(原正)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편지는 익관으로 청나라를 자주 왕래하던 우선에게 청대 학자들의 근황 및 저서의 출간 여부를 알려주고 서적을 구매달라는 내용이다. 편지 마지막 부분엔 풍안해(馮安海)의 『금석색(金石色)』을 찾아달라고 했으며, 우선은 이를 구매준 듯하다. 청대 문인들이 우선에게 보내온 편지를 모아 정리한 『해린척소(海隣尺素)』 가운데 반조음(潘祖蔭)의 제9신을 보면 『금석색』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가 1853년 1월 하순이었다. 이 편이 추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 편지도 추사가 복청 유배 이후에 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추사에게 청대의 서적을 전해주는 충실한 역할도 하였다. 그런 노력으로 추사에게 『새한도』를 받게 된 것이다.

청나라 지인이 보내온 편지와 부재를 살펴보면, 편지는 『해린척소』에 275통이 전사본(轉寫本)으로 남아 있는데, 이밖에 몇 통의 편지 원본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한층 자료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양동유(楊東有)가 보낸 편지(1842)가 있다. "책을 함께 보낸다"라는 무기(附記)가 있는 이 편지는 끝봉에 찍힌 '보령장국(寶寧張局)'이란 도장이 흥미 있다. 양동유는 『해린척소』에 여러 번 나오는 인물로, 우선과 청나라 지인들과의 교류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인물이다. 양쪽에서 오가는 물건들, 예컨대 종이나 인삼 문방구류 등은 모두 그를 매개로 하여 전하던 것이다. 그 장소를 보령장국이라고 하였는데, 이번 예이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그런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겠다.

또 주당(周堂)의 편지(1853)가 한 통 있다. 『해린척소』에는 주당의 편지 1통이 실려 있는데, 이번 편지는 새로운 것이어서 주당의 편지는 모두 2통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여원(余垣)의 편지(1830)가 한 통 발견되었다. 그의 편지는 『해린척소』에는 보이지 않고 이상직의 문집인 『은송당집(恩送堂集)』, 『회인시(懷人詩)』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자의 후손인 공한이(孔憲彝)가 보내는 '구작삼수(舊作三首)', 를 쓴 부재가 있는데, 여기서 이별과 만남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읊은 시가 있다.

후지츠카 치카시 기증 자료 속의 청(淸) 회화

김현권_인천항 문화재감정관

조선의 북학과는 기존의 화이관(華夷觀)을 비판하며 청조(淸朝)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청조 회화를 조선에 소개하곤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져 왔다. 우리는 후지츠카 치카시의 기증 자료에서 그들의 회화 교류 양상을 좀 더 다양하게 밝혀줄 새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 그림들은 유득공과 김정희에게 건네진 작품이다.

유득공(柳得恭, 1749~?)은 1790년 박제가(朴齊家, 1750~1805)와 함께 여행을 한 이후, 1801년 다시금 연경 땅을 밟게 된다. 이때 그는 청나라의 새로운 문사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조강(曹江)이라는 문인은 추사 김정희와 교류하는 등, 두 나라의 회화 교류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조강과의 만남은 그가 번잡스러운 유리창(玻璃廠) 일대를 싫어했기에 주로 그가 거주하는 정양문(正陽門) 밖의 운간회관(雲間會館)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이곳은 유득공이 청 문사들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유득공은 조강을 몇 차례 찾아가며 교분을 쌓아갔다.

어느 날 조강은 유득공에게 〈산수도〉를 보내왔다. 이 작품에는 "무오년(1798) 초여름에 외숙의 명에 따라 그러다. 생질 음향(蔭香)이라는 제가 벽이 있다. 즉 생질이 외숙의 부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 제의 내용에서는 유득공과 조강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으며, 이들이 만난 1801년에 그린 그림도 아니어서 두 문인간의 교류와는 관련이 없는 작품처럼 보인다. 다행히 유득공의 『연대계유록(燕臺紀遊錄)』에 관련 기

록이 있어서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그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그림은 조강의 생질 육경훈(柳鼎勳)이 1798년 외숙인 조강에게 그려준 것이다.

그 후 1801년에 조강이 유득공에게 이 그림을 선물하였다. 하필 조강은 예전에 생질이 자신에게 준 그림을 유득공에게 선물하였을까. 짐작하긴 대 자신의 처소에서 유득공과 육경훈이 여러 차례 만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산수화는 연한 묵과 담담한 필치로 산과 모옥 등을 작분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섬세하고 연미하다고 한 유득공의 평가는 아주 적절하다.

한편 조강은 유득공에게 부채를 보내기도 하였다. 부채의 한 면에는 그의 글이 있고, 다른 면에는 강계(康階)의 〈방매화도인필의도(薇花道人筆意圖)〉가 있으며, 글과 그림의 세에 유득공에게 쓴다는 내용이 있다. 즉 이 부채는 유득공에게 선물하기 위해 두 문인이 합작한 작품인 것이다. 강계(康階) 역시 운간회관에서 머물고 있었기에 유득공과 알고 지낼 수 있었다. 그림의 제에는 원나라 오진(吳鎮)의 필의(筆意)를 본받아 그린다고 되어 있지만 그림의 화풍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상투적인 제발(題跋) 어구로 보인다. 이 그림은 당시 흔히 그려던 누각산수도류로, 담묵을 사용하여 강호의 평온한 분위기를 재현해 보이고 있다. 이런 유형은 18세기 후반의 조선 회화에서부터 종종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유득공은 운간회관 외에 유리창의 서점에서도 청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조선의 사해원들은 여러 서적을 구하고자 연경의 고서적 거터인 유리창

을 자주 드나들곤 하였다. 더구나 유득공의 두 번째 연행 목적이 좋은 주자서(朱子書) 판본을 구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는 더욱 자주 이곳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유득공이 주로 들르던 서점 중에 취영당(徵靈堂)은 그가 두 번째 연행 때 새롭게 방문한 곳으로, 그는 거의 날마다 이곳에 가서 마음껏 책을 보았다고 한다. 이번에 전시킨 〈방원인필의도(倂元人筆畵圖)〉에 “신유년(1801) 6월에 원인(元人)의 필법을 따라 취영당사에서 그렸다. 일경(逸經)이라는 제가 있다. ‘일경’이 누구의 저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그림이 취영당에서 그려진 점으로 미루어, 그 서점 주인인 최기(崔琦)가 그리 유득공에게 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득공은 최기에 대해 ‘절치만 시에 능한 고상한 인물’로 평가하는 등, 꽤 호감을 가지고 그와 교류하였기 때문에 그런 추정이 더욱 가능하다. 그렇지만 취영당에서 알게 된 어떤 청 문사의 그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면 하단에는 언덕과 밭 장자가 있고 그 곁에 두세 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원경에는 산이 있다. 그 사이와 주변을 너른 수문으로 처리한 점이 라든지, 최초의 필묵으로만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은 현대 4대가의 한 화가인 예찬(倪瓚)의 화풍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이 같은 특징의 작품들은 18세기 후반의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었으므로, 유득공은 이 그림을 보면 그다지 새로운 느낌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북학파를 통해 들어온 청 문인의 그림들은 조선의 화단에서 감상되고 문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은 이미 조선의 문인과 화가들에게 익숙한 유형의 작품이며, 사물의 객관

적 묘사를 증명하는 측면이 남달랐던 18세기 북학파의 회화관에는 부합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세 점의 그림이 조선 후기 화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유득공이 연경에서 벌인 교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매우 유익한 자료들이다.

19세기의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본격적으로 금석고증학을 조선에서 일으킨 학자이자 문인화가이다. 그는 비록 연경을 한 번밖에 가지 않았으나, 그의 벗과 제자들을 통해 많은 청조의 문사들과 교류하였다. 후지츠가 기증 추사 자료 중 〈목국도(墨菊圖)〉의 작가인 유식(劉奭)은 김정희와 교류한 청나라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자는 백린(伯鄰, 柏鄰)이고 호는 일석산방(一石山房)이며, 인경에 뛰어났다. 신재식(申在植, 1819~?) 및 김정희의 아우 김명희(金命喜, 1788~1857)가 아버지 김도경을 따라 인경에 갔을 때 교류하기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그들과 서신 왕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1829년에 유식은 김정희에게 자신의 목적을 진하였다. 한껏 예의를 갖추어 보낸 〈국화〉는 비록 잘 보존되지 않아 화면이 깨져있지 못하지만 소달스러운 국화는 문기(文氣)를 한껏 머금고 있다. 국화를 절치하여 병에 꽂고, 또 병 아래에 국화를 놓았는데, 당시 조선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구상법이다. 아마도 김정희는 이 작품에서 색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동생 김명희를 통해 알게 된 추사는 유식과 편지 왕래도 있었을 법한데, 아직까지는 그 자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작품을 통해 교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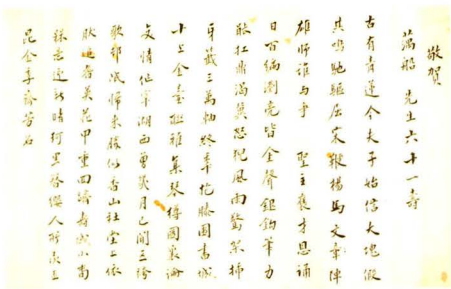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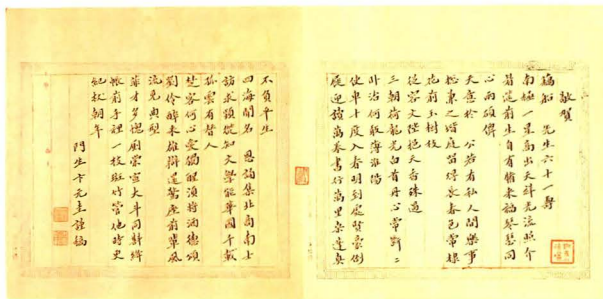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네 점의 회화는 역사상 가장 빈번하면서도 심도 있는 회화 교류를 벌여 간 북학파와 청나라 문인들 간의 묵연(墨緣)의 정황을 조금이나마 폭넓게 알려주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우리는 이 회화 작품들을 통해 19세기 대청 회화 교류를 한층 더 넓게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33 이상직
신가질의
『축영대근(祝英臺近)』

면대 비장 31.5×24cm

추사의 제자이며 청대의 학자들과 가장 활발한 교류를 펼친 이상직(李尙直, 1803~1865)의 작품으로, 송나라 신가질(辛棄疾)의 사(詞) 『축영대근(祝英臺近)』을 쓴 것이다. 글 끝의 기조(機軸)는 그의 또 다른 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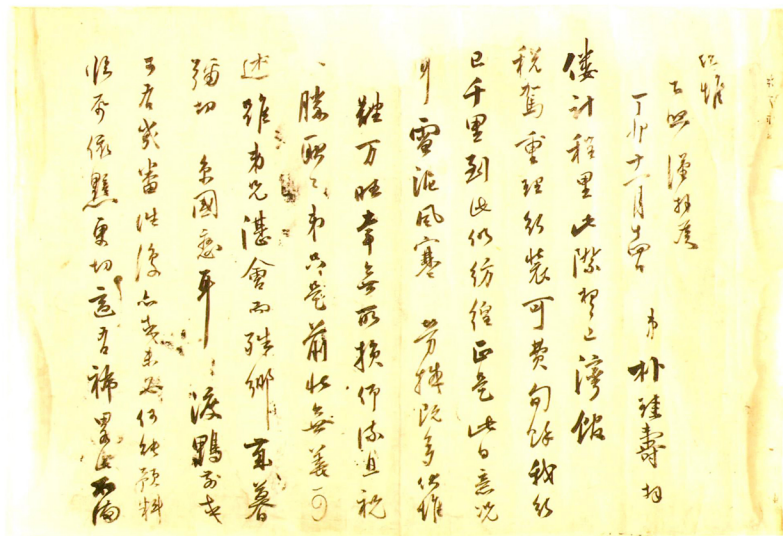
34 변원규 축시

1963년 29×4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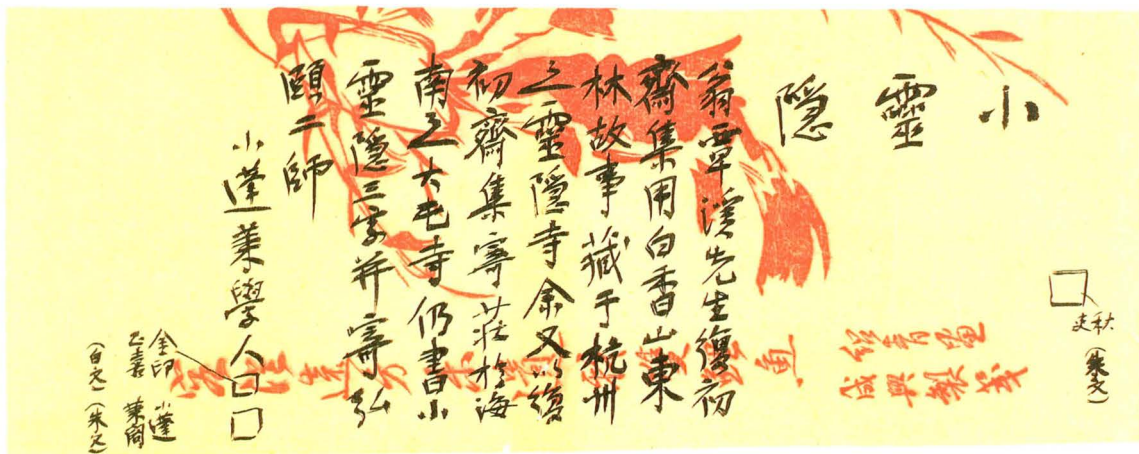
35 변원규 축시

24×49cm

이상직의 제자이며 조선말기 한역관(漢譯官) 등의 임무를 맡아 청과의 주요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변원규(下元圭, ?~?)의 작품이다. 이상직의 수업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34는 칠언장편(七言長篇)이고 이 작품은 칠언절구 7번이다.



언암 박지원의 손자로, 조선말기 실학적 학문의 바탕 위에 개화와 개국을 주장했던 박규수(朴珥壽, 1807~1877)의 작품이다. 수신자는 알 수 없으나 압록강 등 국경을 오가는 시행(使行)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37 이한복 소영은(小靈隱)

1930년 8.5x22.5cm

근대 한국인으로서 추사를 가장 깊이 존송했던 이한복(李漢福, 1897~1940)이 임모에서 후지츠카에게 보낸 쪽지이다. 내용은 추사가 해남 대흥사 이암(悅峯) 스님의 제자인 기어 자옹(騎魚慈弘)과 수옹 색상(袖相) 두 스님에게 보낸 것으로, 음방당(陰芳堂)이 자신의 문집 『목초재집(牧初齋集)』

을 왕주의 영은사(靈隱寺)에 소장해 한 예를 따라 자신도 그 『목초재집』을 대문사에 소장해 하여 '소영은(小靈隱)'이란 세 글자를 홍·색 두 스님에게 써 준다는 것이다. 추사의 원래 글씨는 현판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30대 시절 음방당체의 전형을 보여준다.

詩佛誰將瘦鳥參 海東迢遞接天
南鶴城近日傳新句 我與梅花共一籠
山泉進士來書 謂以梅花一籠供參 許詩因成絕句奉
贈 予諸正之 道光四年孟春 蘭雪 吳嵩梁

38 오승람
칠언시

1824년 107×30cm

용병강의 문인인 오승람(吳承梁, 1766~1834)이 추사의
동배 아우 김명희에게 보낸 작품이다. '매화'와 관련하여
추사 일기와 남다른 인연을 맺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
이다.

詩佛誰將瘦鳥參 海東迢遞接天 鶴城近日
傳新句 我與梅花共一籠
山泉進士來書 謂以梅花一籠 供吾新詩 因成
絕句奉貽 即請正之
道光 四年 孟春 蘭雪 吳嵩梁

시불(詩佛:主維)이 도삼(鳥參:寶島·峯參)을 따라가
게 하려는가?

해동은 저 멀리서 하늘 남쪽과 잇닿았구나.

근래에 학성(鶴城)에서 새로운 시를 전하였으니.

나와 매화가 감실을 함께함이라.

산천(山泉) 진사에서 보낸 편지에서, '매화 감실(梅
籠)을 만들어 나의 새로 지은 시를 공양한다.'고 해
절구(絶句)를 지어 올리니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주시
기 바랍니다.

도광 4년(1824) 초봄에 난설(蘭雪) 오승람(吳承梁)



40 이장욱
김선신에게

번대 미상 30×79cm

일본과 중국의 사행에서 서기(書記)로 활동하며 남다른 문재를 떨친 창산(靑山) 김선신(金善愼)에게 이장욱이 보낸 오언율시 2수이다. 간결한 그리움의 내용이 담겨 있다.



41 상중
김명화에게

번대 미상 28×84cm

상중(申中·미상)이 김명화에게 보낸 칠언절구 5수이다. 일찍이 연강에서 조강(曹江)이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龍山(龍山) 백로정(白鶴亭)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한 무친 김노경의 유택(遺澤)이 아직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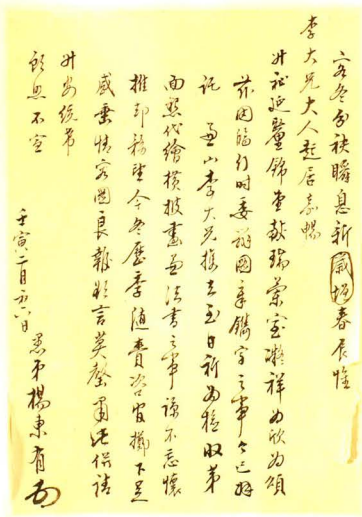
42

양동유 이상적에게

1842년 25×17cm

우선 이상적과 청나라 지인들과의 교류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양동유(楊東有)가 김명희에게 보낸 편지이다. 김병의 '보령창국(寶寧張局)'이란 도장이 흥미를 끄는데, 양쪽에서 오가는 물건들이 바로 이곳의 주인인 양동유를 매개로 전달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진다.

부락한 도장을 겸산(兼山-이상)에게 보내니 받아보라는 것과 그림과 글씨를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임인년(1842) 2월 6일에 쓴 것이다.



李惠吉先生文啓

周才白拜識

43

주당
이상직에게

1853년 25×30cm

창나라 후기 바위그림에 특히 뛰어났던 주당(周堂, 1806~1876)이 무선 이상직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상직이 자신의 문집 『문송당집(文送堂集)』을 보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뜻으로 함언유시 2수를 지어 보낸다는 내용이다. 계축년(1853) 입추 전날 보낸 것이다.

惠吉先生閣下 春間 令弟投以恩函 當大稿 藉淪
驛垣 大作 不移 推倒一時 莫名欣幸 嗣以 仗駕 匆匆 未及
投報 而 渭想 忱 每因 開卷 爲之一 慰 茲以 消息 往來
錄 訪 蘇堂先生 覽 正 凡 序 甚 親 自 必 隨時
檢 笑 矣 唯 此 中 習 熟 情 不自 禁 因 贈 言 二 律 專 呈
指 教 餘 者 概 冗 錄 錄 屏 上 以 作 春 間 之 答 何 必
旅 館 處 秋 宜 多 佳 緣 不 贅 詞 也
自古 父 子 信 老 成 幾 番 星 使 到 燕 城 今 喜 喜 談
連 年 稿
尊 主 方 知 特 識 名 賦 擅 巴 姑 鍾 瑞 藉 人 如 刺 玉 璫
想 晶 瑩 只 慚 報 李 無 長 物 一幅 詩 箋 送 客 程
結 盡 人 間 驛 翰 墨 緣 難 林 夢 價 重 此 燕 九 莖 芝
草 分 萊 嶼 十 文 蓮 花 想 藕 船 有 分 青 雲 微 際 遇
無 情 白 髮 嘆 拘 牽 玉 成 大 器 終 非 晚 莫 向 秋 風 枉
自 憐

癸丑立秋前一日蘭亭西客愚弟周棠拜書



尊老爺名

通草

文翰欽佩五牛又蒙

惠賜多珠標領之下 實甚報顏如

閣下

梓梓相旋未能上

唐教心甚秋、伏後又卜期極京每

為把鞭年 國辛初三四日印

白毫取格尋雕鐫不復可如

願在望之

原望謹領鳴中謝悃悃之

西四不心望

唐寅二月廿五日 竹溪金恒於

藕船先生閣下

44

여원
이상적에게

1830년 28×29cm

창-과라의 여원(余元)이 이상적에게 보낸 편지이다. 연경에 도착하면 다시 뵈겠다는 것과 도장을 새겨서 보내드리겠다는 내용이다. 경인년(1830) 2월 15일에 쓴 것이다.

錢秋研正堂 溧水夫諸家詩 默齋
 胡謫思 學士 家藏 宋 張蘭 折翼
 南 張蘭 折翼 南 張蘭 折翼
 歎事及山泉 歎事及山泉 歎事及山泉
 扁額由陳公寄 扁額由陳公寄 扁額由陳公寄
 威又陽而生將軍 威又陽而生將軍 威又陽而生將軍
 黃山將軍 黃山將軍 黃山將軍
 文 鄭其父 鄭其父 鄭其父
 轉居 轉居 轉居
 鄭林翰 鄭林翰 鄭林翰
 韓懷 韓懷 韓懷
 寄 寄 寄
 黃卿 黃卿 黃卿
 諸公 諸公 諸公
 生 生 生
 教事 教事 教事
 聖 聖 聖
 新 新 新
 吟 吟 吟
 有 有 有
 教事 教事 教事
 千里 千里 千里
 此 此 此
 知 知 知
 孝 孝 孝
 所 所 所
 轉 轉 轉
 天 天 天
 未 未 未
 執 執 執

『해외묵연(海外墨緣)』의 저자이기도 한 왕희순(王喜純, 1786~1847)이 추사에게 보낸 장문의 간찰이다. 1839년에 쓴 이 간찰은 강경학단(江京學壇·강소성과 절강성의 학계의 명사들을 소개하고 산인과 추사에게 글씨를 요청한

다는 내용 등 조선과 청의 교류와 관련된 이야기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있다. 추사가 청대 학계에 비대한 관심을 보인 점과 추사에 대한 청대 학자들의 진지한 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慈孫奉書

新史侍郎執事 昨由朴尚書

寄上寸楮想已逕到茲惟

起居禮吉文字平安妥為領

禪服已後三年礼畢人事可

通似先儒林校 文宗閣四年

書於金山精舍樓下其地雙橋

插重列嶂蔽日汲引清泉

有亭焉鎮江北顧因山下實前

諸院生徒陳收夫維誌弟子江能

祀先儒林於亭柱柳亭前梓公

一畦亭前山上舊有杜松樹

亭前有玉蘭樓下有牡丹山有

松老之屬李月波王三波

黃若谷諸公劉孟容王年生

吳照軒汪北舟楊孝子

各持嘉樹良相公題高曰述德誥

李中書公令署頌云仰之駑高伊

墨卿太守故人吳清隱

書額以垂身千古其信王念生

伊力所吳清隱古詩三波張詠

有詞朱蘭波官棧

教事與山泉雜書卷書斯額寄

戶部陳頌南

先生之族

岫息心寺里區、曷其多極又浙江西湖

諸儒精舍之史與司亡祀先儒林

祭列祀典先石便惜極快而快況

許鄭以下列祀西人惟某山舟先生

家渠庄即西湖葛林園之渠初

為先儒林撤思之地詳誌于集



46

옹수곤

대련(일부)

연대 미상 90×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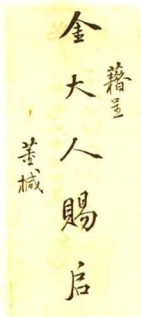
옹방강의 여섯째 아들이며 통감인 추사와 깊은 친교를 맺었던 옹수곤(翁水坤, 1786~1815)이 정벽(貞璧, 柳龍寬)에게 보낸 대련 작품이다. 추사보다 두 살 어린 유정벽은 추사와 연경에 동행했다. 작품은 아쉽게도 한 짝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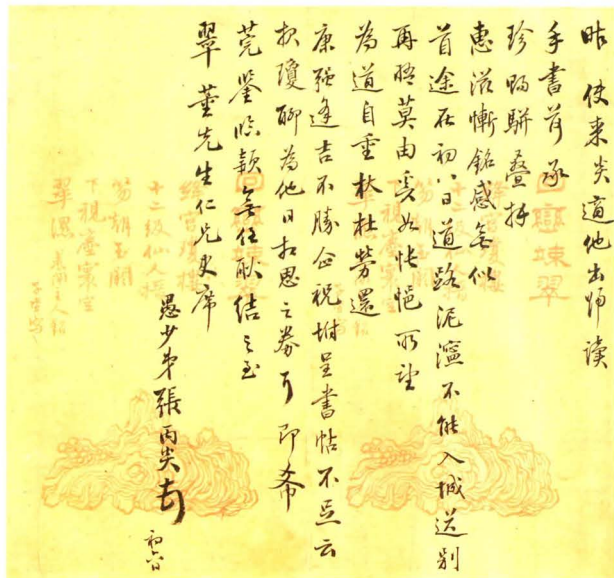
47

동문환
김취동에게

한자 미장 78.5×93cm

『한객시존(韓客詩存)』의 저자 동문환(董文煥, 1833~1877)이 연경의 옥하관(玉河館)에 머물고 있는 김취동(金 취동)에게 보낸 명함 쪽지에 덧붙인 글이다. 환경(恒寧) 박규수(朴圭壽)에게 보낸 편지와 옥감(玉監)을 귀국하면 전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있다. 29일 진시(오전 7~9시)에 쓴다라는 언급이 있다.





48

장병염
김취등에게

면적 66cm 14.5×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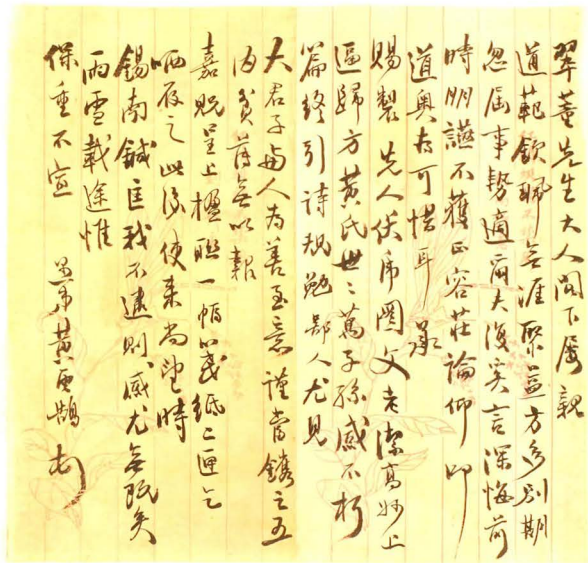
함종 9년(1859) 진사에 급제하고 광동염주 지부(廣東廉州知府)를 역임한 장병염(張丙炎)이 김취등(金翠童)에게 보낸 편지이다. 송별을 하지 못한 아쉬움과 서침(書帖)을 보내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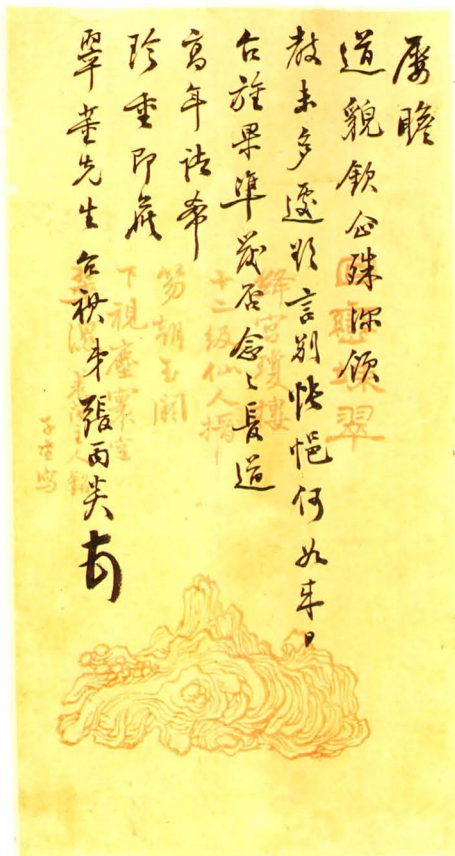
49

황운곡
김취동에게

면종 위정 23x24cm

창말의 시인이자 화가로 「사죽석담조선이석 파종난(寫竹石苔朝鮮李石坡贈蘭)」을 남기기도 한 황운곡(黃雲谷)이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이다. 자신의 선인이 그린 〈목호도(伏虎圖)〉에 대해 글을 지어준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주련 1쪽과 잔지(殘紙) 2장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50

장병엄
김취동에게

면대 비일 23×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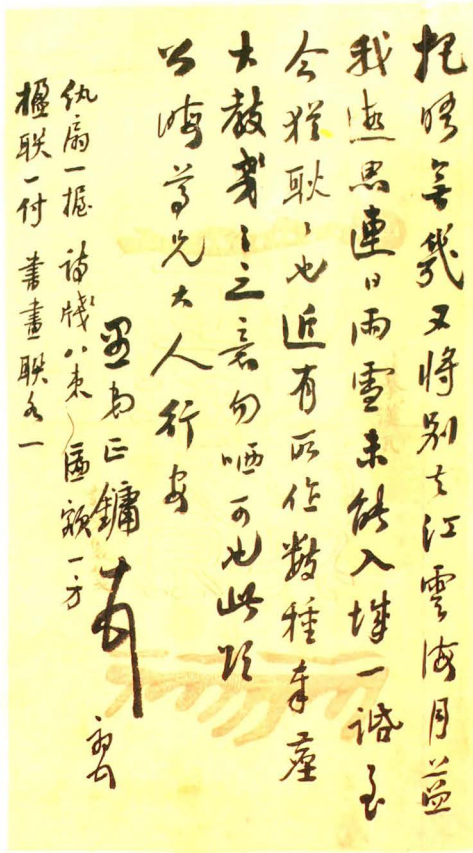
장병엄이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이다. 귀국길
의 인부를 전하는 내용이다.

51

정몽
김익문에게

면대 비장 23×13cm

창-과 사람으로 보이는 정몽(正蒙)이 공희(公希, 金益文, 1806~?)에게 보낸 편지이다. 전별의 뜻으로 환신(獻身) 한 자루, 시전지(詩箋紙) 여덟 묶음, 편액(匾額) 한 건, 주련(柱聯) 한 말, 글씨와 그림 각 한 폭씩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行期在即未獲識

韓欽愴辰惟

起居增錫為以茲送上聲調圖說俠君詩抄

各一部聊作縑紵之贈也

芟納是幸附寄朴樾卿信件并

東歸後轉交幸勿延周為禱此請

行此誌惟

心照不備 愚弟董文漢



52

동문환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12cm

김취동에게 보낸 동문환의 편지이다. 귀국
인사와 함께 『성조도설(聲調圖說)』과 『함군
시초(峽君詩抄)』를 보내고 박규수(朴堧壽)
에게 전할 편지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53

만청려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5×12cm

박규수, 오경석 등과도 친분이 있던 만청려(萬靑嚮)가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이다. 두 번의 만남에서 많은 기쁘침을 받았다는 것과 귀국길의 안녕을 빌며 부탁한 글씨 대련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兩番把酒獲
益良多前承
枉顧甚為輜輳昨在
午門以禮風雪大寒具以所念居惟
客館勞福呈頌紫
東多儀實深悚悵委書在聯
隨時愛幸不罄
翠臺大以人執筆
萬青嚮再拜

翠翁尊元之間下頃蒙

惠札萬頌

多珍殷々玉誼感存處似辰惟

行祇增編為慰早間曾達

小信

至云寄朴元

相卿信件未審已達

左右否念々此後即正

報安不宣 愚弟董文溪

廿九日午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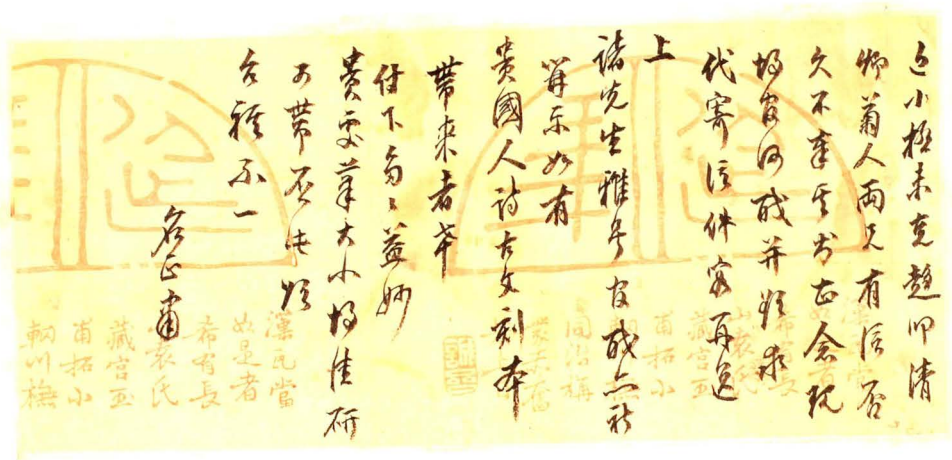
54

동문환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12cm

동문환이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이다. 진귀한 물건을 보내주어 고맙다는 뜻과 함께 박규수(朴珪壽)에게 전할 편지를 심부름꾼을 통해 보냈는데 받아보았느냐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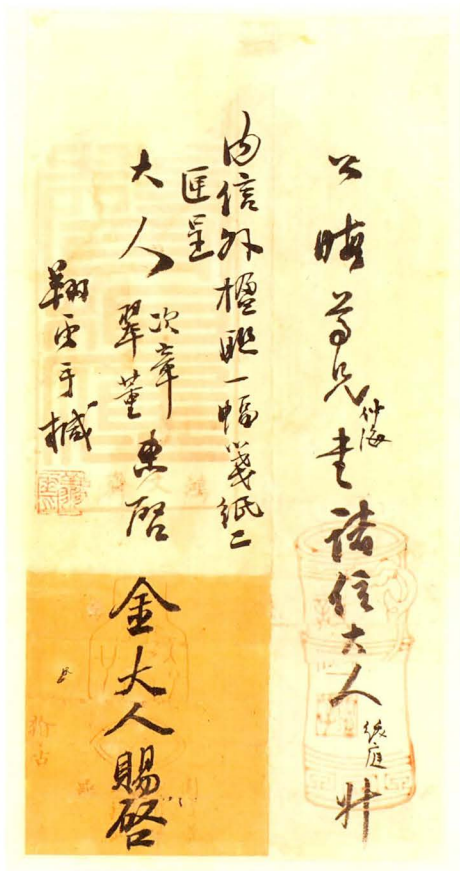


55

명정숙 편지

현대 미술품 11×25cm

명정숙(名正淑)이 쓴 이 편지는 수신자를 알 수 없다. 청경(淸卿-이상)과 역관 국인(菊人, 李亨鼎, 1818~?)이 보내온 편지가 있는 지와, 조선의 서문집 및 고면(古硯)을 가지고 왔으면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56

황운곡
김익문과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 겹봉

49의 겹봉으로 추정됨

연대 미상 23×12cm

황운곡이 공취(公 취, 호 松文, 1806~?)와 김취동 등에게 보낸 편지 봉투이다. 주련 1 폭, 전지(箋紙) 2장을 보낸다는 내용이 글 사이에 써여 있다.

57

장병엄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 겉봉

48의 봉투로 추정됨

면대 치장 23×12cm

오교(午橋, 張西炎)가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 겉봉이다. 서첩 2종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다.



桃李之類乃骨

護魂之報永以為好語乎

泰和官

使節東歸不友趨送四顧為勞惟

長途珍重居祝告燕盜客身同蒙

居物時陳何憫各有千秋晒納為手後上

公臨樞府尊光閣下後錄弟表弟恒長

58

원보항

김익문에게

연대 미상 23×12cm

소오(蘇塢) 원보항(袁保恒, 1826~1878)
이 김익문(金益文)에게 보낸 편지이다. 초 4
일 귀국하는 길에 편안하기를 빈다는 뜻
과, 동박주신 설의에 대한 표시로 영지(令
意)라는 사람과 자기 아우가 몇 가지를 보내
드린다는 내용이다.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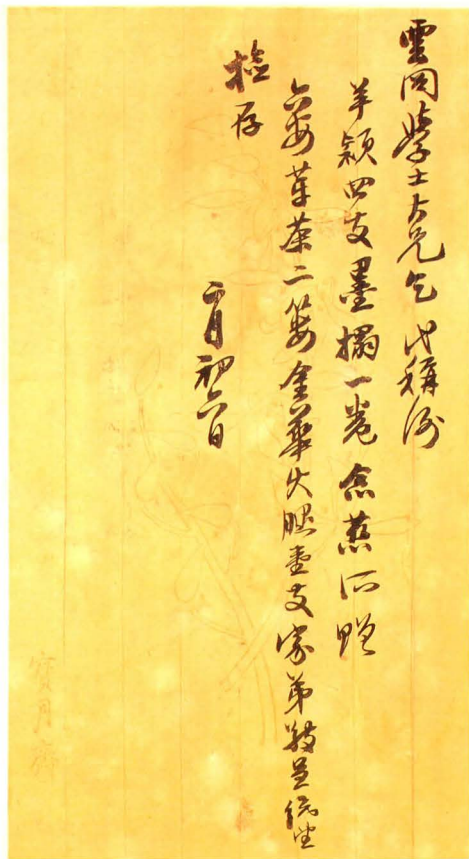
원보항

운강에게 보낸 쪽지

58의 추신으로 보임

한대 화첩, 23×12cm

원보항이 운강(雲岡)에게 대신 전해달라며 보낸 작은 쪽지이다. 양고기 네 가마, 탁본 한 권은 염자(念慈, 미상)가 준 것이고 육안이다(六安芽茶, 차의 일종), 금화 화퇴(金華火腿, 소금에 절인 돼지 뒷다리의 일종)는 동생이 보낸 것이라는 내용이다. 2월 6일에 쓴 것이다.



把禮方新相識如舊快談竟日樂如何
如頃後載奉

臨筆謹承

高公多儀祇領敢頌允深第以俗冗筆數
尚遲荅拜其日早間擬至館中趨叩并稍

里筆札更承

指空也謹此後謝并問

祁祺不具

五月廿一日弟張栻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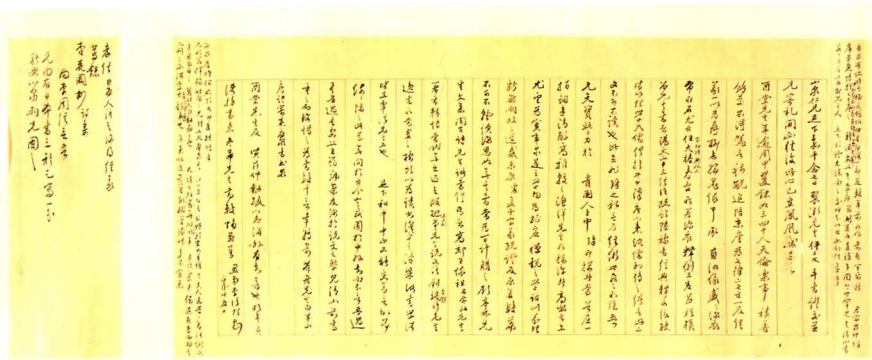
柳西尊允先生 誌

60

장목 유서에게

현대 위상 22×21cm

〈세한도〉에 제(題)를 쓴 16인 가운데 한 사람인 장목(張穆)이 유서(柳西)에게 보낸 편지이다. 좋은 글과 귀한 신물을 보내주어 고맙다는 말과 26일 아침에 옥하관(玉河館)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5월 21일 쓴 것이다.



61

이장욱

김명희에게

연호: 미상 25×55cm

추사와 서신 왕래를 통해 도의(道義)의 친교를 맺은 이장욱(李璋旭)이 김명희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이다. 김노경의 회갑연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경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주요 저서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거론되고 있다.

63

유식

국화도

1829년, 82×38cm

소담스러운 국화의 모습은 문기를 한껏 머금고 있다. 국화를 꺾어 병에 꽂고, 또 병 아래에 국화를 놓았는데, 이런 배치는 당시 조선 회화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구성법이다. 인장에 뛰어났던 유식(劉執)은 김명희를 통해 김정희와 교류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1829년에 김정희에게 보낸 작품이다.





64

공현이 칠언절구 3수

연대 미상 17×51cm

공자의 72대 손인 공현이(孔憲祥, ?~1863)가 구작(舊作) 칠언절구 3수를 쓴 신면(新面) 작품이다. 글 끝에 "우옹(維雍, 李維雍)과 우희(友喜, 吳喜)가 장 깊은데 이 글을 읽으면 깊은 감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65

이장욱

「노상신공묘후비」(일부)

1827년 17.5×46.5cm

이장욱(李璋煜)이 한(漢)나라 「노상신공묘후비」(魯相褒孔廟後碑)의 일부를 절록하여 쓴 신면 작품이다. 『정해년』(1827) 사등일(試燈日: 1월 14일)에 신무문(宣武門) 밖 무가에서 썼다. 라고 하였다.



66

구용

금조상사인

연대 미상 15×50cm

청나라의 위진(蒯因) 구옹(裘翁)이 정유(貞
養) 박제가(朴齊家)에게 써준 선면 작품이
다. 『금조상사인(琴調相思引)』을 청화월(淸
和月, 4월)에 정유(貞養) 사장(詞丈)께 써
드린다.”라고 되어 있다. 조인영의 손자 조
성하(趙成夏)의 ‘소하심정(小荷審正)’ 인이
있다.



67

장도욱

오언율시 2수

면대 45cm 16×28.5cm

장문도(張門陶, 1764~1814)와 동시대를
산 수옥도인(水屋道人) 장도욱(張道旭)이
쓴 신면 작품이다. 제목을 알 수 없는 오언율
시 2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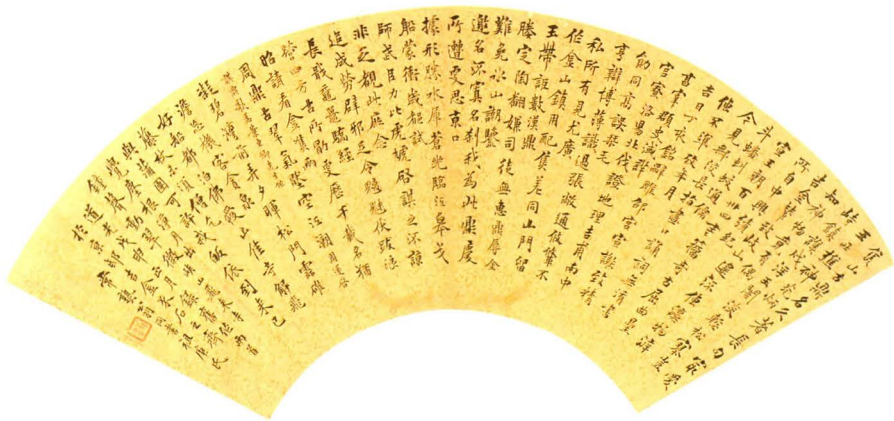
68

하추도

제(題) 조선겸재산수도

연대 미상 18×54cm

창대의 학자로 특히 상형문자 연구의 권위자 인 하추도(何秋濤, 1824~1862)가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 1831~1879)에게 써준 선면 작품이다. '무오년(1858) 1월에 반백인(潘伯寅)을 위해 지은 『제(題) 조선겸재산수도(朝鮮謙齋山水圖)』 1수를 역매 대항에게 써서 드린다.'라는 글이 뒤에 덧붙여져 있다.



69

옹동서

구작(舊作) 2수

1848년 17.5×52cm

창-리의 학자 옹동서(翁同書, 1810~1865)
가 쓴 선면 글씨이다. '무산년(1848) 1월에
구작(舊作) 2수를 쓰다.'라고 되어 있다.



70

이당과 여원 「모우심국서」(일부), 「어웅」

면대 미상 17×38.5cm

청나라의 문인 이당(理堂, 미상)과 여원(여원, 미상)이 혜풍(惠風) 유득공(柳得恭)을 위해 쓴 선면 글씨이다. 검은 종이 바탕에 금문으로 썼다. 앞의 글은 당나라 낙반왕(赫賓王)의 「모우심국서(冒雨尋菊序)」를 절록(節錄)한 것이고, 뒤의 글은 당 유충원(柳宗元)의 「어웅(魚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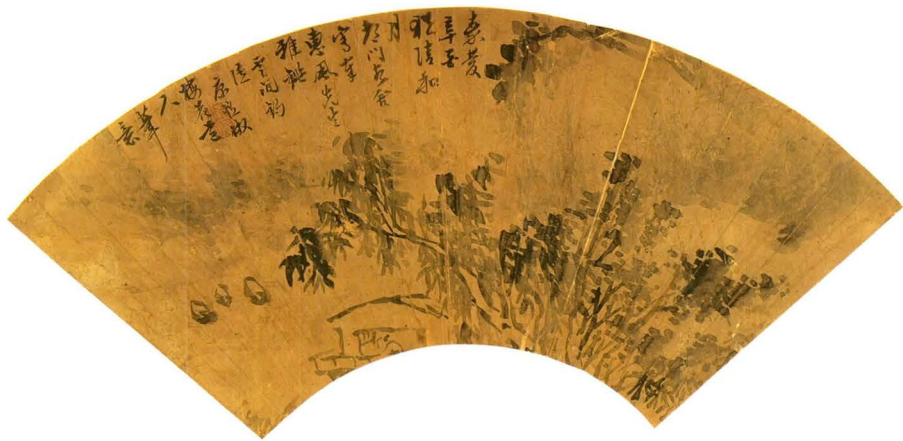


71

일정 산수도

絹에 피실 15×50cm

언덕에는 빈 정자와 몇 그루의 나무가 있고 멀리 산이 있으며, 그 외에는 수면으로 처리되었다. 이런 구도와 아울러 까칠한 필치는 원대 예찬(倪瓚)의 화풍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일정(逸興)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제발 내용으로 볼 때, 유독공이 드나들던 서점인 휘명당 주인 최기(崔琦)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최기가 유독공에게 보내려고 그린 것이 아닐까 한다.



72

강개 산수도

1801년 17×45cm

제법에는 완-리의 오진(吳鎭)을 본받아 그렸다고 되어 있지만 그림의 화풍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이 그림은 당시 문인들이 즐겨 그리던 누각산수도류로, 담묵을 이용해 강호의 평온한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부채의 뒷면에는 유득공에게 보내는 조강의 글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조강과 강개(康愷)가 글과 그림으로 합작하여 유득공에게 선물한 것이다.



73

조경 오언절구 외

연대 미상 17×45cm

창·라의 학자 옥수(玉水) 조경(曹景)이 해동 유독공에게 보낸 신면 글씨이다. 유독공을 한 해 뒤에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오언절구와 자신의 서재에서 만나 반 개월 남짓 글을 논했다는 이야기, 귀국에 앞서 이별의 정으로 이 글을 쓴다는 내용 등이 앞부분에 작은 글씨로 써여 있고, 뒷부분에 약간 큰 글씨로 『문심조룡(文心雕龍)』 「표제第十九」의 전(前)을 필록하였다. 후지초카 치카시는 가경(嘉慶) 6년(1801) 복경 정양문(正陽門) 밖 문간회관(雲間會館)에서 조경이 박제(朴齊)와 유독공을 만났다고 하였다.



74

육경훈

산수도

1798년 15×44cm

연한 묵과 담담한 필치로 산과 모옥 등이 차분히 묘사된 작품으로, 유득공은 "섬세하고 연미하다"라며 긴명하면서도 적절하게 평화였다. 이 작품은 원래 육경훈(陸敬勳, 號 藤菴)이 1798년에 외숙인 조강에게 그려준 것인데, 1801년 조강이 유득공과 육경훈의 교유를 기념하고자 이 그림을 유득공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



75

전동원

서악화산모비(일부)

현대 피상 36×47.5cm

창대의 학자로 경학과 금석학에 밝고 저서 『근유당문집(勤有堂文集)』을 남긴 전동원(錢東原, ?~1824)이 양재(冷齋) 유독공에 게 써준 신면 글씨이다. 내용은 「서악화산모비(西嶽華山廟碑)」를 절록한 것이다.



76

원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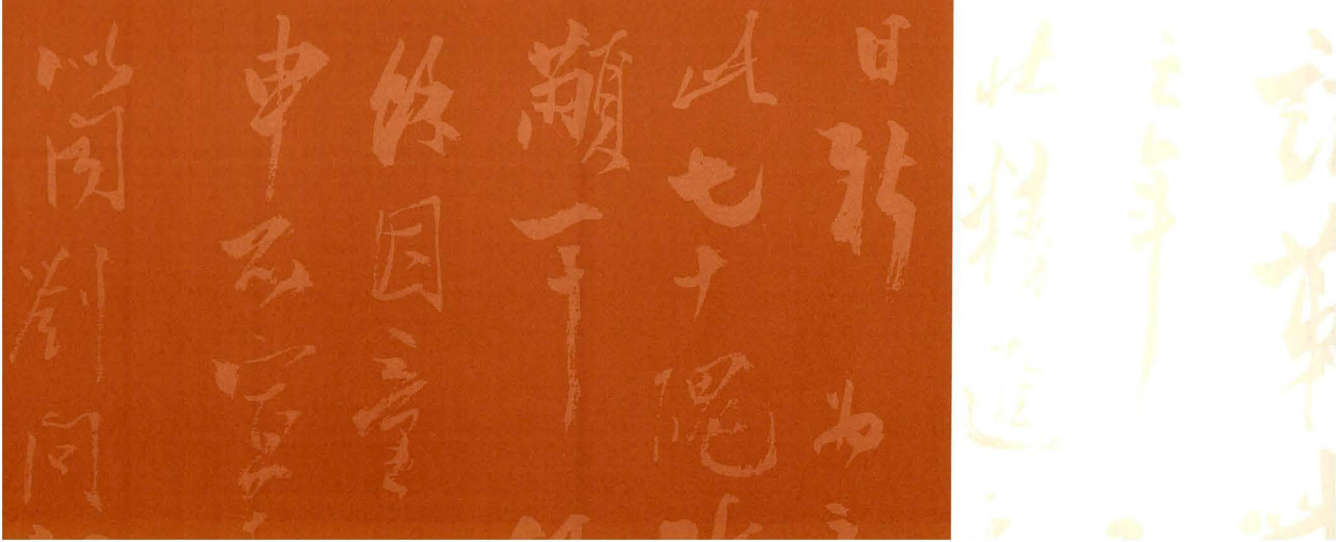
중장통의 「낙지론」(일부)

원대 미상 15.5×48cm

참-나라의 왕조가(王肇嘉·字 右申, 號 萍溪, 王絳의 아들)가 조감에게 써준 선면 글씨이며, 조감이 유독궁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한(後漢)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志論)」을 절록하였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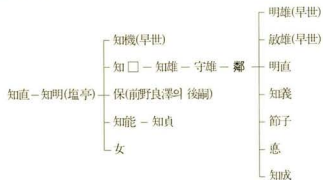
후지츠카
관련 자료 및
추사 연구 자료



후지츠카 치카시의 삶과 학문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邸, 1879~1948)의 원래 성은 사사키(佐々木)이며, 부친은 跡太郎, 모친은 나호코이다. 본적은 미야기(宮城) 현 시오가마 시(塩竈市) 宇山寺 131이고, 만년의 주소는 도쿄도 테리마(徳馬)구 미나미초 2-3656이었다. 호는 素軒, 당호를 望満廬이라 하였는데, 이 당호는 '복한산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이하 '후지츠카'라 하고,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아카나오의 이름은 그대로 적는다.)

후지츠카는 14세 때인 1892년부터 미야기 현 미야기 군 시오가마초 宇山寺의 후지츠카 본가에 가서 거처하다가 19세 때인 1897년 9월에 정식으로 입적(入籍)하여 이 집안의 후사가 되었다. 후지츠카 집안은 대대로 오오슈(奥州) 시오가마(塩釜) 신사의 신관(神官)인데, 에도시대 초기에 후지츠카로 성을 바꾸었다. 에도시대에 知直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그의 아들 知明에 이르러 크게 번창하였다. 知明의 자는 子章, 통칭은 式部, 호는 龜亭이다. 신관(神官)도 도서에 정통하여 넓고 정밀한 식견이 널리 알려졌다. 또 외국에도 관심을 두어 서양의 문물을 적극 수입하며 동서 문화의 융합을 도모하였다. 『해국병담(海國兵談)』의 저자 일자평(林子平, 1738~1793)을 비롯한 천하의 병사들과 교류하였고, 10만 권 장서의 名山文庫를 창립하여 문교(文教)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그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후지츠카가 이름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용모를 단정히 하며 존송한 두분의 스승이 있다. 바로 호시노 호오코오(星野豊城, 1858~1936)와 핫토리 우노키치(肥前守之吉, 1867~1939)이다.

호시노는 이름이 恒, 호는 豊城이다. 79세로 작고하기 전까지 도쿄대 문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후지츠카는 1907년을 전후하여 이 대학에 재학 중 그의 학문을 입었다. 호시노는 시오노야 토오인(塩谷豊隆, 이름은 世弘, 1809~1867)의 고족 제자이다. 시오노야는 야스이 쇼겐(安井息軒, 1799~1876)과 함께 마쓰자키 고오도오(松崎堂堂, 1771~1844)의 학통을 이었다(松崎鎌堂—塩谷豊隆—星野豊城—藤塚邸). 마쓰자키는 『鎌堂日牒』의 저자로, 1811년 조선통신사 일행을 대마도에서 맞아 김이교(金履島)·김선신(金善臣) 등과 많은 문답을 주고받아 조선파도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후지츠카는 『황청경례』의 연구와 이용에 대하여 호시노 선생께 충분히 배워 칭조 고종학과 경서의 문헌학적 연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핫토리는 중국철학을 전공했으며, 도쿄대학 재학시절의 은사이다. 후지츠카에게 현대적인 학문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고 이 대학 총장이 되면서 후지츠카에게 교수직을 마련해준 인물이다. 후지츠카가 한국에서 15년간 연구하게 된 것은 핫토리의 은혜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동양사상 전공의 시오노야 倉谷滋通, 1878~1962, 호는 節山. 塩谷豊隆의 손자)와 중국철학 전공의 우노 테츠도(宇野哲人, 1875~1974)도 깊은 학문을 입은 스승들이다.

후지츠카의 학문은 가토오 조오겐(加藤常賢)과 우노 세이이치(宇野精一)에게 이어졌다. 가토오는 계통고등학교 시절의 수제자로, 후지츠카의 권유로 중국철학을 시작하여 히로시마대학과 도쿄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후지츠카의 사후 저서를 도맡아 간행해 주었다. 우노 세이이치는 우노 테츠도의 아들로, 후지츠카가 경성제대를 퇴임하고 도쿄에 돌아왔을

때 동방문화학원에서 만나 사사했다. 그는 도쿄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후지츠카는 제8고등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43세 때인 1921년 문부성으로부터 경학(經學) 연구를 위해 중국 유학을 허가 받아 북경으로 떠났다. 10월에 출발하여 다음해 5월 7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체류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후지츠카는 유리창(琉璃廠), 용복사(隆福寺) 거리의 서점가를 수백 차례 드나들며 많은 한적을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인 진전(陳鵬)이 박재가의 문집에 쓴 서문(『直隸藏書錄』)을 발견하여 호기심이 일었는데, 이것이 후지츠카가 평생토록 청나라와 조선의 문화 교류에 대해 연구하게 된 시발점이다.

중국에서 귀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토리 선생이 경성제국대학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함께 재직할 것을 권하여 후지츠카는 숙고 끝에 받아들였다. 이후 박재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진척되면서 박재가가 단지 일개 문인이 아니라 청조의 학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박학다재한 인재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박재가의 스승이 박지원이고 그의 제자가 바로 김정희임을 알게 되자, 이를 계기로 조선이 서·명의 그늘 아래서 독창적인 면모가 없으리라는 선입견이 무참히 깨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후지츠카의 본래 전공은 '논어'이며, 그는 고증학의 입장에서 '논어'를 재해석하려고 했다. 현재 남은 한적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간행된 '논어' 주석은 물론 일본에서 출판된 '논어' 주석까지 망라하여 종류와 수가 가장 많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도 '논어'로 쓰려고 하였으나, 스승인 우노 데즈코가 청과 조선의 학문 교류 양상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 권하였다. 결국 청조 문화가 조선에 전래된 양상을 고증학자의 입장에서 논한 논문을 쓰게 되었고, 이후로도 이 연구에 평생을 전력하였다.

후지츠카는 일본에 귀국하여 1936년 4월 30일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논문 제목은 '李朝에 있어서 清朝 文化의 移入과 金院堂'이다. 논문 심사

는 중국철학 전공의 우노 데즈코가 주심, 중국문학 전공의 시오노야 온과 동양사(한국사) 전공의 内西 두 교수가 담당하였다. 후에 이 논문은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에 의해 『清朝文化 東傳의 研究』(國書刊行會, 1975)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평에 따르면, "요컨대 본 논문은 청조 학술에 조예가 깊은 지자가 오로지 조선의 금석학자로만 알려진 김원당이 실은 청조 학술의 정수에 걸맞은 경학의 대가임을 논정하여, 이조 오백 년 문화사상 종래 알려지지 않았던 방면을 천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후지츠카의 연구 방향은 청조의 학문이 조선과 일본에 전래된 양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흔히 한국학자로 불리는 것을 극력 거부하고 오로지 청조 경학에 바탕을 둔 고증학자로 평가되길 원하였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청조 학문의 조선 유입 양상과 김정희와 청조 학인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후지츠카의 연구가 기록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후지츠카의 연구 성과는 자료와 고증의 측면에서 후학들이 쉽게 뛰어넘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후지츠카는 평소 '서지(書目)'로 알려진 막학하기로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한다. 중국의 유리창, 한국의 인사동을 돌며 수집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학생들이 늘 찾아와 열람하며 도서관에도 없는 자료가 많은 데 감탄하였다고 한다.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 책장사가 당시 동대문 근처의 춘신동 거택으로 책을 싸들고 찾아올 정도였으며,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 가족들이 몹시 고생하기까지 했다. 원래 후지츠카 집안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으나 차차 소진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한학 자료들이 모두 보존 상태가 좋고, 유리 원판 및 사진 자료가 많은 것으로 보아 후지츠카가 자료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들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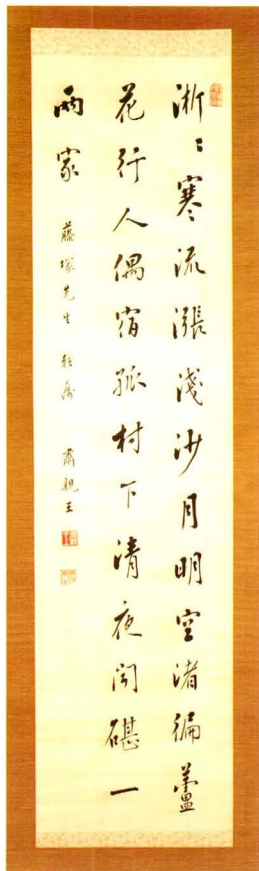
후지츠카는 일본에 귀국하여 대동문화학원에 취임하였다. 그는 이때 많은 서적들을 학원의 도서관에 갖다 놓았는데, 주로 중국 책이었으며 조

선 관련 서적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선생의 소장품이 속에 모두 불타버렸고, 평소 자택에 두고 보던 한학 자료는 무사히 화를 면하였다. 후지츠카는 물론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으나, 불에 탄 자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 구해준 것으로 위안하였다고 한다. 선생이 계속되면 서 일본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후지츠카 집안도 마찬가지여서 갈나가는 자료가부터 차례로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후지츠카는 경성제국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한국의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위당 정인보(鄭堂 鄭寅普),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 장말강 택상(張末綱 張澤相), 다산 박영철(多山 朴榮徹), 영운 김용진(穎雲 金容鎭), 해러 임상중(海林 林尚鍾), 송은 이병직(松雲 李秉直), 무호 이한복(無號 李漢福), 소전 손재형(素峯 孫在馨) 등이 확인되는데, 한국의 내로라하는 감식안들과 교류하면서 서화나 한문 자료를 함께 감상하였으며, 직접 수집하는 데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서로는 『日·鮮·清의 文化交流』(中文館書府, 1947), 『論語總說』(弘文館, 1949), 『論語의 串講』(斯文會, 1949), 『清朝文化 東傳의 研究』(國書刊行會, 1975) 등이 있다.

* 이 글은 필자가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에 1년간 유학할 당시 대동문화학원의 자료를 기증받은 과정에 동행하여 촬영한 후지츠카 아키나오와의 인터뷰 및 자료 수집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77

숙친왕

주경현의 「숙신안촌보」

면적 미상 138×35cm

청말 청 황실의 후예인 숙친왕(肅親王)이 후 지츠키 차카시에게 써준 족자 글씨이다. 내용은 담나라 시인 주경현(朱景玄)의 「숙신안촌보(宿新安村步)」이다.

浙浙寒流漲淺沙 月明空渚蘊蘆花
離人偶宿孤村下 永夜聞砧一兩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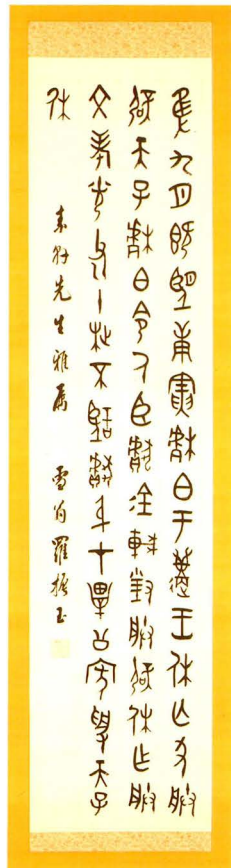
차가운 물은 얇은 모래 위를 흐르고, 밝은 달빛 텅 빈 모래톱엔 갈대꽃이 너무 러져 있다. 나그네는 외딴 마을에 묵으며 간간 밤 다듬이 소리를 듣는다.

78

나진옥 금문

면대 미상 131×37cm

20세기 전후 중국의 대표적 금석고증학자인 나진옥(羅振玉)이 후지츠카 치카시에게 써 준 족자 글씨이다. 자신이 주로 연구했던 금문(金文)을 쓴 것이다.



握地與斷木智不如機
 春聖人懷餘巧故為萬物
 宗世有斲泥手或示待郢工
 往時王黃州謀國極
 匪躬朝聞不及夕百王避其鋒
 九鼎安磐石一身
 轉孤蓬浮雲當日月白髮照秋
 空諸君發蒙身汲
 直與臣同

素軒先生正之

雪橋楊鍾義



79

양종희

황산곡의 「제왕황주묵적후
(題王黃州墨跡後)」

현대 미상 98×32cm

청말 민국시기의 학자 양종희(楊鍾義, 1865~1940)가 후지츠카 치카시에게 써준 족자 글씨이다. 내용은 송(宋) 황산곡(黃山谷)의 「제왕황주묵적후(題王黃州墨跡後)」이다. 그의 저서 「설교시화(雷機詩話)」가 후지츠카 기증 도서 목록에 들어 있다.

80

등아집

6인 대련

2인대 대련 각 128×20cm

메이징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등아집(鄭以集, 1891~?)이 후지츠카 치카시에게 써준 대련 글씨이다. 등아집은 등석여의 후손이다.

初秋蘭以成佩 裁明月而爲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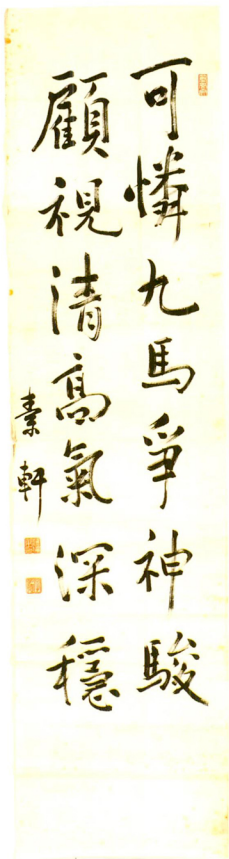
가을 난초를 엮어 허리춤 자개를 만들고
밝은 달 패어 옥을 만든다.

裁明月而爲璫

辛未年夏月 鄭以集書

初秋蘭以成佩

未軒先生 法筆



81

후지츠카 치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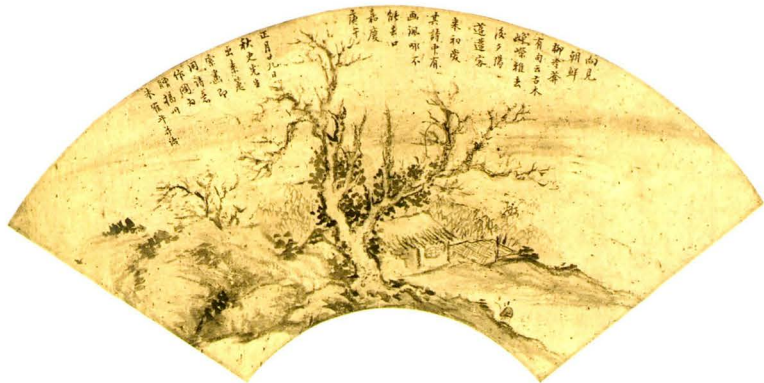
두보의 시구

연대 미상 138×34cm

소헌(素軒) 후지츠카 치카시가 두보(杜甫)의 「위종록사대관조장군패마도(韋諷錄事宅觀曹將軍霸馬圖)」 중의 2구를 쓴 것이다.

可憐九馬爭神駿 顧視清高氣深穩

아! 구마(九馬)는 신묘한 모습 뽐내어, 청고(淸高)한 기운이 그윽이 담겨 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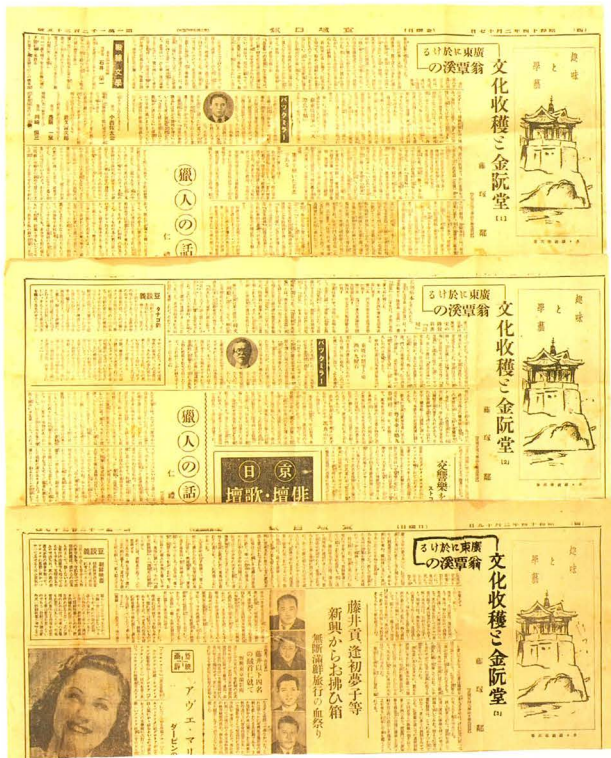
82

주학년

〈유득공시의도〉 (柳得恭詩意圖)

서지 11810년 26.5×50cm

앞쪽에 몇 그루 나무와 초가(草舍)가 있으며, 그 너머는 아무런 경물을 배치하지 않은 공간으로 남겨 놓았다. 이렇게 생략된 원경과 전경의 초가 주변은 마치 김정희의 〈세한도〉가 연상된다. 이 그림은 주학년(朱鶴年)이 김정희와의 작별을 기념하기 위해 연경(燕京)에 왔었던 유득공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신사한 것으로, 복학파와 청초 문인을 간의 한목 교유를 되새기게 한다. 현재 이 그림의 소재는 알 수 없다.



83

후지츠카 차카시가 (경성일보)에 기고한 글

1939년

후지츠카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있던 1926년부터 1940년까지 추사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신문에도 종종 이런 종류의 글을 발표하여 대중 계몽을 시도하였다. <경성일보>에 「문학수확과 김원당」이라는 제목으로 1939년 2월 17일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다.

盧老八年粵中世濟事經刻既成
 屬視審官所序未湏正予稍增刪
 之其末句云蓋見平實精詳矣智市
 此加也平實精詳一新經解一愛信
 也否則不獨為遠而相同此思客別
 不為空虛而如古求是知辨別不
 能精能博常則不能詳即以荀子者
 舉出孔門受授海經尤信詩禮
 中注者而
 而韓昌黎序而擇而名精
 詳而不詳蓋昌黎但知文而不知經
 者也易者詩而不知擇其詞詳
 為文一資而已知余叶謂精詳
 既相謂昌黎知文不知經
 不獨昌黎為然陸元朗知詩
 不知古韻信偽古文尚書以
 舜典廿八字升為怪文李斯
 以後一罪人也孔冲遠繫皇
 苗熊劍之書古今文不分南
 北學不別白通疏出而先唐兩
 漢之古義也先唐兩漢之古義
 既已七十子微言大義並垂下
 歐陽夏侯齊魯執古書單
 詞集義是杜芳古者執錄之
 即如北史及通典所載古義不可
 稍異公考之命隨刊甘泉

84

완원과 왕맹자의 〈경실합벽(經說合璧)〉

서종1 권10, 45장 59×51cm

청대 경학(經學)의 대가 완원(阮元)이 쓴 경
 학에 대한 글에 그의 제자 왕희순(王惠孫)이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썼다.



85

당인(唐寅)의 《동파입극도(東坡立履圖)》

사친 | 16세기 초 51×19cm

소식(蘇軾)을 그린 작품이다. 심의(深衣)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초림을 쓰고 나막신을 신은 모습은 원대의 조맹부(趙孟頫)이 벼루 뒤에 그렸다는 상(像)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모습이 변하는데, 이 그림처럼 두툼한 얼굴에 입수룩한 수염의 모습은 명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징이다. 이 그림은 옹방강(翁方綱)의 소장품이었으며, 비록 사진이지만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현재 소재는 알 수 없다.

86

후지츠카 치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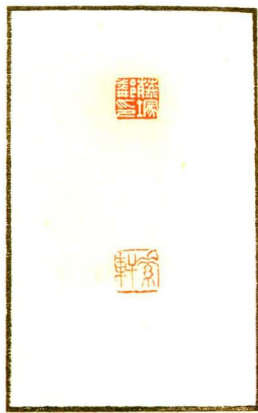
인보집

『망한려인상(望漢廬印賞)』

면대 화상 15×7.5cm

후지츠카는 서울 종로구 충신동에 살면서 북한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망한려 라는 당호를 썼다. 이 인보집은 후지츠카의 낙관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한국인의 다른 사람의 낙관도 여러 개 실려 있다.

가운데는 후지츠카의 상명인과 호인이며, 오른쪽은 당시 그와 어울렸던 당대 최고의 감작인 다섯 사람의 통심을 엿볼 수 있는 인장이다.



鄭蔭
印塚

軒素



賴雲海旅
松隱無號
素峯同時
審定之印



87

허련의 〈완당소상(阮堂小像)〉

사진 | 1877년 28×23.5cm

추사의 수제자로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소치 허련이 그린 백묘 초상으로, 추사의 백묘 초상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추사가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지난 1877년 소치 허련은 추사의 글씨를 모아 판각하여 「완당탁묵(阮堂拓墨)」이라는 제목으로 편집하여 보급한다. 이 책의 속표지에 사명을 쓴 초상이 들어 있는데, 이 초상화의 원본이 바로 이 작품이다.

「전신사조(傳神寫照)」를 중시한 본격적인 초상과 달리 정신적 지향을 신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당시 청나라에서 유

행하던, 원 안에 얼굴을 그려 넣는 방식을 따라 그린 것으로 보인다. 추사가 그토록 좋아하던 소동파의 모습에 추사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에서 추사 생전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 초상화는 영정 초상의 모본(母本)이 되는 초본으로서의 백묘본과 달리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초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원본이 전하지 않는 현재 이 사진의 발견은 원본 못지않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발견이라 할 것이다.



88

안중식의 〈완당선생 소상(小像)〉

사진 | 1909년 그림 1917년 글씨 22.5×24.5cm

조선 말기 도화서 화원으로 어진(御眞) 제작에도 자주 참여한 심전(心田) 안중식의 추사 백묘 초상이다. 1909년 추사 말기 제자로 당시까지 살아 있었던 소당 김석준(1831~1915)이 소치 허련이 그린 추사 백묘 초상을 보여주어 나름대로 그려보라고 해서 그린 것이다. 그 후 1917년에 이 그림에다 그린 연유를 제로 써서 위창 오세창에게 보내 주었다. 결국 그림은 1909년에 그리고 글씨는 1917년에 쓴 것으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소치의 그림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더하여 그린 것이라 심전 특유의 감성적이며면서도 안정된 솜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소치의 그림이 신의 느낌이 강조된 담백한 그림임에 비해 심전의 그림은 빠른 역선과 역의 자연스런 변형으로 섬세한 느낌을 준다.

추사를 마음 속 깊이 흠모하는 이가 늘어나는 데 따라 나타나는 초상화의 전승과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원본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89

〈판전〉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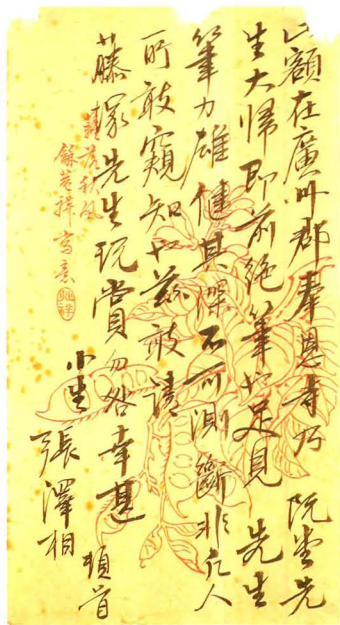
사헌 | 1985년 10×28.5cm

90

장택상
후지츠카에게

연대 미상 23×12.5cm

후지츠카는 추사를 연구하면서 일본의 학자나 장서가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손재형, 이한복, 이병직, 박영철 등 많은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89의 〈판전(板殿)〉 현판 사진은 당대의 대수장가(大守將家)인 해방 후 수도청장을 지낸 장택상(張澤相)이 직접 찍어 후지츠카에게 보내준 것이다. 장택상은 후지츠카에게 추사 글씨의 특징과 소재처를 편지로 알려줌으로써 추사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다.





91

추사 묘소

사진 | 1930년대로 추정 12.5×19cm

추사 묘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늘 의문이 왔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비석도 세워져 있지 않으며, 나무로 된 꽃말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2

추사 고택

사진 | 1930년대로 추정 12.5×19cm

추사 고택의 옛 모습이 지금과 같았을지 아니면 1950~60년대와 비슷하였을지도 늘 의문이었는데, 이 사진을 통해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촬영 당시 이곳엔 추사의 후손이 살고 있었으며, 이때만 해도 집이 매우 낡았음을 알 수 있다.



93

도산서원을 찾은 후지츠카 일행

사진 / 1930년 11.5×76cm

후지츠카는 일본의 전통적인 유학 집안의 가학을 이은 학자였다. 일본의 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 퇴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도산서원을 찾은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1930년의 도산서원 모습과 그 유리 원판 사진은 매우 귀한 자료이다.

왼쪽은 유리 원판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인화한 사진이다. 왼쪽에서 네 번째가 후지츠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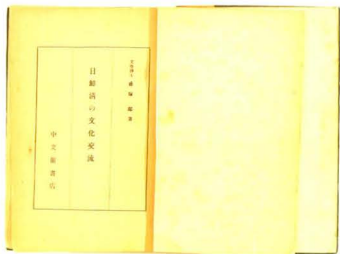
94

이한철

완당 초상

사진 | 1857년 51×25cm

이한철(李漢鎰)이 관복 입은 원당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후지초카가 찍은 사진으로, 촬영 당시인 1930년대에는 예산 고택에 소장되어 있었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진의 유리 원판도 남아 있다.



95

후지츠카

『일(日)·선(鮮)·청(淸)의 문화교류』

1947년

후지츠카가 추사와 청조학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펴낸 책. 1947년 일본 대동문화원 전문학교에 있을 때 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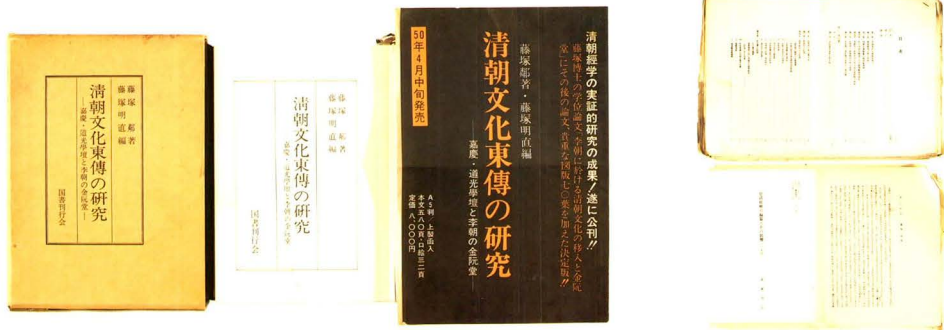
96

후지츠카

『논어총설』 『논어의 미독(味讀)』

1949년

후지츠카는 추사와 청조학에 관한 것이 일생을 통한 연구 과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논어』와 『효경』, 『중용』 등 초기 유학 경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 그 결과물이 1949년 간행한 『논어총설』과 『논어의 미독』인데, 특히 『논어총설』은 최근 중국에서 번역본(사진 맨 오론책)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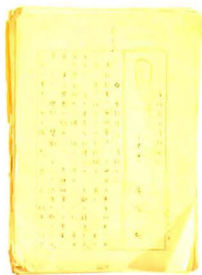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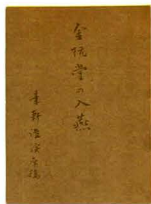
97

후지츠카

『청조문화 동전(東傳)의 연구』

1975년

후지츠카가 평생 연구해 온 청조 문화와 후 시에 관한 연구의 결정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생전에 여러 학회지와 잡지에 쓴 글과 박사학위 논문인 「이조에 있어서 청조 문화의 이입과 김완당」 등을 그의 아들 후지츠카 아카니오가 정리·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부제는 '가금·도량 학단과 이조의 김완당'이다. 오른쪽은 이 책의 교정지.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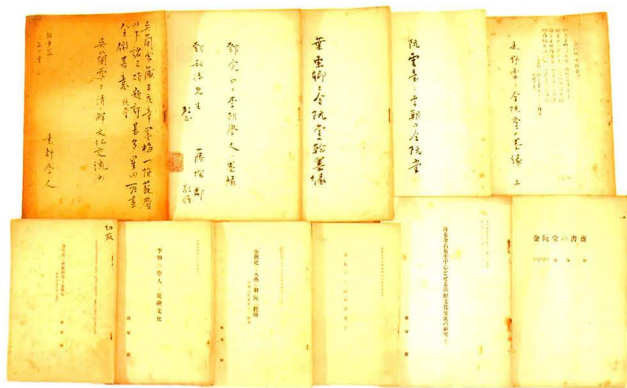
후지츠카

『김완당의 입연(入燕)』과
『김완당과 청조 문화』 원고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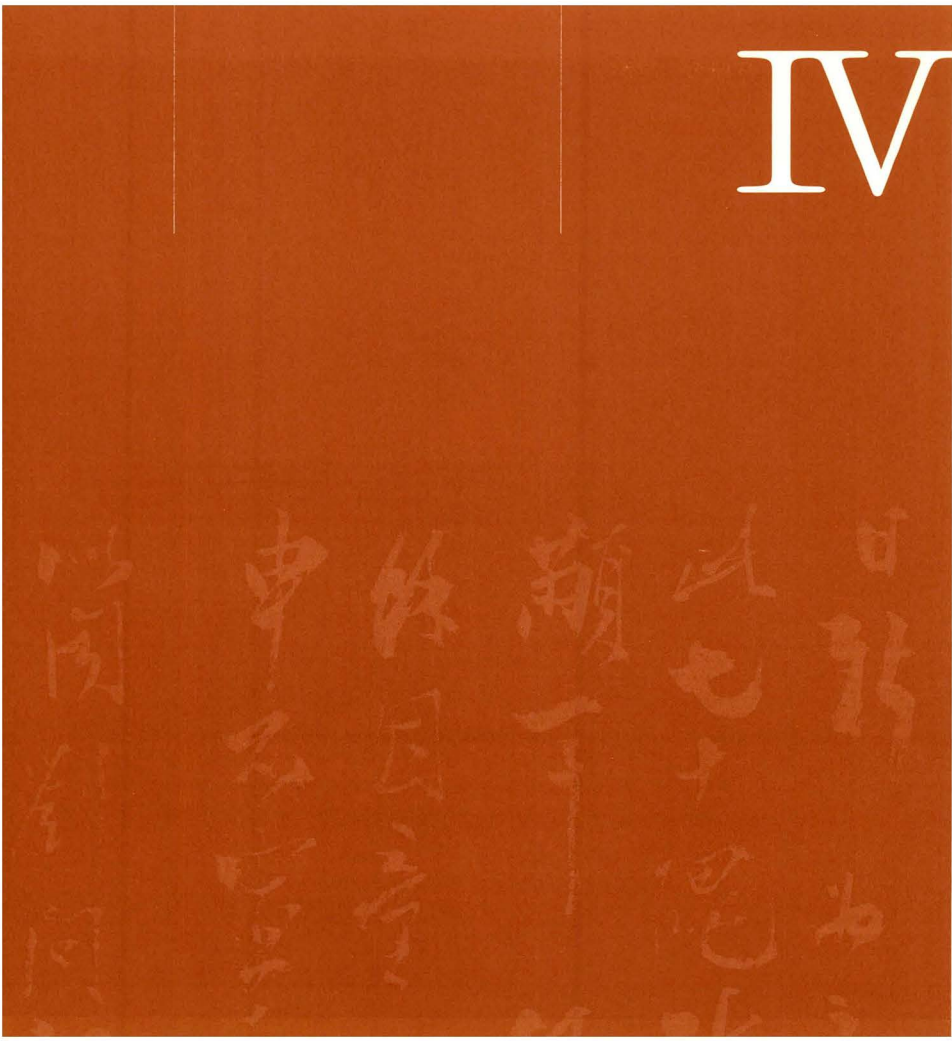
후지츠카

여러 학회지와 잡지에
쓴 원고의 별쇄본들



IV

후지츠카
기증 도서



오해와 이해

후지츠카 기증 도서 해제

후지츠카의 소장 자료를 기증 받았다는 소식은 쉽게 믿기지 않았다. 정말, 약간의 성의 표시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기증이라고 여러 번 되물어야 했다. 우리 민족이 미치 문화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던 시절에, 욕심스럽게 우리 문화유산을 챙겨서 일본으로 돌아간 후지츠카를 여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후지츠카의 1차 기증 자료 가운데 도서를 정리하는 작업에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증과 갑작스런 전시 계획에 따라 목록 작업 역시 급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도서의 편자를 맞추고 책 수와 크기, 판본 등을 확인하는 기초 작업을 한 후, 분류와 목록 입력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에는 구영옥(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이 함께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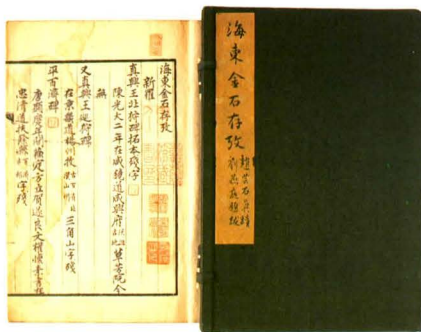
1차 기증 자료 중 후지츠카의 장서는 총 284종 2,778책이다. 이 책을 사부(四部)로 나누어 보면, 경부(經部) 153종, 사부(史部) 63종, 자부(子部) 41종, 집부(集部) 27종으로 되어 있다. 장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부 도서 가운데서도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은 『논어(論語)』로, 이판본(異板本)과 주석서만 31종에 이른다. 『황청경해(皇淸經解)』와 같은 거절의 경부 총서도 15종에 이른다.

후지츠카의 장서는 조선 학자의 수백본 10여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어본과 일본어본이다. 중국어본은 거의 청나라 말기에 간행된 것이지만, 일본어본 중에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에 간행된 고본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 후지츠카가 특히 관심 있었던 『논어』와 『순자(荀子)』 『순자(孫子)』 등은 여러 판본을 대조하며 세심하게 연구한 흔적이 남아 있다.

후지츠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시작한 정리 작업이 길어질수록 그의 진지함에 점점 빠져 든 모양이다. 깨알 같은 잔글이라도 한 자 한 자 확인해 내려간 그의 성실함에 처음에는 놀라다가 점점 절리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음을 고백해야 했다. 후지츠카가 책의 행간과 여백, 그것도 모자라 작은 줄이에 빼곡하게 적어 깨워놓은 기록들을 보면, 진정한 공부자 무엇인지, 진정한 학자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저ру한 학문의 뿌리를 오래 다지기보다는 화려한 학문의 꽃을 빨리 피우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후지츠카의 머뭇할 만큼 진지한 학문 세계를 들여다본 것은 큰 행운이다.

후지츠카의 장서를 검토·정리하고 난 지금은 이 기증이 정말 순수한 기증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신실하게 공부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평생의 수장품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후지츠카의 행적을 식민지 지배국민의 욕심 사나운 수집벽으로 치부했던 오해는, 이들 장서를 통해 그의 순수한 학문적 열정을 알아가면서 차츰 이해로 바뀌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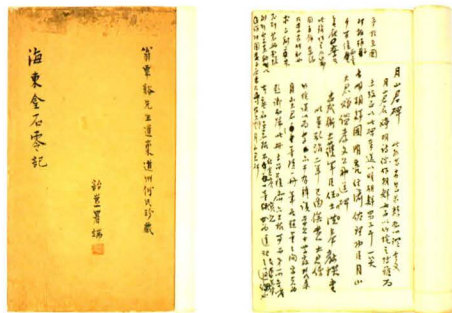


조인영

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攷)

1책 | 연대 미상 26×18cm

조인영(趙寅永)의 친필 고본(原本)으로, 청나라의 학자 연징(燕庭) 유희해(劉喜海)에게 기증한 책이다. 유희해가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저술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최경(崔慶)·조인영인(趙寅永印) 등 여러 방의 인기(印記)가 있고, 유희해의 친필 발문과 추기(追記) 및 인기가 있다. 유일본이다.



옹방강

해동금석영기(海東金石零記)

1책 | 연대 미상 29×19cm

청나라 학자 옹방강이 조선 학자에게 전해 받은 금석문을 정리한 책으로, 금석문 매 권마다 보내준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추사 외에 약현(約軒) 홍연주(洪顯周), 자하(紫霞) 신위(申緯) 등도 보인다. 하소기(何紹基) 집안에 전해오던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유일본이다.



완원 편
황청경해(皇淸經解)

1책 | 1829년 26×16cm

완원이 편찬한 책으로, 뒤에 나온 왕선겸(王先謙)의 숙련과 함께 청대 고증학의 장수로 꼽힌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오자 바로 추사에게 전해졌는데, 후지초가 차가시는 자신의 글에서 '을축조원(乙丑朝元)'과 '용명(龍謨)'이라는 인기를 거론하며 이 책이 혹시 그 중 하나가 아닐까 하고 유추하기도 했다.



곽충선 편
한간(汗簡)

3책 | 연대 미상 33×19.5cm

중국의 고문자(古文)를 정리한 책으로, 1829년 삼지선(曠志線)이 추사에게 기증한 것이다. 담계(潭溪) 용양강, 가려(可羅) 응진(凝貞)의 교정본을 다시 옮겨 적었다는 삼지선의 자필 제기(題記)가 있다. '동경지증(東廓持證)' '삼씨장서부본(曠氏藏書副本)' 등 삼지선과 추사의 소장인이 있고, 추사의 자필 소장목록에도 들어 있다.



주역집해(周易集解)

1책 | 연대 미상 30×18.5cm

청대 학자 손성연의 '주역집해'를 해서로 정성들여 쓴 책이다. 죽림(竹林) 김유근(金維根, 1785~1840)의 소장본이다. 이재(蔚齋) 권돈인이 제점을 썼다.



유희해 편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4책 | 1888년 | 30×1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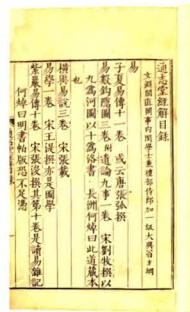
유희해가 추사와 추사의 아우 김명희, 운석(雲石) 조인영 등 조선의 학자들이 전해 준 조선의 금석문을 엮어 만든 책이다. 유희해의 제자(題辭)와 이해길(李惠吉)의 제시(題詩)가 책머리에 있다. 1920년대에 나온 유승간의 『해동금석원』은 이 책을 저본으로 증보 간행한 것이다.



정경성 편
황청경해검목(皇清經解檢目)

1책 | 연대 미상 | 23.5×1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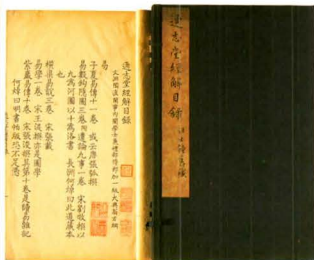
원인이 편찬한 『황청경해』의 검색을 위한 목록이다.



홍광길 편
통지당경해목록(通志堂經解目錄)

필사본 1책 | 연대 미상 | 29×19cm

서간학(徐幹學)이 편찬한 『통지당경해』의 목록을 홍광길이 정리한 책이다. 필사본이나, 필사자는 미상이다. 통지당은 서간학의 제자인 성역(性穰)의 서재 이름이다. 홍광길의 진림 고본을 청말의 장사기(張士機)가 출판업자인 왕사중(王士樵)이 옮겨 쓴 것 같으며, 그의 소장인이 있다.



운방강 편
통지당경해목록(通志堂經解目錄)

1책 | 연대 미상 27.5×1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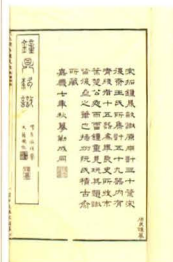
서건학(徐乾學)이 편찬한 『통지당경해』의 목록을 운방강이 정리한 책이다.



장강(張蒼) 편
회당암주제자기(雷堂庵主弟子記)

1책 | 연대 미상 26×17cm

완원의 연보(年譜)로, 표지에 1854년 우선(藕船) 이상직(李商迪)이 이 책을 지니게 된 내력을 적은 지(記)가 있고 우선(藕船)이라는 인가(印記)가 있는 점으로 보아 이상직의 수택본임을 알 수 있다.



완원 찬
왕복재종정관지(王復齋鍾鼎款識)

1책 | 1802년 28×56cm

송나라 때 왕원지(王原之, 號 復齋)가 역대 종정(鍾鼎)의 관지(款識)에 관한 내용을 편집해서 만든 『종정관지(鍾鼎款識)』를 완원이 모자해서 발간한 것이다.



유진 찬
동관한기(東觀漢記)

2책 | 연대 미상 | 27x18cm

한·나라의 유진(劉珍)이 지은 '동관한기'는 후한(後漢)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도광(道光) 4년(1824) 유희해가 산천에게 보낸 여러 책 가운데 하나이다. '산천장서(山泉藏書)' '김명희인(金命禧印)'의 인기가 있다.



유희해 편
장안회고편(長安懷古編)

2책 | 연대 미상 | 28x18cm

청나라 오대징(吳大澂)이 1872년 박규수에게 기증한 책으로, '오청경소장인(吳淸經所藏印)'이 있다.



남명길 편찬
완당척독(玩堂尺牘)

180 | 1867년 | 29x19cm

추사의 제자 남명길이 주관하여 만든 추사의 판지 모음집이다.



옹방강 서
김우암소전(金愚巖小傳)

지문 1책 | 1805년 | 27.5x15cm

옹방강의 글씨 탁본첩이다.

기증 도서 선장본(線裝本) 목록

經部

1

皇清經解 | 阮元(清) 等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6卷3冊(권4-19):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9×13.3cm, 有界, 11行24字,

上下向黑魚尾: 26.0×15.8cm

표지서명: 學解堂經解

소장인: 乙丑朝元, 龍嘯

내용: 音論·易音·詩本音·日知錄 | 顧炎武 著

2

皇清經解 | 阮元(清) 等編

木板本(中國)

[廣州]: [學海堂], 道光 9(1829)

1408卷400冊(36包匣): 左右單邊 上下雙邊

半郭 18.1×13.5cm, 有界, 11行24字,

上下向黑魚尾: 23.6×15.2cm

序: 道光九年, -- 新建夏修恕謹記

3

皇清經解續編 | 王先謙(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光緒 14(1888)序]

1430卷320冊(48函): 左右單邊 上下雙邊

半郭 17.8×13.3cm, 有界, 11行24字,

上下向黑魚尾: 24.8×15.5cm

序: 光緒十四年歲次戊子夏六月

4

皇清經解一斑 | 岡田欽(日) 校

木板本(日本)

江戸: 精義塾, 天保7(1836)

6卷4冊: 左右單邊 上下雙邊

半郭 18.2×13.3cm, 11行24字,

上下向黑魚尾: 25.8×17.5cm

5

許鄭學廬存稿 | 王紹蘭(清) 撰

影印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道光 26(1849)

8卷5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2.7×8.4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17.6×10.3cm

표제지간기: 道光乙酉(1849) 開雕

6

宋本十三經注疏 | 阮元(清) 撰: 盧宜甸(清) 增錄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 脈望他館, 光緒 13(1887)

29冊(4函): 四周單邊

半郭 15.0×11.6cm, 有界, 20行34字 註雙行46字,

上下向黑魚尾: 18.5×13.0cm

표지서명: 宋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판심서명: 十三經注疏

간기: 光緒丁亥脈望他館石印

7

十三經注疏及校勘記 | 阮元(清) 撰

石坂本(中國)

上海：錦章圖局，民國 21(1932)

5冊：四周單邊

半郭 16.4×10.6cm，無界，細黑口，15行32字。

上黑魚尾：20.1×13.9cm

표지서명：宋刊本十三經注疏及校勘記

관심서명：十三經注疏

표제지：重聚宋刊本十三經注疏及校勘記

序：太子少保江西巡撫兼提督楊州阮元審定武寧縣貢生盧

官旬校

표제지간기：中華民國念一年夏月印

8

十三經注疏 | 孔臧達(唐) 疏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廣東書局，同治 10(1871)

120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1.7×14.8cm，有界，10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28.6×17.9cm

간기：武英殿本，同治十年廣東書局重刊

9

論語 | 何晏(魏) 集解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刊寫年未詳]

2冊：四周單邊 半郭 18.7×14.4cm，

有界，9行：29.8×19.0cm

표지서명：論語集解

소장인：尙吉齋藏書

10

論語義疏 | 何晏(魏) 集解；根遜志 校正

木板本(日本)

[東都]：[刊行者未詳]，寬延 3(1750)

9冊(卷1缺)：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0.8×14.4cm，有界，9行20字。

上下向黑魚尾：26.4×17.5cm

11

論語義疏 | 皇侃(梁) 撰

鉛活字本

大阪：懷德堂紀念會，大正 13(1924)

10卷6冊：四周單邊

半郭 19.1×14.3cm，有界，9行20字。

無魚尾：26.3×19.2cm

12

論語徵集覽 | 何晏(魏) 集解；物茂卿(日) 徵；

源賴寬(日) 輯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觀濤閣，寬延 3(1750)

3卷1冊：四周單邊

半郭 23.3×15.9cm，有界，10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26.2×17.9cm

관심서명：集覽

13

論語集注補正述疏 | 簡朝亮 述疏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讀書堂，[刊行年未詳]

10卷16冊(3函)：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9×13.3cm，有界，11行24字。

上下向黑魚尾：28.6×15.9cm

14

論語私見 | 山本惠 錄

鉛活字本

大阪：松村末吉，昭和 14(1939)

2卷2冊：19行53字：25.5×17.7cm

15

論語集注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5卷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1×14.3cm，有界，9行17字。

上下向黑魚尾：28.4×17.9cm

16

集注本論語新譯 | 西澤道寬(日) 撰

新活字本

東京：松雲堂，昭和 16(1941)

1冊：17行32字：25.8×18.2cm

17

論語尚語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刊寫年未詳]

1冊：四周單邊 半郭 18.3×13.2cm，

藍線欄，10行：24.4×16.4cm

18

論語正義 | 劉寶楠 著；恭冕 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同治 3(1866)

24卷6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9×13.7cm，有界，10行23字。

上下向黑魚尾：26.4×15.5cm

19

論語正義 卷7-20 | 劉寶楠 著

影印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4卷6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5.7×11.5cm, 有界, 10行23字,

上下向黑魚尾: 19.8×13.1cm

20

論語正義 | 劉寶楠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光緒 18(1892) 序]

24卷6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0×13.5cm, 有界, 10行23字,

上下向黑魚尾: 26.9×15.5cm

권말간기: 黃岡范章封校刊

21

論語註解經 | 何晏(魏) 集解: 邢昺 疏

木板本(中國)

江西: 南昌府學, 嘉慶 20(1815)

20卷4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1×12.9cm, 有界, 10行18字,

大黑口, 上下向黑魚尾: 28.2×17.3cm

표지서명: 論語注疏

권말간기: 二品蔭生阮常生校葉

早考: 論語注疏校勘記 | 阮元(清) 撰: 盧宜旬(清) 摘錄

22

古文論語鄭注 | 王應麟 撰: 鄭秉成 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醉經堂, [刊行年未詳]

2卷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8×14.6cm, 有界, 10行23字,

上下向黑魚尾: 25.6×16.3cm

23

論語實測 | 徐天璋 註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20卷4冊: 四周雙邊

半郭 18.2×13.5cm, 無界, 11行24字,

上下向黑魚尾: 26.5×15.5cm

24

朱子論語集注訓詁攷 | 潘衍桐 輯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浙江書局, 光緒 17(1891)

2卷1冊: 四周雙邊

半郭 16.9×11.4cm, 有界, 10行21字, 黑口, 內向黑魚尾:

27.4×16.9cm

25

論語異文考證 | 湯登府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藏修書屋, [道光 4(1834) 序]

5卷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2.6×9.6cm, 9行20字,

黑口, 上下向黑魚尾: 19.0×11.9cm

26

論語攷 | 宇鼎 著

木板本(日本)

江戶: [刊行者未詳], 享和 2(1802)

6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6×15.7cm, 10行21字,

黑口, 無魚尾: 27.6×18.5cm

27

論語 | 吳大徵 著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 同文書局, 光緒 12(1886)

2卷4冊: 四周單邊

半郭 16.4×10.9cm, 有界, 7行字數不定,

無魚尾: 20.1×13.3cm

표지서명: 吳大徵篆文論語

28

古文論語集解 | 何晏(魏) 集解

影印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真和 2(1326) 序]

1冊: 四周單邊

半郭 22.7×17.9cm, 有界, 6行11字,

無魚尾: 33.0×23.1cm

29

論語集解義疏 | 何晏(魏) 集解: 皇侃(梁) 義疏:

根淵志(日) 校正

木板本(日本)

江戶: [刊行者未詳], 寶政 7(1795)

10卷4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7×14.2cm, 有界, 9行20字,

上下向黑魚尾: 25.0×17.8cm

소장인: 君茂藏書

30

論語集說 | 安井息軒 著

木板本(日本)

東京: [刊行者未詳], 明治 5(1872)

6卷6冊: 四周雙邊

半郭 19.7×13.8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25.7×17.8cm

소장인: 岩佐氏同書印

31

論語折衷 | 藤原正臣 書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天明 3(1788)

2冊：24.3×17.0cm

32

論語集解國子辯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5卷3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9×13.6cm，10行字數不定。

黑魚尾：26.0×17.6cm

33

論語古訓 | 陳鱣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簡莊，乾隆 60(1795)

10卷2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6×13.6cm，10行21字。

大黑口，25.8×16.5cm

34

論語古訓外傳 | 太宰純(日) 著

木板本(日)

江都：嵩山房，延享 2(1745)

10冊：四周雙邊

半郭 19.8×15.1cm，有界，10行20字；

26.0×17.5cm

35

論語註解辨訂 | 劉名譽 撰

鉛活字本

桂林：[刊行者未詳]，民國 7(1928)

21卷5冊：四周雙邊

半郭 19.6×12.9cm，無界，10行24字；

上下向黑魚尾：25.0×15.7cm

36

論語後案 | 黃式三(清) 撰

木活字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20卷6冊：四周雙邊

半郭 23.0×15.3cm，無界，17行24字；

上下向黑魚尾：29.5×17.4cm

37

論語古注集說平義 | 華天祐 撰

長沙：寧遠齋堂，民國 19(1930)

2冊：四周單邊

半郭 15.0×10.6cm，有界，12行字數不定；

上下向黑魚尾：19.7×13.2cm

38

孟子集注 | 澁川龜太郎 纂標

新鉛活字

東京：金港堂，大正元年

7卷1冊：四周雙邊

半郭 19.1×11.4cm，無界，10行21字；22.5×14.8cm

39

孟子年譜 | 曹之升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嘉慶 10(1805) 序]

2卷4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2.5×9.7cm，有界，9行21字。

黑口，無魚尾：19.3×12.1cm

40

孟子纂疏 | 杜慈 集注；岳孝儒 纂疏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刊寫年未詳]

2卷2冊：四周單邊

半郭 20.2×14.9cm，有界，9行16字。

無魚尾：26.7×17.2cm

41

孟子的解 | 大槻清崇 著

木板本(日本)

京都：寧靜閣，嘉永 4(1851)

3卷3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1×14.2cm，無界，10行20字。

黑口，黑魚尾：25.9×17.8cm

42

孟子古注考 | 藍澤南城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刊寫年未詳]

7冊：23.9×16.1cm

43

孟子欄外書 | 一齋居士 稿本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刊寫年未詳]

1冊：12行19字；26.0×18.9cm

44

孟子字義疏證 | 戴震(清)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微波榭，[刊行年未詳]

1冊

45

大學通義 | 曹元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宣統 32(1932)

1冊：四周雙邊

半郭 21.9×15.3cm，有界，9行20字。

大黑口，黑魚尾：28.3×17.3cm

46

詩經講義 | 新井政毅 | 林英吉 講義
新活字本

[刊行地未詳] : 興文社, 大正 6(1917)

1冊 : 15行24字 ; 22.3×15.0cm

47

詩經小學 | 段玉裁(清) 撰
木板本(中國)

蘇州 : 吳學圃, [刊行年未詳]

1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0×12.9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 25.1×15.9cm

간기 : 蘇州圓門外桐涇橋西青霞齋吳學圃刻

48

毛詩異義 | 汪龍(清)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道光乙酉(1825)

4卷4冊 : 四周雙邊

半郭 18.9×14.3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29.2×17.6cm

판본 : 藺齋鮑氏藏版

합철 : 詩議

49

毛詩補傳 | 仁井田 撰
木板本(日本)

東京 : 松雲堂書店, 昭和 4(1929)

30卷16冊(2函) : 四周雙邊

半郭 20.9×14.9cm, 有界, 11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6.3×18.0cm

간기 : 斯文會藏版

50

毛詩傳箋通釋 | 馬瑞辰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廣雅書局, 光緒 14(1888)

32卷12冊 : 四周單邊

半郭 20.6×15.1cm, 有界, 11行24字,

上下黑口, 上下向黑魚尾 ; 27.9×18.1cm

표지서명 : 詩毛氏傳疏

51

詩三家義集疏 | 王先謙(清)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虛學堂, 民國 4(1915)

28卷10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6×13.7cm, 有界, 11行24字,

上下向黑魚尾 ; 27.3×17.5cm

52

詩毛氏傳疏 | 陳奂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南書房, 道光 27(1847)

12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6×12.9cm, 10行21字, 黑口,

上下向黑魚尾 ; 24.1×15.0cm

판본 : 吳門南園瑯葉山莊段氏藏版

53

毛詩古音考 | 陳第 編輯 ; 嚴式誨 校刊 ;
龔道耕 重校

影印本

四川 : 人民出版社, 1957

4卷4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5.8×11.8cm, 有界, 10行21字,

黑口, 上下向黑魚尾 ; 25.4×15.0cm

54

毛詩 | 竹添光鴻 會箋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 獨抱樓, 大正9(1920)

20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18.9×13.4cm, 有界, 10行19字,

22.0×15.2cm

관심서명 : 毛詩會箋

권말간기 : 中國上海商務印書館代印

55

尚書今注音疏 | 江聲 著
影印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6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5×13.2cm, 有界, 10行21字,

無魚尾 ; 26.5×16.4cm

56

尚書古文疏證 | 閻百詩 集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春西堂, [乾隆 10(1745) 序]

8卷8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6×14.5cm, 11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4.3×15.8cm

57

古文尚書撰異 | 段玉裁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32卷8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9×13.9cm, 11行22字,

上下向黑魚尾 ; 28.6×18.0cm

판본 : 七葉衍祥堂藏版

58

今文尚書考證 | 皮錫瑞撰

影印本

[刊行地未詳]：師伏堂。〔丁酉〕

30卷4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0.4×14.2cm，有界，10行25字，

上下向黑魚尾：30.1×17.7cm

59

尚書大全疏證 | 皮錫瑞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師伏堂。〔光緒 22(1896)〕

7卷3冊：四周雙邊

半郭 20.5×14.5cm，有界，10行25字，

上下向黑魚尾：29.9×17.7cm

60

附釋音尚書注疏 | 孔穎達 勅撰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脈望仙館。光緒 13(1887)

10卷1冊：四周單邊

半郭 14.9×11.6cm，有界，20行30字 註雙行 46字，

上下向黑魚尾：18.6×13.3cm

표제지서명：宋本尚書注疏附校勘記

61

尚書集注述疏 | 簡朝亮(清)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年未詳〕。〔光緒 33(1907) 序〕

35卷17冊：

半郭 18.7×13.3cm，有界，11行24字，

上下向黑魚尾：28.7×16.3cm

부록：讀書堂答問

62

古文尚書勤王師 | 山本信有 著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愛媛塾。〔文政 7(1824)〕

3冊：四周單邊

半郭 18.5×12.6cm，有界，10行 21字，

黑魚尾：23.6×15.2cm

63

尚書後案 | 王鳴盛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30卷4冊：四周單邊

半郭 22.8×15.7cm，有界，13行29字，

黑口，上下向黑魚尾：29. ×18.4cm

64

尚書大傳 | 伏勝(漢)撰；鄭玄(漢)注；

董豐垣(清)考纂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槐古齋。〔刊行年未詳〕

3卷2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6×14.4cm，11行21字，

上下向黑魚尾

65

書經 | 蕪沉集傳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今村八兵衛。享和元年(1801)

6卷6冊：四周單邊

半郭 23.7×16.3cm，有界，8行17字，

上下向黑魚尾：26.1×18.5cm

표제지서명：書經集注

관심서명：書經

66

書經集傳 | 蕪沉集傳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歸葉山房。同治 7(1868)

4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9×13.8 cm，9行17字，

上下向黑魚尾：24.4×15.5cm

표제지서명：尚書

67

讀書小記 | 馬敘倫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2卷1冊：四周雙邊

半郭 16.3×11.1cm，無界，12行33字，

黑口，無魚尾：26.6×15.2cm

68

讀書續記。卷6-7 | 馬敘倫 著

鉛活字本

長沙：商務印書館，民國 28(1939)

2卷1冊：四周雙邊

半郭 16.3×11.2cm，無界，12行33字，

黑口，26.1×15.2cm

69

讀書續記 | 馬敘倫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商務印書館，民國 22(1933)

5卷2冊：四周雙邊

半郭 16.1×11.3cm，無界，12行33字，

黑口：26.5×15.2cm

70

讀書雜誌 | 王金孫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24冊: 四周雙邊

半郭 16.6×13.0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28.0×17.3cm

71

周易集解 | 孫星衍(清) 撰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9冊(集解 8卷8冊, 3.7 缺, 口訣義 3卷1冊): 四周雙邊

半郭 22.9×13.9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無魚尾: 29.8×18.7cm

표지제첩: 竹林堂藏本, 彝齋題籤

출처명: 岱南閣藏書

함본: 周易口訣義 | 史徵(唐) 撰; 孫星衍(清) 校

72

古周易訂詁 | 玄子氏 著

影印本

[刊行地未詳]: 中國書店, [刊行年未詳]

16卷8冊: 四周單邊

半郭 16.0×10.9cm, 有界, 9行19字 註雙行,

無魚尾: 20.3×13.6cm

73

周易集解 | 李縣昨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宣統 庚申(1920)]

17卷17冊: 四周雙邊

半郭 20.9×14.8cm, 有界, 9行2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8.2×17.1cm

표지서명: 周易集解補釋

관심서명: 周易集解補釋

74

乾隆御纂周易述義 | 恒伝 編

木板本(日本)

江都: 思誠塾, 弘化 3(1840)

10卷8冊: 四周雙邊

半郭 14.5×12.1cm, 有界, 10行28字,

上下向黑魚尾: 22.2×14.8cm

간기: 江都思誠塾藏梓

75

周禮漢讀考 | 阮元(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經韻樓, 嘉慶元年(1796)

4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1×12.7cm,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28.4×18.0cm

관본: 經韻樓藏版

76

三禮圖 | 聶崇義 集注

木板本(日本)

平安: 北村四良兵衛, 寶歷 11(1761)

20卷4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1.0×16.2cm, 16行28字, 版畫, 有界,

上下向黑魚尾: 26.3×18.6cm

77

三禮通釋 | 林昌彝 撰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6冊(叢209-280): 四周雙邊

半郭 19.0×13.3cm, 10行23字, 有界,

上下向黑魚尾: 27.7×17.0cm

78

禮書通故 | 黃以周 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黃氏試館, [光緒 19(1893)]

32冊(2函 + 單冊): 四周雙邊

半郭 15.1×11.3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黑口, 無魚尾: 23.9×14.8cm

관심서명: 禮書

79

讀禮通考 | 徐乾學 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冠山堂, [刊行年未詳]

120卷32冊(4函):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8×14.6cm, 有界, 13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5.3×16.7cm

80

五服釋例 卷5-20 | 夏燮(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5冊: 四周雙邊

半郭 16.0×13.7cm, 有界, 11行22字,

上下向黑魚尾: 26.3×16.4cm

81

禮經釋例 | 凌廷堪 著

木板本(中國)

楊州: 文選樓, [刊行年未詳]

13卷4冊: 四周雙邊

半郭 17.7×13.0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25.2×16.2cm

관본: 楊州文選樓阮氏藏版

82

穀梁傳 | 王道凝 校

木板本(日本)

京都: 植村藤衛門, 寛文 8(1668)

12卷7冊: 四周單邊

半郭 18.8×13.9cm, 無界, 9行19字,

上下向黑魚尾: 25.8×17.9cm

83

左傳續註

影印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5卷15冊(卷8缺):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7×13.8cm, 有界, 9行20字,

黑魚尾: 24.5×16.1cm

84

呂氏春秋 | 宋邦又: 徐益孫 同訂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平安書林, [刊行年未詳]

5冊: 四周單邊

半郭 19.0×15.6cm, 10行18字,

無魚尾: 25.9×18.3cm

표지서명: 呂子一適

85

增註春秋左氏傳校本 | 泰鼎 校本:

近藤元粹 增註

木板本(日本)

大阪: 合書房, [刊行年未詳]

7冊: 四周單邊

半郭 23.5×16.4cm, 有界, 10行20字,

黑魚尾: 25.9×18.4cm

86

公羊傳 | 何休 注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寛文 8(1668)序]

12卷7冊: 四周單邊

半郭 18.8×14.0cm, 無界, 9行19字,

上下向黑魚尾: 25.8×17.9cm

87

春秋左傳釋人 | 范照葵 纂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6冊: 系譜,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7×14.7cm, 有界, 10行23字,

上下向黑魚尾: 28.9×17.9cm

판심: 春秋釋人

판본: 如不及齋藏板

88

春秋繁露義證 | 董仲舒 撰: 蘇興 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宣統 2(1910)

17卷6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7×12.9cm, 有界, 10行25字,

上下向黑魚尾: 26.3×16.5cm

89

春秋經傳類求 | 孫從添: 過臨分 纂輯

影印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12冊: 地圖,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0.8×15.0cm, 有界, 12行34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8.4×18.0cm

판본: 萬家堂藏板

90

春秋左氏傳賈服注輯述 | 李貽德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同治 5(1866)

6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3×12.6cm, 有界, 10行25字,

上下向黑魚尾: 28.4×16.5cm

91

孝經述注 | 丁晏 輯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咸豐 7(1857)

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2×13.3cm, 有界, 12行 20字,

上下大黑口混入,

上下向黑魚尾: 27.5×17.6cm

합철: 諸子粹言

간기: 咸豐七年閏五月南豐譚祖同署

92

孝經 | 洪頤煊(清) 保證: 東條弘 增攷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文化 11(1814)

1冊: 四周單邊

半郭 20.3×13.5cm, 有界, 9行18字:

26.2×17.5cm

표지서명: 增攷孝經鄭氏解補證

판심서명: 孝經鄭氏解

부록: 兩造簡學 | 東條弘 著

93

孝經發揮 | 津阪孝諦 註

木板本(日本)

京都: 有造館, 文政 9(1826)

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2×14.5cm, 有界, 10行20字,

黑魚尾: 26.0×17.5cm

94

孝經鄭注 | 鄭玄(漢) 註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青本恒三郎, [刊行年未詳]

2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9×14.4cm, 有界, 9行18字,

黑魚尾: 25.8×18.0cm

95

孝經鄭注 | 鄭玄(漢) 註; 良莖之(日) 句

木板本(日本)

京都: 平安書林, 寶曆 3(1753)

2冊: 四周單邊

半郭 20.6×13.2cm, 有界, 6行12字,

黑魚尾: 25.9×17.8cm

96

四書地理攷 | 庭王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5卷6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4.1×9.6cm, 有界, 9行22字,

上下向黑魚尾: 20.1×10.9cm

97

四書臆言 | 毛奇齡(清) 著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青雲堂, 天保 9(1838)

4卷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6×14.0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25.8×17.8cm

98

焦氏筆乘 | 焦延 著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慶安 2(1649)

6卷5冊: 四周單邊

半郭 20.7×13.8cm, 無界, 9行19字,

黑魚尾: 26.3×17.5cm

간기: 慶安貳年菊月三條通菱屋町林基右衛門板

99

西河折妄 | 豬飼彥博 著

木活字本(日本)

駿府: 采撰亭, 文政 12(1829)

3冊: 四周單邊

半郭 20.1×14.8cm, 有界, 10行20字,

黑魚尾: 24.8×17.6cm

100

漢字研究 | 鈴木光三郎 著

筆寫本(原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四周雙邊

半郭 19.6×13.5cm, 有界, 10行22字; 22.7×15.5cm

101

漢子ノ起源 | 加藤常賢 著

謄寫本

東京: 斯文會, 昭和24(1891)

102

說文徐氏未詳說 | 許湛祥 輯

木板本(中國)

海寧: 古均閣, 光緒 16(1890)

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8×12.8 cm, 11行22字,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24.1×15.5cm

103

說文解字通正 | 潘奕陶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嘉慶 7(1802)

7卷2冊: 四周雙邊

半郭 17.9×13.1cm,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24.3×16.2cm

표제지서명: 說文篆箋

판본: 三松堂藏板

104

說文解字翼徵 | 朴瑄壽 治; 金晚植 習

石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4卷6冊: 四周單邊

半郭 22.1×15.7cm, 無界, 11行22字,

無魚尾: 30.4×18.4cm

105

說文解字詁林補遺

鉛活字本

上海: 醫學書局, [刊行年未詳]

8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8×12.5cm, 18行字數不定, 下黑口,

上下向黑魚尾: 26.0×15.1cm

106

性命古訓辨證 | 傅斯年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商務印書館, 民國 29(1940)

3卷2冊: 四周單邊

半郭 16.6×12.0cm, 無界, 13行34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6.7×15.3cm

107

六書解例 | 馬徐倫 著

影印本

上海：商務印書館，民國 28(1939)

1冊：四周單邊

半郭 14.3×9.9cm，無界，10行22字，

無魚尾；20.1×13.2cm

序：杭縣馬敘倫記，並寫定

108

標題徐狀元補注蒙求校本 | 岡白駒 箋註

木板本(中國)

西京：五書堂，明治 4(1871)

3冊：四周單邊

半郭 22.0×15.3cm，有界，12行22字，

無魚尾；26.1×18.5cm

109

經地解義 | 下阪彦卿 述

木板本(日本)

江戶：山城屋佐兵衛，嘉永 5(1852)

2冊：四周單邊

半郭 16.8×12.6cm，10行20字，

黑口，黑魚尾；22.6×15.7cm

판본：讀我軒藏版

110

西河合集 | 毛奇齡 撰；山本信有(日) 撰

木板本(日本)

東都：曼延堂，寬政 11(1799)

2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1.1×15.2cm，有界，10行20字，

黑口，黑魚尾；25.6×17.9cm

표지서명：經問

표제지서명：西河合集經問

소장인：津隈藏書

111

群經字類 | 王念孫 著

油印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2卷1冊：10行20字；17.3×11.7cm

112

釋名疏增補 | 劉熙 撰；王先謙(清) 譌集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光緒 22(1896)

8卷4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5×13.4cm，有界，11行24字，

黑口，上下向黑魚尾；16.3×15.9cm

간기：光緒丙申

판심서명：釋

113

經傳釋詞 | 王引之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嘉慶 24(1819)序]

10卷4冊：四周雙邊

半郭 16.5×12.9 cm，有界，10行21字，

上下向黑魚尾；25.3×15.1cm

114

經傳釋詞 | 王引之 撰；東條祐 交點

木板本(日本，中國本覆刻)

江戶：雙柳舍，天保14(1843)

10卷5冊：四周單邊

半郭 18.6×13.5cm，有界，11行24字，

上下向黑魚尾；25.9×18.0cm

115

經傳釋詞補 | 孫經世(清) 撰

木板本(中國)

長州：蔣鳳藻，光緒14(1888)

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4×11.4cm，11行21字，

上下黑口，內向黑魚尾；30.1×17.7cm

간기：長州蔣鳳藻香生甫，校刊心矩齋中藏板

116

經傳釋文字錄疏證 | 陸德明 撰

鉛活字本

[刊行地未詳]；北平中國學院：民國 22(1933)

1冊：四周單邊

半郭 16.3×10.4cm，有界，10行33字，

上下向黑魚尾；26.5×15.2cm

117

磨光韻鏡 | 文雄 述

木板本(日本)

皇都：金屋浪兵衛，延享 1(1744)

2冊：四周雙邊

半郭 21.9×16.6cm，有界，10行23字，

28.1×19.0cm

118

助字辨略 | 劉淇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海源閣，咸豐 5(1855)

5卷4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0×12.8cm，有界，9行21字，

上下向黑魚尾；27.9×17.0cm

119

識字訓各 | 宋宗元(清)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乾隆 33(1768)序]

3冊: 半郭 16.6×11.7cm, 有界, 9行19字,

上下向黑魚尾: 24.6×14.7cm

판본: 網師園藏板

120

五車韻瑞 | 凌稚隆(明)編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萬曆 19(1591)序]

60卷25冊: 四周單邊

半郭 21.3×15.5cm, 有界, 行字數不定,

上下向黑魚尾: 27.3×18.9cm

121

訓點復古 | 日尾瑜 著; 本間忠, 若林偶德 校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天保 6(1835)序]

2卷2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4×14.2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26.4×17.4cm

판본: 塾生等藏

122

爾雅 | 郭璞 注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鶴翠石經山房, [刊行年未詳]

3卷1冊: 雙相圖,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1.2×14.9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8.7×19.8cm

판본: 景宋本爾雅

123

爾雅正文 | 深河龍光彥 校

木板本(日本)

大阪: 尚書堂, [刊行年未詳]

2冊: 四周雙邊

半郭 21.3×16.4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28.7×18.8cm

124

爾雅古義 | 胡承珙(清)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道光 17(1837)

2卷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3×12.6cm, 有界, 10行22字,

上下向黑魚尾: 24.9×17.0cm

판본: 求是堂藏版

125

爾雅匡名 | 嚴元照(清)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南菁書院, [刊行年未詳]

3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3×13.4cm, 有界, 11行24字,

上下向黑魚尾: 23.9×15.3cm

합註: 爾雅經注集詁

총서명: 皇清經解續編(권496-515)

126

小爾雅疏 | 王煦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鑿翠山莊, 嘉慶 5(1800)

8卷4冊: 四周雙邊

半郭 16.5×11.8cm, 有界, 9行21字,

上下向黑魚尾: 23.7×14.3cm

판본: 鑿翠山莊藏板

127

隸釋 | 洪遵(宋)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27卷12冊: 四周單邊

半郭 20.3×16.1cm, 有界, 9行20字,

上下向黑魚尾: 30.0×17.7cm

합註: 隸續

128

古籀餘論 | 孫詒讓 撰; 東莞容庚 校

影印本

[刊行地未詳]: 燕京大學, 民國 18(1929)

2冊: 四周單邊

半郭 15.4×11.4cm, 有界, 10行20字,

上下黑口, 25.9×14.7 cm

129

經句說 | 吳簡舟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有竹石軒, [刊行年未詳]

13卷12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4×12.5cm, 有界, 9行21字

上下向黑魚尾: 24.2×15.3cm

130

學津討原 | 張海鵬 輯

影印本

上海: 涵芬樓, 民國 11(1922)

200冊(20函):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3.7×9.6cm, 有界, 9行21字,

上下黑口, 無魚尾: 20.0×13.2cm

판심감기: 照曜閣

간기: 嘉慶十一年歲次丙寅九月重陽後三日

131

字話 | 黃生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光緒 3(1877)

4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0×13.0 cm, 10行21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7.0×17.2cm

표지서명: 義府字話

표제지간기: 光緒丁丑...刊行

132

漢魏音 | 洪亮吉 撰

木板本(中國)

西安: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4卷2冊: 四周單邊

半郭 20.0×14.7cm, 有界, 12行24字 註雙行,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24.8×16.0cm

133

經義述聞 | 王引之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32卷16冊: 四周雙邊

半郭 16.8×12.9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23.3×15.3cm

134

四書訓學集疏 | 安斐 著

木板本(日本)

江戶: 江都書林, 天保 15(1844)

39卷29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4×13.7cm, 有界, 行字數不定,

上下向黑魚尾: 25.7×17.8cm

판본: 靑雲堂英文藏板

135

經籍纂詁 | 阮元(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琅嬛館館, [嘉慶 4(1779)]

43卷24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3.9×10.1cm, 8行 註雙行,

上黑魚尾: 22.4×13.5cm

표지서명: 經籍纂詁百十六卷

표제지간기: 義徵阮氏琅嬛館館某本

136

經籍舊音 | 吳承仕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冊: 四周單邊

半郭 13.6×10.4cm, 有界, 10行21字,

上下黑口, 上下向黑魚尾: 23.9×14.8cm

판심서명: 音

137

汗簡 | 郭忠恕

筆寫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7卷1冊: 32.9×18.6cm

跋: 庚寅六月所南鄭思肖, 爲山礪藥君, 題汗簡後

제첩: 葉東卿所贈, 金阮堂書

소장인: 葉氏藏書閣本

138

拜經堂叢書 | 臧謙(清) 撰

影印本

京都: 東放仕堂院, 昭和 10(1935)

10冊(2函):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3.9×9.7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18.7×13.0cm

표제지간기: 臧氏藏本同連觀梓

139

平津館叢書 | 孫星衍(清) 輯: 朱記榮(清) 校刊

木板本(中國)

金陵: [刊行者未詳], 嘉慶 20(1815)

74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9×11.0cm, 有界, 11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4.0×15.5cm

간기: 嘉慶十七年太歲壬申正月下泔陽湖孫星衍撰

140

抱經堂叢書

影印本

北京: 直隸書局, 民國 12(1923)

100冊(10函): 四周單邊

半郭 15.0×11.5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19.7×13.2cm

간기: 民國十二年夏五月北京直隸書局影印

141

經學叢書 卷20 | 桂文燦 撰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冊: 四周雙邊

半郭 22.3×15.2cm, 有界, 8行20字,

上下向黑魚尾: 32.2×18.9cm

표지서명: 論語皇疏考證

142

春在堂全書 | 俞樾 著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 掃葉山房: 光緒 23(1886)

32冊(4函):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6×11.5cm, 2段,

上下向黑魚尾: 19.8×12.9cm

143

學海堂叢刻 | 阮元(清) 編

木板本(中國)

廣州：學海堂，光緒 3(1877)

14冊(1函5冊，2函9冊 全2函)：四周雙邊

半郭 17.6×11.1cm，有界，10行21字，

上黑魚尾；25.4×14.9cm

1函 표제지간지：第一函 光緒三年刊

2函 표제지간지：第二函 光緒十二年刊

144

藏修堂叢書 第一集 | 劉讓宗 編次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藏修書屋：[光緒 16(1890) 序]

9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2.5×9.6cm，無界，9行20字，

黑口，上下向黑魚尾；19.1×11.9cm

145

稷香館叢書 | 吳畝 輯

影印本

北平：遼陽吳氏，民國 24(1935)

10冊：四周雙邊，無界，19.8×13.7cm

146

許學叢書 下 | 張炳翔 輯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11冊：四周雙邊

半郭 12.3×9.3cm，有界，9行20字 註雙行，

上下黑口，無魚尾；17.8×11.8cm

147

春雨樓叢書 | 朱士端(清)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12冊(2函)：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6×12.8cm，有界，10行24字，

大黑口，上下向黑魚尾；24.5×16.0cm

148

校訂困學紀聞集證 | 王應麟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嘉慶 16(1811)

20卷8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1×13.5cm，有界，11行25字，

上下向魚尾；26.3×15.1cm

표지서명：校訂困學紀聞王鑑集證

표제지서명：校訂困學紀聞集證合證

149

非物篇 | 五井純禎 著

木板本(日本)

大阪：[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6卷3冊：四周雙邊

半郭 21.1×14.7cm，有界，10行20字，

25.5×17.9cm

150

斥非 | 太宰春臺 著

木板本(日本)

江都：文英閣青竹樓，延享 2(1745)

2冊：左右雙邊 左右單邊

半郭 19.4×13.4cm，有界，9行18字，

上下向黑魚尾，27.0×18.0cm

151

非微 | 中井積善(日) 著

木板本(日本)

大阪：懷德堂，天明 4(1784)

8卷4冊：四周雙邊

半郭 21.0×14.6cm，有界，10行20字，

25.6×17.9cm

152

轉注說 | 狩谷望之 著

新活字

1冊：21.3×14.3cm

153

述學 | 汪中(清) 撰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嘉慶 20(1815) 序]

2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5×12.8cm，有界，13行30字，

上下向魚尾；26.3×15.3cm

史部

1

海東金石存考 | 趙寅永 撰

筆寫本

〔刊寫地未詳〕：趙寅永，〔刊寫年未詳〕

1冊：四周單邊

半郭 18.8×13.8 cm，有界，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24.7×16.7 cm

제정：趙雲石眞蹟，劉燕庭題跋

跋：嘉慶戊寅仲春望日鑄下燕定氏劉喜海跋於嘉蔭移

권수 소장인：嘉蔭移藏書印；趙寅永印；義卿；雲石山人

권말 소장인：燕庭藏書；東武 氏味經書室藏書畫印；

甲寅人：劉；嘉蔭移藏書印；喜海；吉父；

東武

2

海東金石零記 | 翁方綱(清) 編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刊寫年未詳〕

1冊：四周單邊 | 半郭 21.2×14.8cm，11行20字

註雙行，無魚尾：28.3×17.8cm

표지 목기：翁覃谿先生遺藥，道州何氏珍藏，詒懷署編

소장인：道州何氏；道州何氏詒懷

3

海東金石苑 | 劉喜海(清) 著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二銘仲堂，〔高宗 18年(1881) 序〕

4卷4冊：四周雙邊

半郭 17.8×13.8cm，有界，11行21字，

上下向黑魚尾，29.8×18.0cm

서：道光十一年(1831)，-- 朝鮮李惠吉識

4

筠清觀金石錄 | 吳榮光 撰；瞿樹辰 校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道光 22(1842)

5卷5冊：四周雙邊

半郭 18.8×13.5cm，無界，9行21字，

上下向黑魚尾：30.5×18.3cm

표지：道光壬寅南海吳氏校勘

5

金石萃編補略 | 王言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光緒 8(1882)

2卷4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4×13.4cm，有界，10行21字 註雙行，

上下大黑口，上下向黑魚尾：28.7×16.8cm

6

金石契 | 張燕昌 撰

影印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乾隆 43(1778)

4冊：四周單邊

半郭 17.3×14.0cm，無界，16行15字，

上下向黑魚尾：26.7×16.5cm

7

通志堂經解目錄 | 翁方綱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0.6×14.7cm，11行20字，

上下向黑魚尾：27.6×16.7cm

8

通志堂經解目錄 | 翁方綱 著

筆寫本

〔刊寫地未詳〕：〔刊寫者未詳〕，〔嘉慶 5(1800) 寫〕

1冊：11行20字；29.3×17.8cm

제정：汪士鍾舊藏

소장인：汪士鍾印

9

皇清經解檢目錄要 | 蔡啓盛(清) 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光緒 12(1886)

8卷2冊：四周雙邊

半郭 18.3×13.1cm，有界，14行2段，

上下向黑魚尾：23.7×15.5cm

표지 서명：皇清經解檢目

10

皇清經提要 | 沈豫著

影印本

〔刊行地未詳〕：懷初堂，道光 17(1837)

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3.3×8.1cm，無界，11行24字，大黑口，

上黑魚尾：22.2×13.4cm

관심서명：皇清經解提要

序：道光十七年，-- 蕭山 沈豫識于漢讀齋之北園

11

雷塘庵主弟子記 | 張鑑 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4卷1冊：四周雙邊

半郭 17.9×13.4cm，有界，14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25.9×16.0 cm

표지 목기：咸豐甲寅(1854)初夏，蕩學人識

소장인：蕩軒，海鄰書室

12

雷塘庵主弟子記 | 張鑑 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8卷2冊: 四周雙邊

半郭 17.9×13.4cm, 有界, 14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5.9×16.0cm

13

王復齋鐘鼎款識 | 阮元(清) 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嘉慶 7(1802)

1冊: 四周單邊

半郭 34.0×22.3cm, 行字數不定,

無魚尾: 56.0×26.8cm

註지서명: 鐘鼎款識

관심서명: 王復齋鐘鼎款識

관심간기: 精古齋藏宋榻摹刊

14

經學歷史 | 皮錫瑞 著

影印本

[刊行地未詳]: 商務印書館, 民國 14(1925)

2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3.7×10.1cm, 有界, 12行25字,

上下向黑魚尾: 19.9×13.2cm

15

書目答問補正 | 范希曾 編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國學圖書館, [刊行年未詳]

5卷2冊: 四周單邊

半郭 19.7×13.7cm, 無界, 行字數不定,

上下向黑魚尾: 26.4×17.3cm

16

阮堂尺墨 | 金正喜 書

拓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冊: 肖像

註지서명: 阮堂書法說

識: 丁丑重陽日門生許鍊小庭謹識

17

宋元學案 | 黃宗義(明) 撰: 全祖望(清) 修定

石版本(中國)

上海: 中華書局, [民國 25(1936)]

100卷34冊: 四周單邊

半郭 14.9×10.7cm, 有界, 17行26字,

上下向黑魚尾: 20.7×13.2cm

관심간기: 中華書局聚, 珍微宋版印

18

源平盛衰記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2冊(卷21-22, 45-46): 四周雙邊

半郭 22.2×17.0cm, 無界, 12行2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6.1×18.9cm

19

校史隨筆 | 張元濟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商務印書館, 民國 28(1939)

2冊: 四周雙邊

半郭 17.3×11.3cm, 有界, 11行30字,

上下向黑魚尾: 26.7×15.2cm

20

石經校勘記 | 阮元(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七錄書閣, [刊行年未詳]

4卷2冊: 四周雙邊

半郭 18.2×14.0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黑魚尾: 27.2×16.6cm

표지서명: 儀禮石經校勘記

21

孔子門人考 | 朱彝尊(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光緒 22(1896)]

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9×12.2cm, 有界, 10行21字,

黑口, 內向黑魚尾: 26.0×15.0cm

22

孔子履歷考 | 角田簡 著

木板本(日本)

浪華: 松根堂, 嘉永 2(1849)

2冊: 四周單邊

半郭 17×13.6cm, 有界, 10行20字,

黑口, 黑魚尾: 17×13.6cm

23

欽定四庫全書簡明目錄

木板本(日本)

京都: 善成堂, [刊行年未詳]

20卷10冊: 四周雙邊

半郭 10.5×7.7cm, 有界, 9行20字,

無魚尾: 14.3×8.8cm

24

漢石例 | 劉寶楠(清)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同治 8(1869) 序]

6卷2冊: 四周單邊

半郭 20.2×12.3cm, 有界, 12行28字,

上下向黑魚尾: 29.8×17.6cm

25

歷代石經考 | 張國淦 編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燕京大學國學研究所, 民國 19(1930)

3冊: 四周單邊

半郭 18.2×12.3cm, 有界, 12行32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7.0×15.2cm

26

漢石經考異補正 | 瞿中溶(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2卷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0×12.0cm, 有界, 11行23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29.1×17.3cm

총서명: 通園叢書(民國 3年, 烏程張氏刊本)

27

商周文字拾遺 | 吳東發 釋註

影印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923]

2卷1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0×10.3cm, 7行16字

註雙行: 26.4×15.4cm

28

殷契佚存 | 商承祚 著

影印本

東京: 松雲堂書局, 昭和 41(1966)

2冊: 四周單邊

半郭 20.6×15.4cm, 無界, 無魚尾:

24.9×17.6cm

판본: 民國22年(1933),

金陵大學中國文化研究所石印本影印

29

經學歷史 | 皮錫瑞(清) 著 | 小島祐(日) 點

鉛活字本

京都: 叢文堂, 大正 6(1917)

1冊: 四周雙邊

半郭 16.3×10.5cm, 無界,

12行26字: 23.7×15.1cm

30

京師五城坊巷衢衛集 | 張爵 纂 | 劉承軒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求恕齋, [嘉靖 39(1560) 序]

1冊: 四周單邊

半郭 13.7×10.6cm, 有界, 10行21字,

黑口, 上下向黑魚尾: 23.9×15.2cm

표제지서명: 京師五城坊巷胡同集

표제지간기: 南林劉氏求恕齋刊

31

十七史商榷 | 王鳴盛 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乾隆 52(1787)]

100卷16冊: 四周雙邊

半郭 18.9×13.4cm, 有界, 10行20字,

無魚尾: 27.9×17.0cm

판본: 洞經神堂藏版

32

風俗通 | 應劭 著

影印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萬治 3(1666)

10卷1冊: 四周單邊

半郭 20.7×12.3cm, 無界, 9行25字,

無魚尾: 25.3×18.4cm

권말간기: 萬治三曆仲夏吉日

33

通俗編 | 翟灝(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無不宜齋, 乾隆 16(1751)

38卷12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8×12.5cm, 有界, 12行22字,

上下向黑魚尾: 24.5×15.8cm

34

舊聞小錄 | 太田才次郎 著

新活字本

東京: 三陽堂, 昭和 14(1939)

2卷2冊: 四周雙邊

半郭 17.4×11.4cm, 無界, 14行29字,

上下向黑魚尾: 22.7×15.1cm

35

本朝孝子傳 下卷 | 藤井懶齋 著

木板本(日本)

東京: 西村孫右衛門, 貞享 3(1688)

1冊: 四周單邊

半郭 22.3×16.1cm, 版畫, 無界, 9行18字,

上下向黑魚尾: 27.4×18cm

36

叢書堂所藏殷墟文字 | 王國維 著

複製本

東京：無窮會，昭和 41(1966)

2冊：四周單邊

半郭 22.9×17cm，寫真，無界，版畫，34.5×17cm

37

支那古代家族 | 加藤常賢 著

油印本

3冊：14行29字，26.5×18.9cm

38

標註國語定本 | 左丘明(周) 著；

韋昭解(吳)；秦鼎(日) 定本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嵩山堂，文化 6(1809)

21卷6冊：四周單邊

半郭 23.2×16.2cm，有界，10行20字，

黑魚尾：25.7×18cm

39

標註國語定本 | 左丘明(周) 著；

韋昭解(吳)；秦鼎(日) 定本

木板本(日本)

浪華：群玉堂，文政 6(1823)

21卷6冊：四周單邊

半郭 22.3×14.6cm，有界，10行20字，

上下向黑魚尾：25.1×17.1cm

40

讀國語 | 藍澤紙 著，手島敬直 寫

筆寫本

[刊行地未詳]：手島敬直，安政 4(1857)

1冊：四周雙邊

半郭 18.7×14.2cm，有界，15行24字，

黑魚尾：24.2×16.7cm

41

顏氏家訓 | 顏之推 撰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寛文 2(1662)

2卷1冊：四周單邊

半郭 18.2×12.8cm，無界，10行20字，26.7×19cm

42

補標史記評林 | 凌稚隆(明) 輯校；

有井範平(日) 補標

鉛活字本(日本)

東京：九春堂，明治 20(1887)

130卷28冊：四周雙邊

半郭 21.6×15.6cm，有界，13行28字，

上下向黑魚尾：26×18cm

43

儒教の特質 | 服部宇之吉 著

新活字本

1冊：21.9×14.5cm

早考：日本近世儒教史論 | 牧野謙次郎 著

44

箋注十八史略校本 | 曾先之(元) 編；

近藤元粹(日) 註

木板本(日本)

大阪：明善堂，明治 13(1880) | 7卷7冊：四周單邊

半郭 22.4×18.5cm，地圖，有界，9行22字，26.4×18.5cm

45

物夫子著述書日記 | 服元喬 著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寶曆 3(1753)

1冊：四周單邊

半郭 19.7×14.6cm，有界，10行20字，

上下向黑魚尾：26.3×17.9cm

관심서명：書日記

46

大清三朝史略 | 韓伯經 略次

木板本(日本)

江戸：須原屋茂兵衛，寛政 11(1779)

2卷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9×14.8cm，有界，9行22字

註雙行，26.7×18.2cm

47

增補齊省堂全圖儒林外史 | 吳敬梓(清) 編

石版本(中國)

上海：受古書店，民國 16(1927)

6卷6冊：四周單邊

半郭 16.8×12.0cm，無界，16行34字，

20.2×13.4cm

표지서명：全圖儒林外史

관심서명：儒林外史

48

積古齋鍾鼎彝器款識 | 阮元(清) 編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光緒 5(1879) 跋]

4冊：四周雙邊

半郭 16.8×11.7cm，有界，18行28字，

上下向黑魚尾：20.1×13.2cm

표지서명：擘經室藏本存古齋石印

49

八史經籍志 | 班古(漢)；顏師古(唐) 註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光緒 9(1883) 序]

27卷17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1.9×15.1cm，有界，10行21字，

上下向黑魚尾：26.4×17.6cm

50

前後漢書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崇禎 15(1642)

120卷24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1.5×15.0cm，有界，12行25字，

上下向黑魚尾：25.6×16.3cm

판본：汲古閣藏板

간기：皇明崇禎十有五年，一一 琴川毛氏開雕

합철：前漢書 | 班固(漢)撰：顏士古(古)注，後漢書 |

范曄(宋)撰：李賢(唐)注

51

史記志疑 | 梁玉繩(清)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36卷10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8×13.3cm，有界，12行24字，

上下向黑魚尾：28.2×18.1cm

52

從考古學上觀察中日古文化之關係 |

原田淑人(日)講稿：錢稻孫 譯述

新活字

1冊：25.9×14.8 cm

53

抱經樓藏書志 | 沈德壽(清)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光緒 32(1906) 序]

32卷8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9×13.9cm，11行22字，

上下向黑魚尾：28.6×18.0cm

54

史記仲尼弟子列傳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嘉慶 8(1803)

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3×12.7cm，10行22字，

上下向黑魚尾：25.1×16.1cm

표제지서명：弟子列傳考

55

東觀漢記 | 劉珍等撰

木板本(中國)

上海：掃葉山房，[刊行年未詳]

4冊：四周雙邊

半郭 20.7×14.8cm，有界，12行25字，

上下向黑魚尾：27.4×17.3cm

판본：武英殿聚珍板原本

소장인：金命喜印

56

長安獲古編 | 劉喜海(清)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2卷2冊：四周單邊

半郭 20.7×14.6cm，

上下向黑魚尾：28.0×18.0cm

제정：吳清卿所贈，林溫卿書，有清卿題記

표제지목기：同治壬申冬寄贈，

溫卿侍郎此劉燕庭方伯未成之書，

當時即本之流傳不廣，金石家或未之見也，

소장인：吳清卿所藏印

57

釋親考 | 伊藤長胤(日)著：安原貞平(日)校

筆寫本

東都：昌平橋邸，享保 7(1722)

1冊：四周無邊，無界，8行18字，27.0×17.8cm

58

東塾讀書記 | 陳澧撰

石版本(中國)

上海：掃葉山房，民國 23(1934)

25卷6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6.4×12.0cm，有界，14行28字，

上下黑口，上下向黑魚尾，19.9×13.2cm

59

雜圖 | 丸山晴明 輯

木板本(日本)

東都：[刊行者未詳]，安永 3(1774)

2冊：四周單邊

半郭 22.2×17.0cm，有界，

上下向黑魚尾：27.3×18.6cm

60

孔門弟子傳略 | 夏洪基 編：夏之芳 重校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向日園，道光 9(1829)

2卷2冊：上下單邊

半郭 19.8×13.5cm，有界，9行21字，24.4×15.5cm

61

蛾術編 | 王鳴盛(清)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世楷堂，道光 21(1841)

82卷20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5×13.0cm，有界，10行21字，

上下向黑魚尾：24.2×15.7cm

62

金愚巖小傳 | 翁方綱 撰

拓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嘉慶 10(1805)

1帖：5行11字：27.5×14.8cm

子部

1

稱謂錄 | 梁章鉅(清) 撰 | 男恭辰 校刊
影印本

杭省：景文齋，光緒 10(1884)

8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3×15.3cm，有界，9行21字。

上下向黑魚尾：25.4×15.38cm

2

陶山文錄 | 唐仲冕(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道光 2(1822)

6冊(文錄 8卷5冊，詩錄26-28卷)：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5×13.4cm，有界，10行21字 註雙行。

上下大黑口，上下向黑魚尾：24.5×15.3cm

간기：音聲樹聽事梓

3

朱子不廢古訓說 | 李根五 著
油印本

[刊行地未詳]：四謙堂，道光 23(1843)

10冊：10行24字，27.8×19.1cm

附註：朱注引用文獻考略

4

世說箋本 | 泰士鉉 校讀
木板本(日本)

大阪：群玉堂，[刊行年未詳]

20卷10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2.0×13.9cm，有界，10行18字，25.6×18.0cm

5

吳子副註 | 一齋佐藤 著
木板本(日本)

東都：名山閣，[刊行年未詳]

1冊：四周單邊

半郭 18.3×15.5cm，有界，8行18字。

黑口，黑魚尾：26.0×18.0cm

6

錢蘇齋述學 | 錢文滄 撰
木板本(中國)

蘇州：仁壽堂，[民國 13(1924) 序]

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3×11.1cm，有界，9行21字。

上下向黑魚尾：25.5×14.1cm

7

莊子集解 | 王先謙(清) 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思賢書局，宣統 1(1909)

8卷3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8×13.3cm，有界，11行24字 註雙行。

下黑口，上下向黑魚尾：26.1×15.1cm

8

莊子札記 | 馬敘倫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1冊(卷8-22)：四周雙邊

半郭 19.8×15.0cm，無界，13行40字。

下黑口，上下向黑魚尾：26.0×15.0cm

9

莊子義證 | 馬錢倫 著

鉛活字本

上海：商務印書館，1930

33卷6冊：四周雙邊

半郭 16.1×11.2cm，無界，12行33字，

上下黑口，無魚尾；26.7×15.2cm

10

郭註莊子嚴玄 | 杜多秀峯 疏

木板本(日本)

京都：植村藤右衛門，文化 1(1804)

12卷6冊：四周單邊

半郭 21.0×15.7cm，有界，11行20字，

上下向黑魚尾；26.4×17.8cm

註釋：王枝軒藏

11

莊子記聞

筆寫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1冊：四周單邊

半郭 19.0×13.2cm，

上下向黑魚尾；22.5×15.8cm

12

莊子雪 | 莊周 著；陸樹芝 註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3卷6冊：四周雙邊，

有界，11行22字，

上下向黑魚尾；24.7×15.2cm

冊本：文選樓藏板

13

老子集解 | 奚侗 集解

活字本(中國)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民國 14(1925) 序]

2卷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7×12.0cm，有界，9行19字，

上下黑口，上下向黑魚尾；25.9×14.8cm

14

標註補義莊子因 | 林雲銘 評述；

泰曲補義(日)，東條保(日) 標註

影印本

[刊行地未詳]：崑山堂，[刊行年未詳]

6冊

註釋：王枝軒藏

冊本：崑山堂藏板

15

鐫解 | 蔡思(漢) 著；程榮(明) 校

影印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2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7×14.1cm，有界，9行20字，

上下向黑魚尾；26.9×17.5 cm

冊本：忠經 | 馬融(漢) 撰；鄭玄(漢) 註；程榮(明) 校

16

讀諸子札記 | 陶鴻慶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文學同盟社，[刊行年未詳]

2冊：四周單邊

半郭 16.3×10.7cm，無界，12行31字，

黑口，上下向黑魚尾；27.6×14.9cm

17

荀子 | 楊倞 注；王先謙(清) 集解

石版本(中國)

[刊行地未詳]：思賢講舍，光緒 17(1891)

20卷8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1.3×8.6cm，有界，11行24字，

大黑口，上下向黑魚尾；14.7×9.7cm

註釋：荀子集解

18

荀子補遺 | 豬岡彥博 著

木板本(日本)

平安：永玉堂，文政 13(1830)

1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0.2×14.6cm，有界，9行20字，

黑魚尾，25.9×17.9cm

19

荀子辨解 | 藤成繁子亮 著

石版本(日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嘉永 3(1850)

20卷10冊：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4×14.7cm，有界，10行20字，

上下向黑魚尾；26.4×19.5cm

冊本：純德堂藏板

20

楚辭 | 朱子 註

石版本(中國)

上海：掃葉山房，民國 3(1914)

4冊：左右雙邊 左右單邊

半郭 16.2×11.4cm，有界，11行20字，

上下黑口，內向黑魚尾，19.8×13.2cm

冊本：楚辭後語，楚辭辯證

21

孫子折衷 | 平山啓 輯

木板本(日本)

東京：司命館，明治 17(1884)

3冊：四周雙邊

半郭 21.2×12.4cm，有界，10行17字，

上下向黑魚尾：23.1×15.3cm

22

孫子副註 | 一齋佐藤 著

木板本(日本)

東都：名山閣，[刊行年未詳]

1冊：四周單邊

半郭 18.3×15.5cm，有界，8行18字，

黑口，黑魚尾：26.0×18.0cm

판본：東都書林名山閣藏板

23

孫子詳解 | 伊藤大三郎 著

木板本(日本)

京都：勝村治右衛門，文久 2(1862)

13卷13冊：四周單邊

半郭 19.8×15.7cm，有界，10行22字，

黑口，黑魚尾：26.0×18.2cm

註釋：學半樓藏

24

孫子新釋 | 藤塚鄰，森西洲 共著

新活字

東京：弘道館，昭和 18(1885)

1冊：四周單邊

半郭 16.8×11.2cm，無界，

21.0×15.2cm

25

文筌小言 | 服元商 著

木板本(日本)

江戸：文刻堂，享保 19(1734)

1冊：四周單邊

半郭 13.8×10.3cm，有界，

20.0×13.5cm

표지서명：南郭先生文筌小言

26

傅子 | 傅元(晉) 撰；紀昀 等校；千葉要(日) 增考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玉淵館，文政 4(1821)

1冊：四周雙邊

半郭 18.1×13.2cm，有界，

10行23字，25.5×18.2cm

27

俗語釋義 | 留守友信 編輯

筆寫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延享 5(1748) 序]

1冊：23.5×16.1cm

28

玉山講義 | 朱熹 著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壽文堂，[寛文 12(1672) 序]

3冊：四周單邊

半郭 19.1×15.0cm，無界，8行16字，

大黑口，花紋魚尾：27.5×18.3cm

합철：玉講附錄

29

世事百談 | 山崎美成 著

木板本(日本)

東都：青雲堂，天保 14(1843)

4卷2冊：四周單邊

半郭 19.3×15.0cm，無界，

行字數不定，25.8×17.7cm

30

米庵墨談 | 市河米庵 著

木板本(日本)

江戸：須源屋伊八，[文政 10(1827) 續編序]

6卷6冊(목담 3권3책，속편 3권3책)：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8.1×12.6cm，有界，

10行22字，22.7×15.0cm

표지서명：米庵墨談

합철：墨談續編

31

補註續文章軌範校本 | 鄧守益(明) 撰；奥田遵

補註

木板本(日本)

東京：萬青堂，明治 12(1879)

1冊：四周單邊

半郭 19.3×13.6cm，有界，10行18字，23.4×15.6cm

32

韓非子全書 | 藤澤南岳 校疏

木板本(日本)

大阪：青木恒三郎，[刊行年未詳]

20卷10冊：四周單邊

半郭 22.1×15.6cm，有界，11行22字，

黑口，黑魚尾，25.8×18.3cm

표지서명：釋評韓非子全書

판심서명：釋評韓非子

판본：浪華菴山堂藏板

33

韓非子集解 | 王先謙 撰

木板本(中國)

長沙：[刊行者未詳]，光緒 22(1896)

20卷6冊：左右雙邊 左右單邊

半郭 17.6×13.4cm，有界，11行24字，

上下大黑口，上下向黑魚尾，26.8×15.2cm

34

說苑考 | 桃源藏子深 著

木板本(日本)

大阪：青木恒三郎，[刊行年未詳]

2冊：四周雙邊

半郭 19.8×14.4cm，有界，9行17字，

上下向黑魚尾，25.5×18.1cm

35

學的 | 丘濬 輯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2冊：四周雙邊

半郭 19.8×12.9cm，有界，8行16字，

黑口，黑魚尾，26.8×16.6cm

표지서명：朱子學的

36

楊子法言 | 司馬光(宋)集註，桃源藏子深(日)增註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文海堂，明治 13(1882)

10卷4冊：左右雙邊 左右單邊

半郭 23×15.4cm，有界，8行16字，

黑魚尾，25.5×18.2cm

37

墨子閒詁 | 孫詒讓 編

木板本(中國)

蘇州：[刊行年未詳]，光緒 2(1876)

19卷8冊：左右雙邊 左右單邊

半郭 19.0×14.5cm，有界，11行23字，

上下大黑口，內向黑魚尾，28.1×17.6cm

38

完白山人印譜 | 鄧石如(清)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西泠印社，同治12(1873)

2冊：四周單邊

半郭 12.2×9.5cm，有界，

肖像，8行13字，29.7×13.2cm

39

傅子 | 傅元(晉)撰：紀昀 等校：

千葉要(日)增考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玉淵館，文政 4(1821)

1冊：四周雙邊

半郭 18.1×13.2cm，有界，

10行23字，25.5×18.2cm

40

方言箋疏 | 郭璞(晉)撰：錢繹(清) 注

影印本

[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刊行年未詳]

13卷8冊：四周無邊，

無界，9行24字，24.7×16.0cm

41

文始 | 章炳麟 著

影印本

1冊：四周雙邊

半郭 19.0×13.7cm，有界，12行字數不定，27.3×15.5cm

관심서명：文

集部

1

雪橋詩話 | 楊鍾義 集, 劉承幹 校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求恕齋, [刊行年未詳]

40冊(詩話 12卷12冊, 餘集 8卷8冊,

三集 12卷12冊, 續集 8卷8冊): 四周單邊

半郭 13.4×10.6 cm, 有界, 10行21字,

上下向黑魚尾, 22.7×14.0 cm

2

儀衛軒詩集 | 方植之 著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5卷2冊: 四周雙邊

半郭 17.4×12.9cm, 有界, 11行21字,

上下向黑魚尾, 24.3×14.9cm

간기: 同治戊辰六月李鴻章署檢

3

丁亥詩抄 | 王念孫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冊: 四周單邊, 有界, 10行24字, 上下向黑魚尾

관심서명: 詩抄

4

梧窓漫筆 | 大田錦城 著

木板本(日本)

東都: 玉巖堂, [天保 10(1839) 序]

3卷3冊: 四周無邊, 無界, 25.8×18.0cm

5

梧窓漫筆 | 大田錦城 著

木板本(日本)

東都: 玉巖堂, [文政 6(1823) 序]

17冊: 四周單邊

半郭 19.8×14.9cm, 有界, 25.8×18.0cm

6

梧窓漫筆後編 | 大田錦城 著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文政 7(1824) 序]

1冊, 25.7×17.9cm

7

嘯雅 | 長井江祐 著

鉛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大正 9(1920) 序]

1冊(上卷): 四周雙邊

半郭 18.1×12.3cm, 有界,

上下向黑魚尾, 26.5×15.8cm

8

春臺先生紫芝園稿 | 太宰彌右衛門 著

木板本(日本)

大阪: 澁川清右衛門, 寶歷 2(1752)

12冊: 四周雙邊

半郭 20.2×13.9cm, 有界, 9行20字,

黑魚尾, 27.5×18.3cm

관심서명: 春臺先生文集

9

寧固軒小草 | 渡貫勇 著

鉛活字本

東京: 開明堂, 昭和 11(1936)

1冊: 四周單邊

半郭 18.0×13.1cm, 寫眞, 有界, 12行25字,

黑口, 內向黑魚尾, 26.0×15.1cm

10

古文眞寶 | 黃堅(宋) 編

筆寫本

[刊寫地未詳]: 益德, 庸德, 文政 11(1828)

2冊: 四周無邊, 無界, 27.2×19.2cm

관말목서: 文政十一戊子年霜月寫之, 益德, 庸德

11

梧坡教諭 | 荒井堯民 著

木板本(日本)

東都: 和泉屋金石衛門, 文政 7(1824)

2冊: 四周單邊

半郭 20.2×15.4cm, 無界, 26.0×18.0 cm

12

擁書漫筆 | 高田興清 著

木板本(日本)

東都: 角丸屋基助, 文化 13(1816)

4卷5冊: 四周單邊

半郭 20.0×14.0cm, 無界, 26.0×18.0cm

13

漁魚山觀集 | 鄭丙朝 著

鉛活字本

京城: [刊行者未詳], 昭和 16(1941)

4卷4冊: 四周雙邊,

半郭 17.8×11.8cm, 無界, 14行28字,

黑口, 黑魚尾, 23.3×15.0cm

14

三餘偶筆 | 左面春谷 著

木板本

京都: 勝村次右衛門, 天保 12(1841)

16卷8冊: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2.5×9.1cm, 有界, 9行20字,

大黑口, 黑魚尾, 18.3×12.0cm

관본: 嘉慶十六年(1811), 桂林書屋藏板

15

阮堂尺牘 | 金正喜 著

金屬活字本(全史字)

[刊行地未詳] | 南庚吉, 高宗 4(1867)

1冊(上卷) | 四周單邊

半郭 21.4×15.7cm, 有界, 10行20字,

上下向白魚尾, 29.8×19.2cm

16

標註唐宋八大家文讀本 | 蘇洵 著 ;

沈德潛 評撰 ; 雲谷任齋 標註

木板本(日本)

大阪 : 東屋堂, 明治 15(1882)

14卷7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5.9×10.6cm, 無界, 9行22字,

黑魚尾, 18.1×12.4cm

17

標註唐宋八大家文讀本 | 蘇洵 著 ;

沈德潛 評撰 ; 雲谷任齋 標註

木板本(日本)

大阪 : 東屋堂, 明治 15(1882)

16卷8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5.9×10.6cm, 無界, 9行22字,

黑魚尾, 18.1×12.4cm

18

八家四六文注 | 孫星衍(清) 著 ; 許貞幹(清) 注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光緒 17(1891)

8卷16冊 : 四周雙邊

半郭 17.9×12.1cm, 有界, 11行23字,

上下黑口, 上下向黑魚尾, 27.5×17.9cm

소장인 : 味青齋

19

仿宋孫批胡刻文選 | 蕭統(梁) 撰, 李善(唐) 等 註
石版本(中國)

上海 : 錦章圖書局, [刊行年未詳] | 60卷8冊 : 四周雙邊

半郭 16.1×12.2cm, 有界, 17行字數不定,

上下黑口, 上下向黑魚尾, 20.4×13.6cm

간기 : 宋淳熙本重雕, 陽胡氏藏板

20

六臣註文選 | 蕭統(梁) 撰, 李善(唐) 等 註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29卷30冊 : 四周單邊

半郭 21.7×17.2cm, 無界, 9行20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7.2×19.7cm

21

西廂記 | 監谷溫 譯

新活字

東京 : 昌平公司, 昭和 22(1947) | 1冊 : 14.9 20.9cm

22

西廂記 | 卽空觀主人 鑑定 ; 夢鳳樓, 暖紅室 刊校

影印本

東京 : 文求堂書局, [刊行年未詳]

4冊 : 四周單邊 | 半郭 15.0 9.6cm, 版畫, 有界, 9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19.8 13.3cm

간지서명 : 影印原本西廂記

早号 : 元人圍棋閣局, 卽空觀主五本解證, 閏週五五刺箋疑

23

三家詩補遺 | 阮元(清) 撰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崇惠堂, [刊行年未詳]

1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7.2 12.6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黑口 上下向黑魚尾 : 25.9 15.2cm | 跋 : 長沙歐陽熙緒刊

24

韓詩外傳 | 韓嬰(漢) 著, 程榮 校

木板本(中國)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0卷3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0.0 13.8cm, 有界, 9行20字,

上下向黑魚尾, 26.0 16.3cm

25

韓詩外傳 | 韓嬰(前漢) 著 ; 烏宗成(日) 校

木板本(日本)

攝陽 : 星文堂, [刊行年未詳]

4卷2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19.6 15.5cm, 有界, 16行20字,

上下向黑魚尾 : 27.0 18.2cm

26

杜詩鏡銓 | 杜甫(唐) 撰, 楊倫(清) 注

石版本(中國)

上海 : 文化書局, 1928

20卷8冊 : 四周雙邊

半郭 15.5 11.2cm, 無界, 12行26字,

上下向黑魚尾, 20.0 13.4cm

간지서명 : 楊輯杜詩鏡銓

27

祖徠集 | 茂茂卿 著

木板本(日本)

[刊行地未詳] | 松本善兵衛, [刊行年未詳]

16冊 : 左右雙邊 上下單邊

半郭 20.7 15.5cm, 有界, 10行20字,

黑口, 黑魚尾 : 27.1 18.0cm

수록 도판

I

- 김정희 〈두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모음〉, 1827~1830년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7년, 22×47.5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연대 미상, 22×46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8년, 22×46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연대 미상, 22×47.5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8년, 22×47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8년, 22×44.5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8년, 22×44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8년, 22×46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연대 미상, 22×45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8년, 22×47.5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28년, 22×47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연대 미상, 22×46cm
 김정희 〈두 동생에게〉, 1830년, 22×22cm
 김정희 〈교상의 우산에게〉, 과천시절, 28×54cm
 김정희 〈중추부사 우산에게〉, 1852년, 24.5×77cm
 김정희 〈우산에게〉, 과천시절, 23×42cm
 양종희(楊鍾羲) 〈추사 작품에 대한 발문〉, 1834년, 29×9cm
 김정희 〈우산에게 추사〉, 과천시절, 22×40cm
 김정희 〈북한산순수비 발문〉, 1815~1816년, 73.5×16.5cm
 이한묵 〈추사동구도시〉 임모, 1940년, 22×324cm
 김정희 〈김항진(金恒進)〉, 제주시절, 22×38cm
 김정희 〈일입자(一笠子)〉, 제주시절, 23×30cm
 김정희 〈항진〉, 제주시절, 22×14.5cm
 김정희 〈권문인과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 모음〉, 과천시절
 김정희 〈권문인에게〉, 과천시절, 27.5×97cm
 김정희 〈민태호에게〉, 과천시절, 24×38.5cm
 김정희 〈민태호에게〉, 과천시절, 24.5×37.5cm
 김정희 〈민태호에게〉, 과천시절, 22×39cm
 김정희 〈민태호에게〉, 과천시절, 24×93.5cm
 김정희 〈민태호에게〉, 1855년, 24×75.5cm
 〈새한도〉 인쇄본, 1939년, 27×111cm
 김정희 〈사시표에 대하여〉(사진), 연대 미상, 54×15.5cm
 동기창 작품과 추사의 발문(사진), 1854년, 54×18cm

II

- 이상적(李尙迪), 신기집의 「축정대근(祝英臺近)」, 연대 미상, 31.5×74cm
 변원규(卞元圭) 〈축시〉, 1853년, 29×46cm
 변원규 〈축시〉, 24×49cm
 박규수(朴珪壽) 〈편지〉, 1867년, 34×50cm
 이한묵(李漢謨) 〈소영은(小靈隱)〉, 1930년대, 8.5×22.5cm
 오송량(吳叢梁) 〈첩연시〉, 1824년, 107×30cm
 이정옥(李璣渙) 〈김명희에게〉, 1823년, 29×120cm
 이정옥 〈김산신에게〉, 연대 미상, 30×78cm
 상중(尙中) 〈김명희에게〉, 연대 미상, 28×84cm
 양동유(楊東有) 〈이상적에게〉, 1842년, 25×17cm
 주당(周堂) 〈이상적에게〉, 1853년, 25×30cm
 여원(余垣) 〈이상적에게〉, 1830년, 28×29cm
 왕희순(汪華淳) 〈추사에게〉, 1839년, 27×175cm
 윤수근(尹樹根) 〈대편〉(일부), 연대 미상, 90×15cm
 동문환(董文煥)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18.5×9cm
 장병염(張丙炎)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14.5×23cm
 황운곡(黃雲鶴)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24cm
 장병염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12cm
 정몽(正蒙) 〈김익문에〉, 연대 미상, 23×13cm
 동문환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12cm
 민청의(閔靑龜)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5×12cm
 동문환 〈김취동에게〉, 연대 미상, 23×12cm
 명정숙(名正肅) 〈편지〉, 연대 미상, 11×25cm
 황운곡, 김익문과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 곁봉
 (49의 곁봉으로 추정됨), 연대 미상, 23×12cm
 장병염, 김취동에게 보낸 편지 곁봉
 (48의 봉투로 추정됨), 연대 미상, 23×12cm
 원보강(袁保恒) 〈김익문에〉, 연대 미상, 23×12cm
 원보강, 문근에게 보낸 쪽지(58의 추신으로 보임), 연대 미상, 23 12cm
 장목(張穆) 〈유사에게〉, 연대 미상, 22×21cm
 이정옥 〈김명희에게〉, 연대 미상, 23×59cm
 장희중의 〈화산루도기(畫山樓圖記)〉와
 진수옹의 〈화산루도서(畫山樓圖序)〉, 연대 미상, 23.5×58cm
 유식(劉執) 〈국회도〉, 1829년, 82×38cm

공현이(孔憲祥)《침전집구 3수》, 연대 미상, 17×51cm
 이장욱『노상신공묘후비(魯相眞孔廟後碑)』(일부),
 1827년, 17.5×46.5cm
 구운(具雲)《금주상사인(琴譜相引)》, 연대 미상, 15×50cm
 장도욱(張道旭)《오연물시 2수》, 연대 미상, 16×49.5cm
 하추도(何秋濤)《제(題) 조선강재산수도》, 연대 미상, 18×54cm
 응동서(翁同龢)《구작(舊作) 2수》, 1848년, 17.5×52cm
 이당(理堂)과 여원(汝園)『모우상곡서(冒雨尊菊序)』(일부),
 「어옹(漁翁)」, 연대 미상, 17×38.5cm
 알잠(遼齋)《산수도》, 연대 미상, 15×50cm
 강개(康階)《산수도》, 1801년, 17×45cm
 조강(曹江)《오연물구》 외, 연대 미상, 17×45cm
 육경훈(陸慶勳)《산수도》, 1798년, 15×44cm
 전동원(錢東源)『서악화산묘비(西嶽華山廟碑)』(일부),
 연대 미상, 16×47.5cm
 왕조가(王肇嘉)《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志論)」(일부)》,
 연대 미상, 48×15.5cm

III

숙친왕(肅親王), 《주경현(朱鼎玄)의 「숙신안촌보(宿新安村步)」》,
 연대 미상, 138×35cm
 나진옥(羅振玉)《금문(金文)」, 연대 미상, 131×31cm
 양종취(楊鍾凱)《황산곡(黃山谷)의
 「제왕황주목적후(國王黃州墨跡後)」》, 연대 미상, 98×32cm
 등이침(鄭以察)《6연 대현》, 연대 미상, 각 128×20cm
 후지츠카 치카시 《두보의 사구》, 연대 미상, 138×34cm
 주학년(朱鶴年)《유득공시의도(柳得恭詩意圖)》(사진),
 1810년, 26.5×50cm
 후지츠카 치카시가 《경성일보에 기고한 글, 1939년
 원원과 왕행자의 《경성합벽(經城合璧)》(사진), 연대 미상, 19×51cm
 담인(唐寅)의 《동파입도(東坡立陂圖)》(사진), 51×18cm
 후지츠카 치카시, 인보집 『망한라인상(望漢臺印象)』,
 연대 미상, 15×7.5cm
 허련의 《원당소상(阮堂小像)》(사진), 1877년, 28×23.5cm
 안중식의 《원당생생 소상(小像)》(사진), 1909년(그림)
 1917년(글씨), 22.5×24.5cm
 〈판진〉 원관(사진), 1866년, 10×28.5cm
 장택상(張澤相)《후지츠카에배》, 연대 미상, 23×12.5cm
 추사 묘소(사진), 1930년대로 추정, 12.5×19cm
 추사 고택(사진), 1930년대로 추정, 12.5×19cm
 도산서원을 찾은 후지츠카 일행(사진), 1930년, 11.5×16cm
 이한철의 《원당 초상》(사진), 1857년, 51×25cm
 후지츠카 치카시, 「일(日) · 신(新) · 청(淸)의 문화교류」, 1947년
 후지츠카 치카시, 「논어충실, 「논어의 미덕(味德)」, 1949년
 후지츠카 아카노미 편, 「청조명화 동전(東傳)의 연구」, 1975년
 후지츠카 치카시, 「김원당의 입연(入燕)」과 「김원당의 청초 문화, 원고
 후지츠카 치카시」가 여러 학회지와 잡지에 쓴 원고의 발췌본들

IV

조인명『해동금석존고(海東金石存考)』, 1책, 연대 미상, 26×18cm
 몽방강『해동금석영기(海東金石零記)』, 1책, 연대 미상, 29×19cm
 완원 편『황청경해(皇淸經解)』, 1책, 1829년, 26×16cm
 광충선 편『한간(汗簡)』, 3책, 연대 미상, 33×19.5cm
 「주역집해(周易集解)」, 9책, 연대 미상, 30×18.5cm
 유희해 편『해동금석원(海東金石畧)』, 4책, 1881년, 30×19cm
 세계성 편『황청경해목록(皇淸經解精目)』, 1책, 연대 미상, 23.5×16.5cm
 몽방강 편『통지당경해목록(通志堂經解目錄)』, 필사본 1책,
 연대 미상, 29×19cm
 몽방강 편『통지당경해목록(通志堂經解目錄)』, 1책,
 연대 미상, 27.5×17.5cm
 장강(張鑑) 편『뢰당암주제자기(雷堂蠹主弟子記)』, 1책,
 연대 미상, 26×17cm
 완원 찬『왕복재종정관지(王復齋鍾經款識)』, 1책, 1802년, 28×56cm
 유진 찬『동관환기(東觀漢記)』, 4책, 연대 미상, 27×18cm
 유희해 편『장안회고편(長安懷古編)』, 2책, 연대 미상, 28×19cm
 남병길 편찬『원당착목(阮堂尺牘)』(상), 1867년, 29×19cm
 「김무염소전(金愚巖小傳)」, 탁본 1책, 1805년, 27.5×15cm

후지츠카는 평소 서체(書癖)로 알려져

박학하기로는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한다.

북경의 고서점가 유리창 일대와 서울의 인사동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집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학생들이 늘 찾아와 열람하며 도서관에도

없는 자료가 많은 데 감탄하였다고 한다.

후지츠카는 이 자료를 토대로 청나라와 조선의

학문 교류 양상을 고증학적인 관점에서

논증하는 데 평생을 진력하였다.

이번 전시는 후지츠카 집안에서 과천시

기증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추사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한·중 학예 교류의

자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기간 2006년 9월 29일 ~ 11월 8일

전시장소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주최 과천시·경기문화재단

주관 과천문화원

후원 경기도·과천향토사연구회

